

**김성군 변호사**  
160 main street  
Stoneham, MA02180  
781.438.6170  
www.songkimlaw.com

# 보스톤 코리아

BOSTONKOREA.com

**뉴스타 부동산**  
주택 / 콘도  
비즈니스 / 건물  
617.921.6979  
www.newstarrealty.com  
DianePark.com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161 Harvard Avenue, Suite 13, Allston, MA 02134

전화: 617-254-4654, 광고문의 전화: 617-775-8474

ISSN 1554-6942



22일 보스톤 소재 헬스커넥터에서 진양 대표(오른쪽) 집무실에서, 제이슨 레퍼츠 미디어 담당 디렉터와 함께 인터뷰를 진행했다.

## “오바마케어 모두 다시 등록 필요”

커넥터 사이트 새로 만들어  
기존 가입자도 재등록 해야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유다인 기자 = 매사추세츠 주에 거주하는 무보험 한인들은 오는 11월 15일부터 시작되는 오바마케어 공개등록기간에 가입신청을 해야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매사추세츠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한인들은 누구나 오바마케어를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패널티를 받지 않는다. 시민권, 영주권

자 뿐만 아니라 취업비자, 투자비자, 학생비자 등 각종 합법비자를 소유하고 일정소득 이상을 올리는 한인 및 유학생들은 반드시 오바마 케어에 가입해야 한다는 의미다.

오바마 케어의 매사추세츠 버전 보험거래소(MarketPlace)인 헬스커넥터(Health Connector)를 통해 보험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반드시 연방정부 규정에 적합한 충분한 커버리지를 갖춘 보험 즉 Qualified Health Plan(QHP)에 가입하면 된다. 그러나 가능하면 헬스커넥터에서 보험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쉽다. 2015년 오바마

케어 공개등록기간은 11월 15일부터 내년 2월 15일까지다.

매사추세츠 주의 오바마케어를 관장하는 기관 매사추세츠 헬스커넥터 진양(Jean Yang) 대표는 22일 “이미 오바마케어 혜택을 받고 있는 현 가입자는 물론 새로 가입하고자 하는 무보험자 모두 새롭게 만들어지는 웹사이트를 통해 등록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지난해의 경우 사실상 매사추세츠 주의 커넥터 웹사이트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상

▶▶3면으로 계속

## 한류의 숨은 공신 버클리 음대 한국 학생들 복적

오디션 프로그램 버클리 출신  
실력 선보이며 지원 학생 늘어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박에바다 기자 = 피아니스트 김광민, 장혜진, 윤상, 김동률, 싸이, 양파 등의 공통점은 유명 대중 음악인이라는 점 그리고 보스톤 소재 버클리 음악대학(이하 버클리)동문이라는 점이다. 버클리와 한국의 음악문화 그리고 한류의 관계를 어느 정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버클리 음대 동문들이 한국에 진출해 음악, 문화계에서 활약하며 한류의 숨은 공신으로 발전에 크게 기여하면서 한국내 음악 지망생들의 시선이 버클리를 향하고 버클리 음대의 시선도 이들의 활동을 주목하고 있다.

로저 브라운 버클리 총장과 버클리 매거진의 마크 스몰 편집장은 지난해 직접 한국을 방문해 오랜 기간 머물며 한인 버클리 동문들을 일일이 만났다. 한 대학 총장이 한 국가를 이례적으로 오랜기간 방문한 것은 흔치 않은 일이다. 싸이로 인해 다시 한번

▶▶4면으로 계속

이민법  
상법  
민·형사소송  
부동산 매매·부동산법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ung

617-504-0609  
Cambridge Office  
929 Massachusetts Ave.  
Cambridge, MA 02139  
www.lookjs.com

1불의 행복!  
대박이벤트!!

지금, IACE 를 통하여 미주지역에서  
한국으로 가시는 왕복항공권을 구매하시면,  
체류기간 동안,  
인천 ⇄ 도쿄 나리타 항공권  
+ 동경 2박3일 호텔숙박권  
이 믿을수없는 가격,  
**\$1에 모십니다!**

Japan. Endless Discovery.  
\*미국과 인천공항의 왕복편은 지정된 항공사의 티켓입니다.  
\*도쿄 내 호텔: 이코노미 호텔 기준  
\*예약상황과 좌석상황에 따라 프로모션 가격에 변동이 생길수 있습니다

Since 1970 IACE TRAVEL Korean Line  
CONNECT TO THE WORLD  
24H ONLINE BOOKING  
WWW.IACE-KOREA.COM  
1-866-619-4223  
info@iace-korea.com  
3655 Torrance Blvd, Suite 100,  
Torrance, CA 90503

MORTGAGE MASTER

#1 Lender in Massachusetts!  
EXCELLENT RATES  
LOW CLOSING COSTS  
ADVICE YOU CAN TRUST

Call me today for a free pre-approval!

**Ezer Lee**  
NMLS #859995  
Mortgage Loan Originator  
P (781) 591-2722  
F (617) 395-6865  
Kakao Talk ID: ezerlee  
elee@mortgagemaster.com  
www.mortgagemaster.com/elee  
MA LIC # ML0859995

Languages:  
English + Korean

44 Trapelo Road, Belmont, MA 02478  
Mortgage Master, Inc. NMLS #4251/MA  
Lender/Broker MC4251

뉴스타 부동산의 나원태, 제이슨 전의  
경험과 전문성으로 명쾌한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Lexington, Newton, Allston, Brighton, Cambridge, Boston

MA, RI 전 지역의 리스팅 구축 빠른 정보 전달 정확한 정보, 철저한 분석으로 최적의 결과 창출, 완벽한 팀워크를 통한 차별화된 부동산 마케팅 제공

**나원태 Realtor**  
미주 전체 뉴스타 부동산 금탑 다수 수상  
Direct: 617.642.3156  
wonra@newstarrealty.com

**제이슨 전 Realtor**  
미주 전체 뉴스타 부동산 금탑 다수 수상  
Direct: 617.642.5670  
jason.jeon@newstarrealty.com

Rental Listings

- 52 River St, Newton, 3 beds, 1.5 baths, 2 cars garage, \$2,900
- 701 Hammond St #1 Brookline, 3 beds, 1 bath, 1 parking, gas and electric 포함, \$2,800
- 116 Burkhal St #0 Weymouth, 2 beds, 1 bath

금주의 매물

매사추세츠 헬스 커넥터 진양 대표와의 일문일답

# “오바마케어 학생, 단기 체류자도 신청할 수 있어”

(보스턴 = 보스턴코리아) 유다인 기자 = 오는 11/15부터 공개등록기간이 시작된다.

매사추세츠 주에서 오바마케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헬스커넥터(Health Insurance Connector)는 의료보험에 관한 정보를 다양한 인종의 지역사회에 알리기 위해 9개 언어로 번역한 가이드 패키지를 제공한다. 아쉽게도 한국어로 된 패키지는 없으며 심지어 한인 컨설턴트도 없다.

공개등록기간을 맞이하여 오바마케어에 대한 한인사회의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보스턴코리아는 진양 대표를 만나 오바마케어와 공개등록기간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 23일 화요일 다운타운에 위치한 헬스커넥터 사무실에서 진양 대표와 미디어 담당 디렉터 제이슨 레퍼츠(Jason Lefferts)를 만났다.

특히 진양 대표와 레퍼츠 디렉터는 등록 관련 등 일반적인 질문에는 쉽게 답했지만 이민사회 관련 질문에는 정확히 대답하지 못했다. 다음은 진양 대표와의 일문일답이다.

### ▶무보험자를 위한 가입기간이 따로 있는가?

대부분의 시민권자, 영주권자 등의 합법 거주자들은 다양한 가입 매체(커뮤니티 파트너)를 통해 가입기간에 상관없이 언제든지 보험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11월 15일부터 2월 15일까지 열리는 공개등록기간은 누구든지 가입이 가능한 시기로서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무보험자에게는 절호의 기회다. 현재 등록 웹사이트가 새롭게 개설되어 준비 중에 있다.

### ▶시민권, 영주권자가 아닌 학생, 직장인 등의 임시 체류자도 오바마케어를 받을 수 있나?

모든 합법 체류자(Lawfully Present)는 보험에 가입해야 할 의무가 있다. 시민권, 영주권이 아닌 단기비자로 온 임시 체류자도 보험에 가입되어야 한다. 학생을 비롯한 단기 체류자도 마켓플레이스(Marketplace)에서 보험을 구입할 수 있으며 정부 보조금이나 텍스 크레딧(Tax credit)을 받을 수 있다.

합법적으로 매사추세츠에서 5년 이상 거주한 사람은 매스헬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5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어도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아동과 임신부는 매스헬스 혜택을 받는다. 이미 학교 보험에 가입된 학생도 학교에서 제공하는 보험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되면 매스헬스에 추가적으로 가입할 수 있다.

받을 수 있는 의료보험혜택이 애매한 신분은 헬스커넥터에서 분류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므로 일단은 오는 공개등록기간에 보험을 신청하는 것을 권장한다.

### ▶공개등록기간을 놓치면?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 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다. 직업이 바뀐다거나 이사를 하는 등의 개인적 사정에 따라 60일의 연장이 주어지기도 한다. 이는 헬스커넥터와의 컨설팅 후에 결정되는 사안이 되겠다. 하지만 절차상으로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공개등록기간을 적극활용하기를 권장한다. 한편, 메디케이드(Medicaid)를 신청하는 저소득층은 공개가입기



새로 개설된 웹사이트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는 헬스커넥터 진양 대표

간에 상관없이 아무 때나 신청 및 가입이 가능하다.

### ▶새로 가입이 필요한 대상은 누구인가?

헬스커넥터를 통해 이미 보험혜택을 받고 있는 기존 가입자와 올해 1월부터 임시적으로 메디케이드를 받고 있는 임시 가입자는 혜택이 만료되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공개등록기간에 재가입을 해야 한다. 이 대상들에게는 다음달 우편이나 전화로 재등록에 대한 통보가 발송되니 보험혜택이 만료되지 않게 주의를 가해야겠다. 아울러 현재 보험이 없는 사람들은 벌금을 피하기 위해 반드시 가입하는 것이 좋다.

### ▶가입 절차는?

온라인으로 가입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현재 준비 중인 웹사이트(<https://www.ma-healthconnector.org/>)에서 11월 15일부터 내년 2월 15일까지 가입가능하며 부득이하게 종이 가입자가 필요한 사람은 헬스커넥터에 연락하면 가입자가 배송된다. 하지만 온라인보다는 시간 소요가 길며 절차가 불편하니 온라인으로 가입하는 것을 권장한다.

### ▶영어사용이 불편한 이민사회를 위한 서비스가 제공되는가?

자사 콜센터(877-623-6765)로 연락하면 한국어 번역 서비스가 제공된다. 현재 나와있는 공개가입패키지에는 한국어가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작지 않은 한인사회를 고려해 추가, 발전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 외에도 지역병원에서 제공되는 공인신청카운슬러(Certified Application Counselor)나 네비게이터(Navigator) 프로그램을 통해 보험 가입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dyoo9146@bostonkorea.com

### 오바마케어 용어 해설 1

마켓플레이스(Market Place)/Healthcare Exchange: 소비자가 보다 저렴하고 본인에게 적합한 오바마 케어 보험과 플랜을 구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험시장 또는 거래소 즉 웹사이트를 뜻한다. 합법적 체류자라면 누구든지 보험을 구입할 수 있다.

QHP/Minimum Essential Coverage: 의료보험으로 규정된 최소한의 충족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응급치료, 구급차, 입원, 처방약, 임신출산, 소아과 치료 등 필수 항목을 커버하는 보험이어야 한다. 주 정부 보험거래소(커넥터)나 연방정부 보험거래소(healthcare.gov)의 인증이 필요하다.

**<진료 과목>**

- \* 일반 치과 \* 잇몸 질환 치료
- \* 신경 치료 \* 보철 전문
- \* 보톡스 & 필러

**주요 보험**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MassHealth, etc.

케임브리지 덴탈

큰 웃음을 드립니다

**Cambridge Dental Associates**

126 Inman Street  
Cambridge, MA 02139  
(617) 492-8210  
한국어 진료 상담 가능

[www.gracesalonsboston.com](http://www.gracesalonsboston.com)

**영업 시간** 월요일~금요일: 10시~7시  
토요일: 9시~8시

**예약을 하시면 기다리시지 않아도 됩니다.**

**각종 헤어 컷과 펌 그리고 스킨 케어**

**젊음과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곳!!**

- 매직 스트레이튼 Magic Straightening
- 브라질 케라틴 트리트먼트 Brazilian Keratin Treatment
- Threading Threading
- 디지털 펌 & 셋팅 펌 Digital Perm & Setting Perm
- 아이롱 펌 Iron Perm
- 헤어 칼라링 Coloring (GOLD WELL 사용)
- 헤어 메니큐어 (코팅) Hair Manicure
- 메니큐어 & 페디큐어 Manicure & Pedicure
- 왁싱 Waxing
- 얼굴 마사지 Facials
- 웨딩 서비스 Wedding Services

**Grace Salon**

프리미엄 토탈 헤어 살롱

**그레이스 컷팅 클럽**

**617-623-2430**

56 Union Sq. Somerville, MA 02143  
한국중합식품 옆 건물에 위치해 있습니다.

# 오바마 케어 인터넷 등록 쉬워진다

▶▶1면에 이어서

당수가 종이신청서로 등록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현재 주정부는 문제가 된 기존의 사이트를 전면 폐쇄하고 새롭게 웹사이트를 제작 중이다. 진양 대표는 “이번 웹사이트는 기존의 웹사이트에 비해 훨씬 간편하고 쉽게 등록할 수 있게 만들고 있다며 등록기간까지는 준비가 완료될 것”이라고 전했다. 헬스커넥터 웹사이트 주소는 (<https://www.mahealth-connector.org/>) 그대로이다.

양 대표는 “오바마케어 혜택을 받고 있는 현 가입자는 물론 새로 가입하고자 하는 무보험자 모두 새롭게 만들어지는 웹사이트를 통해 등록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지난해 오바마케어를 신청했던 모든 사람의 정보가 신규 웹사이트 시스템에 자동적으로 이체가 되지 않아 새롭게 신청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헬스커넥터 진 양 대표는 “가능하면 웹사이트를 이용해 등록하는 것이 가장 손쉽고 편리하며 이것이 불가능한 경우는 전화로 등록을 시도하라”고 강조하고 그래도 정말 어려운 경우 “종이신청서를 작성해 등록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헬스커넥터를 통해 보험혜택을 받고 있는 가입자와 매스헬스(Masshealth)를 통해 보험혜택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새로 등록을 안내하는 우편이 10월에 발송되며 우편을 받지 못한 한인들은 전화로 문의해야 한다.

등록기간을 놓쳐서 보험에 들지 못하는 한인이 많다. 무보험자에 대한 벌금은 올해 소득

의 1% 혹은 \$95로 비교적 경미하다. 이 벌금은 연말 세금보고 때 부과된다. 내년부터는 2% 혹은 \$325로 인상되기 때문에 공개등록기간을 놓치지 않고 신청하는 것이 좋다.

서류미비자(Undocumented)인 경우 오바마케어 가입은 불가능하지만 매스헬스 리미티드를 비롯 헬스 세이프티 넷(Health Safety Net)등을 통해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다. 헬스 세이프티넷 신청 및 문의는 877-910-2100로 할 수 있다.

dyoo9146@bostonkorea.com

## 오바마케어 용어 해설 2

**헬스커넥터(Health Connector):** 매사추세츠의 오바마케어를 관장하는 기관, 처음으로 매사추세츠 주 전주민 의료보험을 관리했던 행정기관이었다. 보험회사들의 보험플랜과 의료보험 소비자인 각 개인들을 연결하는 의료보험 거래소를 뜻하기도 한다.

**매스헬스(Masshealth)/메디케이드:** 매사추세츠 보건인적서비스부가 관할하는 의료보험 프로그램으로 중저소득층을 위해 메디케이드(Medicaid)와 아동건강보험(CHIP)을 포함한 메디케이드의 매사추세츠 버전이다. 메디케이드는 저소득층, 아동, 임산부, 장애인 등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국민의료 보조 제도로 빈곤선의 133%이하에게 제공한다.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로 미국에 5년 이상 거주한 사람들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주 보스톤 총영사관 공인인증서 발급서비스 개시

한국 온라인 쇼핑, 서류 업무 한층 쉬워질 것

(보스톤=보스톤코리아) 유다인 기자 = 지난 22일 월요일부터 주 보스톤 총영사관은 공인인증서 발급서비스를 시행해 이에 따른 한인들의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일상 생활에서 신원을 확인하거나 거래를 할 때 서명이나 아이디카드가 필요하듯 온라인 상에서도 전자서명이 필요한데 이것은 공인인증서의 형태로 발급된다. 이는 국가에서 지정한 국내 공인인증기관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기존의 한인들은 일부러 한국에 방문하는 불편을 겪기도 했다.

한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옷이나 신발 등을 구매하고 싶어도 해외 거주자로서 절차가 까다롭고 불편해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 동사무소에서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받기 위해 직접 한국으로 나서거나 지인에게 부탁해 택배를 하염없이 기다려야 했다.

총영사관에서 공인인증서를 발급한다는 것은 기존의 수고와 번거로움을 겪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한인들에게 참으로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한인들은 이제 인터넷뱅킹, 온라인 쇼핑, 보험 신청 및 결제, 동사무소 서류 발급 등 공인인증서가 필요한 각종 온라인 서비스를 편리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공인인증서 발급은 신청한 당일 바로 공인인증기관 홈페이지 접속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문의는 주 보스톤 총영사관(617-641-2830, [kcgiboston@mofa.go.kr](mailto:kcgiboston@mofa.go.kr))으로 연락하면 된다.

dyoo9146@bostonkorea.com

**보스톤코리아**  
BOSTONKOREA.com



**Publisher & C.E.O**  
장명술 Myong Sool Chang

**Writer**  
한세벽 SaeByuk Han  
정성일 Sungil Jung  
박현아 HyunAh Park  
유다인 Dain Yoo

**Graphic Designer**  
정한웅 HanWoong Chung

**Marketing**  
최성우 SeongWoo Choi

**Web Master**  
정한웅 HanWoong Chung

**Contribution part**

백린 Rin Paik  
신영각 YoungGak Shin  
공정원 JungWon Gong  
김은한 EunHan Kim  
백영주 YoungJoo Paik  
성기주 KiJoo Sung  
신영 Young Shin  
윤희경 HeeKyung Yoon  
이명덕 MyoungDuck Lee  
앤드류곽 Andrew Koak  
앤젤라엄 Angela Um  
정준기 JoonKi Jung  
이선영 SunYoung Lee  
소피아 Sophia  
홍상상 HaSang Hong  
오승준 Albert Oh  
이명원 Myung Won Lee  
장동희 Donghee Jan  
김화옥 HwaOk Kim

**& TV 사업국**  
617-955-9459

재휴일제 | 연합뉴스 | 미신협 회원사 | 세한연 회원사



맞춤식 교육 Mathematics • Verbal • Testing Skill

# SAT Plus

## SAT Plus Fall Schedule

Starting September 6, 2014

Class	Time	Day
PSAT / SAT I Prep (Grade 11)	9:00 AM – 11:00 AM	Saturday
PSAT / SAT I Prep (Grade 10)	11:30 AM – 1:00 PM	Saturday
READING / MATH (Grade 9)	1:30 PM – 3:00 PM	Saturday
SAT I Prep (Grade 12)	4:00 PM – 6:00 PM	Saturday
<b>Individual Tutoring</b>	<b>3:00 PM – 10:00 PM</b>	<b>Sunday – Thursday</b>



“항상 Tutoring이 가능합니다!!”

English Writing, Biology, History, Chemistry, Math, Physics

10년 이상의 지도경력으로 우수한 학생을 배출하신 한상훈 선생님! 항상 지도하시고 계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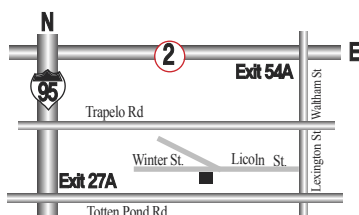
Rocky Hill School 과학 및 수학교사 Disciplinary Committee

MIT 생물학 학사학위

Who's Who Teachers of America-1992년 선출

Tandy Award Finalist(수학 및 과학분야 우수교사 표창)

지난 10년간 SAT I 및 SAT II 개인교습



# 한국 음악 발전의 자양분된 버클리 출신 한인들

▶▶1면에 이어서

주목 받은 한국 음악사업의 중심에 있는 버클리 출신 동문들의 활약상을 확인하고 한국은 물론 동아시아 전역에 미치는 그 영향력을 인상깊게 관찰하고자 한 것이다.

마크 스몰 편집장은 총장과 함께 재즈, 현대음악, 교육, 엔지니어링, 프로듀싱, 뮤지컬, 영화\*광고 음악 등 다분야에서 활동하는 동문들을 만났고, 분야별로 그들의 활약상과 업적 등을 낱알이 소개한 'Berklee's Korean Legacy' 라는 장문의 보고서를 버클리 웹사이트에 실었다.

버클리에는 그동안 실력있는 음악인들이 실력을 가다듬고 재도약을 위해 꾸준히 찾는 대학이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한국학생들이 급격히 늘었다. 실력있는 한인 학생들이 버클리에서 풀리는 데에는 약 5년 전부터 한국에서 열풍을 일으켰던 오디션 프로그램이 큰 몫을 했다.

각종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일렉트 로닉 음악에 지친 현대인들의 귀를 따듯한 감성과 음악성으로 사로잡으며 우수한 성적을 거둔 많은 참가자들이 버클리 출신이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화자됐었다.

<슈퍼스타 K>의 에디킴, <K팝 스타>의 브라이언 신, <보이스 코리아> 우승자 손승연 씨 외 다수가 버클리 출신

이다. 꿈을 키우던 음악인들이 오디션 프로그램을 보며 버클리에 관심을 갖고 주목하게 된 것이다. 또한 앞서 언급했던 뮤지션들 외 조PD, 박봄, 헨리 등 유명 가수들도 버클리 출신이다.

국제학생 수로는 두번째로 많은 250여명의 한국 학생들이 현재 버클리에서 공부하고 있다. 2006년 176명이었던 한인 학생들이 4~5년 전부터 200여명을 훌쩍 웃돌고 있는 추세다. 실력있는 해외 음악인들을 양성하기 위해 버클리는 토폴 영어 점수의 문턱을 낮추고 오디션 즉 실기 비중을 늘리는 등 이에 호응했다. 덕분에 버클리에는 영어 실력이 모자라도 음악으로 교감하고 공부하는 한인 학생들이 많다.

재즈 작곡과 기타를 전공하는 한 일본계 미국인 학생은 자신이 수강하는 수업마다 한인 학생들이 있다며 "영어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한국 학생들이 꽤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음악을 향한 진정성과 성실함은 정말 인상적이다" 라고 말했다.

모든 재학생들의 필수 과목인 앙상블을 지도하는 브루스 니퐁 교수는 "eapark@bostonkorea.com



매학기 내가 지도하는 팀에 들어오는 한국 학생들은 하나같이 실력이 뛰어나고 순수하게 음악을 사랑한다" 며 뿌듯해했다.

이렇게 버클리에서 교육을 받은 음악인들이 한국으로 돌아가 대중음악계는 물론, 연극, 재즈, 뮤지컬, 광고, 영화 분야에서 두드러진 활약을 펼치고 있다.

1998부터 서울 재즈 아카데미와 파트너십을 유지해온 버클리는 지난 7월 백석예술대학교와 협약을 맺어 한국 음악계와의 관계를 더욱 활성화시켰다. 로저 브라운 총장은 "한국인 버클리 동문들이 한국 음악계에서 뛰어난 활약을 펼치는데 정말 자랑스럽다" 며 백석예술대학교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한국 음악\*문화와 우리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실력있는 한국 음악인들이 더 많은 기회를 갖길 바란다"고 전했다.

eapark@bostonkorea.com

## 서울대 동창회 가을소풍 공지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오는 10월 11일 토요일 서울대 동창회(회장 장수인)에서 콩코드 소재 노스 브리지(North Bridge)로 가을소풍을 간다.

야유회는 10시 30분부터 시작되며 오후 2시에 액튼 클럽하우스 (Acton Clubhouse)에서 뒷풀이가 이어질 예정이다. 이날 점심식사가 무료로 제공되니 식사 준비를 위해 10월 5일 까지 snuaane@gmail.com으로 참여 여부를 알려야 한다.

이날 돛자리 등의 깔 것을 준비물로 챙겨와야 하며 별도의 참가비

는 없다. 우천시 액튼 클럽하우스에서 모임을 시작한다.

전반적인 행사 및 라이드에 관한 문의는 동창회 홈페이지 (<https://sites.google.com/site/snuaane/>)를 확인하거나 978-821-9434로 연락하면 된다.

### 행사일정

일시: 2014년 10월 11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 뒷풀이 오후 2시

장소: North Bridge Visitor Center(174 Liberty St, Concord, MA 01742), 뒷풀이 Acton Clubhouse

bostonkorean@hotmail.com

## 보스톤 한미노인회 사랑방모임, 단풍놀이행사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보스톤 한미노인회(회장 유영심)에서 오는 10월과 11월 정기적 사랑방모임과 단풍놀이행사를 갖는다. 각 행사 일정은 다음과 같다.

### 사랑방모임

일시: 매주 첫째, 셋째 수요일(10월 1일, 15일/ 11월 5일, 19일) 오전 11시 30분~오후 2시

장소: 보스톤 국제선교회 (57 Peters Street, N Andover, MA 01845)

### 단풍놀이행사

일시: 2014년 10월 18일 토요일 오전 9시~오후 5시

장소: 뉴햄프셔 위니페사키 호수 (Lake Winnepesaukee, 154 Main Street, Meredith, NH 03253)

단풍놀이 행사는 정원 60명으로 제한되며 함께 참여하고 싶은 사람은 오는 10월 8일까지 한미노인회(유영심 회장 978-994-5490, 윤철호 부회장 978-902-8305, 김인숙 총무 978-687-6974)로 연락해야 한다. 신청 회비는 \$10이다.

bostonkorea@hotmail.com

나쁜 치아를 만났다면  
좋은 의사를 만나야 합니다.



진료과목  
일반치과  
신경치료  
잇몸질환치료  
보철전문  
보톡스&필러

주요 보험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etc...

한국인  
진료 상담 가능  
응급치료 가능

617.871.1482  
캠브리지 덴탈 어넥스  
Cambridge Dental Annex

Tel 617.871.1482  
Fax 617.871.1483

www.yasuboston.com



## 야수 레스토랑

자녀를 위해 요리하는 엄마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야수는 작은 나물에서부터 요리 하나하나까지 자녀들을 기르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만듭니다. 직접 만들어 손맛이 들어있는 야수의 음식 - 맛과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야수를 찾아주세요.

YASU RESTAURANT  
Telephone 617.738.2244  
1366 Beacon Street, Brookline, M A02446



단체예약  
주문음식

# 가을을 품은 단풍 한껏 즐길 수 있는 뉴잉글랜드 명소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유대인 기자 = 어느새 가을의 문턱에 성큼 들어섰는지 울긋불긋 화려한 단풍을 찾아 나서는 발걸음이 잦아지고 있다.

뉴잉글랜드 지역은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어우러진 단풍을 즐길 수 있는 명소가 많기로 유명하다. 9월 중순부



뉴햄프셔 단풍 표시 지도. New Hampshire foliage로 검색해 찾아볼 수 있다

터 단풍이 지기 시작하면서 10월 초나 중순쯤에는 단풍이 만개하니 가을이 다가기 전에 단풍구경을 가 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양키폴리아지(Yankee Foliage) 홈페이지(<http://www.yankeefoliage.com/peak-foliage-forecast-map/>)에 주, 날짜 별로 뉴잉글랜드 지역의 단풍을 예측할 수 있는 트래커가 있으므로 구경가기 전 확인하고 가는 것을 권장한다. 매사추세츠 주의 단풍 트래커로는 인스타 폴리아지(<http://www.massvacation.com/fall/>)가 대표적이다.

▶칸카마거스 하이웨이(Kancamagus Highway, NH)  
단풍절경으로 유명한 화이트 마운틴(White Mountain)을 동서방향으로 가로지르는 이 도로는 34.5마일의 드라이브 루트다. 이 도로를 따라 달리면 단풍이 수놓은 새버데이 폭포(Sabbaday Falls), 스유프트 강(Swift River), 록키 조지(Rocky George) 등



의 숨막히는 자연경관을 감상할 수 있다. 캠핑 시설도 마련되어 있어 가족 단위로 즐기기에 제격이다. 캔카마거스 드라이브로 단풍을 즐길 수 있는 최적의 시기는 9월 말부터 10월 첫째, 둘째 주다.

▶콘웨이 시닉 레일로드(Conway Scenic Railroad, NH)  
1920년대의 빈티지한 열차에서 단풍을 구경할 수 있는 콘웨이 시닉 레일로는 뉴햄프셔의 손꼽히는 관광명소다. 벨리 열차(Valley Train)로는 11마일 왕복 55분이 걸리는 콘웨이 열차(Conway Excursion)와 21마일로 1시간 45분이 걸리는 바틀렛 열차(Bartlett Excursion)가 있다. 크로우포드 노치(Crawford Notch) 일대를 가로질러 달리는 노치 열차(Notch Train)를 타면 한 폭의 그림과 같은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일등석 티켓을 구입하면 3코스 식사도 제공된다.

9월 말부터 10월 둘째 주까지가 단풍이 가장 아름답다. 열차 스케줄은 매일 다르므로 홈페이지(<http://conwayscenic.com/schedules-fares/>)를 방문 전 확인해야 한다.

38 Norcross Cir, North Conway, NH 03860

▶비시-배시 폭포 주립공원(Bish-Bash Falls State Park, MA)

80피트의 폭포 줄기가 'V' 자로 떨어지는 비시-배시 폭포는 매사추세츠 주에서 가장 높은 폭포로 알려져 있다. 비시-배시 폭포가 위치한 주립공원은 워싱턴 스테이트 포레스트 산(Mount Washington State Forest)에 위치하고 있으며 하이킹을 즐기는 사람들이 즐겨 찾는 곳이다. 10월 초부터 차츰 붉게 물드는 이곳은 10월 중순까지 단풍을 감상하러 오는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다. 화려한 단풍 속에 등산을 하고 싶다면 비시-배시 폭포 주립공원

을 방문할 것.  
3 East St, Mt Washington, MA 01258

▶월든 호수(Walden Pond State Reservation, MA)

보스톤 시내에서 30분 정도만 가면 단풍으로 물든 자연을 만날 수 있다. 콩코드에 위치한 월든 호수는 일년 사계절 각기 다른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지만 가을에는 그만의 특별한 매력이 있다. 알록달록한 단풍이 그대로 비치는 호수는 마치 영화 속에 나오는 한 장면 같다. 그림 같은 호숫가를 산책하는 것보다 더 낭만적인 일은 없을 듯하다. 10월 초부터 시작되는 월든 호수의 단풍은 10월 말까지도 가을의 색깔을 화려하게 뽐낸다.

915 Walden Street (Route 126), Concord, MA 01742

[dyoo9146@bostonkorea.com](mailto:dyoo9146@bostonkorea.com)



**Frank Y. Shin, D.M.D**  
현 **Tufts** 치과대학 부교수



## 신영목치과

- 치아 이식 수술 [Implants]
- 금속 없는 크라운
- 미용 치료 (잃어버린 웃음을 찾아 드립니다)
- 응급 환자 당일 치료
- 토요일도 진료함
- 각종 보험 지정 병원

[www.drfrankshin.com](http://www.drfrankshin.com)

# 617.265.5606

1428 Dorchester Ave. Boston, MA 02122



## 가주 순두부 & 샤부샤부

한식&일식

"2013년 보스톤 잡지 선정 한식1위인 가주순두부  
이제 얼스톤과 캠브리지 두곳에서 모시겠습니다."

영업시간은  
오전11시~ 밤11시까지입니다.

얼스톤 주소: 56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617) 208-8540  
캠브리지 주소: 57 JFK St., Cambridge, MA 02138 (617) 864-6868



단체예약과 문의 가능

# ‘한국의 멋’ 패션쇼 한인 입양인을 위한 제 4회 문화행사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유다인 기  
자 = 한인 입양인을 위한 제 4회 ‘한

국의 멋(Taste of Korea)’ 행사가 오  
는 10월 18일 토요일 뉴햄프셔 훅셋  
(Hooksett)에서 패션  
쇼 형식으로 진행된다.  
2011년부터 시작된  
‘한국의 멋’ 행사는  
한인 입양인에게 한국  
의 문화를 알리는 취지  
로 기획된 연례행사로  
올해는 한국 전통의상  
을 주제로 한 패션쇼가  
열린다. 다양한 한복을  
입어볼 기회가 있으며  
국궁체험, 전통그네,  
널뛰기 등 실외에서 즐  
길 수 있는 다양한 이  
벤트도 준비된다. 점심  
으로는 비빔밥이 제공  
된다. 특별히 이날 성  
인 입양인과 입양아를  
가진 부모들의 포럼이  
있을 예정이다.

뉴햄프셔의 ‘코리안 아메리칸 청  
소년 프로그램 (Korean American  
Youth Program)’ 이 후원하는 이 문  
화행사는 지난 몇 년간 한국어반, 장구  
반 등의 수업을 제공하며 부채춤, 강남  
스타일 등의 공연을 통해 한국의 문화  
를 입양인에게 알리는 바 있다.

‘한국의 멋’ 행사에 참여하고 싶  
은 사람은 10월 4일까지 등록해야 하며  
참가비는 개인 \$20, 가족단위 \$80이다.  
자세한 문의나 후원에 관심 있는 사람  
은 홈페이지(kayp.org)를 참고하거나  
603-674-3415

혹은 jiyounjin@gmail.com으로 연  
락하면 된다.

### 행사일정

일시: 2014년 10월 18일 토요일 오후  
2시~6시 (10월 4일 등록 마감)

장소: 10 Brace Avenue, Hooksett,  
NH 03106

dyoo9146@bostonkorea.com



한국입양인에게 우리 문화를 알리는 ‘한국의 멋’ 행사 포스터

## 한미예술협회 박물관 일일여행 신청 받아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보스톤 한미예술협회(이사장 이충시,  
회장 김병국)가 오는 10월 11일 토요일  
매사추세츠 서부에 위치한 클라크 박  
물관(Clark Art Institute)으로 일일 여  
행을 간다.

선착순 50명 이내로 모집 정원을 제  
한하는 이번 일일여행은 오전 8시 30분  
에 렉싱턴 알로프트 호텔(Lexington  
Aloft Hotel) 주차장에서 출발하여 오  
후 6시경에 돌아올 예정이다. 참가비

는 일반 \$60(입장료 \$32 포함), 학생증  
을 지참한 학생 \$40(입장료 \$12 포함)  
이다. 간단한 점심과 음료는 협회에서  
제공한다.

참가 신청은 10월 8일까지 받으며  
Korean Cultural Society of  
Boston(KCSB) 앞으로 쓴 체크를  
‘KCSB, 31 Lillian Rd, Lexington,  
MA 02420’ 으로 보내거나 한미예술  
협회 홈페이지(kcsboston.org)의  
‘Contact Us’ 페이지에서 ‘Do-

nate’ 로 지불하면 된다.

지난 7월 확장공사 후 새롭게 개장  
한 클라크 박물관은 르누아르, 모네 등  
의 수많은 프랑스 인상과 작품의 소장  
을 자랑하고 있으며 다수의 희귀한 유  
럽과 미국 작품 등을 가지고 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info@kcs-  
boston.org나 781-367-5993으로 연락  
하면 된다.

bostonkorean@hotmail.com

## 한미예술협회 제2회 협회전 성황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보스톤 한미예술협회(회장 김병  
국)의 제 2회 협회전 리셉션이 지난  
20일 토요일 렉싱턴 소재 아트앤크  
래프트 소사이어티 (Arts&Craft  
Society)에서 열렸다.

이날 리셉션에는 다수의 한인작  
가들과 관람객이 모였으며 엄성준  
총영사관 내외가 참석하여 눈길을  
끌었다. 특별히 렉싱턴 미술과 수공  
예 협회의 전시관을 관람하는 몰리  
나이(Molly Nye)의 환영사와 협회  
회장 캐시(Cathy)의 협회에 관한  
설명이 있었다.

지난 20일 토요일부터 10월 5일까  
지 열리는 전시회에는 보스톤 미술  
관(Museum of Fine Art)의 아시아

관 큐레이터인 제인 포탈이 선정한  
회화, 조소, 섬유, 장신구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이 30점 가량과 초대작  
가인 피터 하인즈(Peter Haines)의  
조각품이 함께 전시된다.

한미예술협회 제 2회 협회전에  
참가한 한인 작가로는 차원재, 조미  
애, 유니스 최, 최혜경, 황지영, 강달  
래, 김희정, 김사울, 이은주, 이한카  
, 이재옥, 이지인, 김영숙, 나성숙,  
신영, 심은주, 유수례, 윤창우, 김영  
아가 있다.

갤러리는 화요일~금요일, 일요일  
은 오후 12시부터 4시까지, 토요일  
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개관한다.

bostonkorean@hotmail.com



지난 20일에 열린 한미예술협회 제 2회 협회전 리셉션

**보스톤코리아**에서는 여러분의 기사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연락처 : bostonkorean@hotmail.com, 617-254-4654

**무료전화 1-888-666-1708**

- 한국, 아시아, 미국내, 유럽, 남미 등
- KE, UA, DL, AA 등 모든 항공사 취급
- 항공권 특별 할인 제공
- 통역, 번역 서비스

**유니버스 여행사**  
대표 최한립  
Tel 617.739.2888  
www.utsboston.net

Universe travel services  
100 Hano Street #23A, Allston, MA 02134

**공인회계사**

**정진수**  
CPA/MBA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 IRS문제 상담 및 해결
-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 회계처리 및 감사
-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 용자 상담 및 재무재표 작성
- ▶ 급여(Payroll)서비스

TEL 781-849-0800, 508-580-3946 (한인전용)  
FAX 781-849-0848  
220 Forbes Rd., suite 206, Braintree, MA. 02184

**공인세무사**  
**김창근**

-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회계정리

미 연방정부로부터 공인된 세무전문가  
Licensed to Practice Before the IRS

TEL: (781)935-4620 FAX: (781)935-4187  
165-M New Boston St. Suite 278, Woburn, MA 01801

# 바리톤 김동원, 소프라노 나유선 가을음악회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유대인 기자 = 보스톤한미예술협회(이사장이 총시, 회장 김병국) 주최의 가을음악회가 오는 10월 5일 일요일 오후 4시 브루클라인 소재 세인트 폴 교회 (St. Paul's Episcopal Church)에서 열린다.

바리톤의 김동원과 소프라노의 나유선이 노래를, 피아니스트 김초아(보스톤 대학교 박사과정)가 반주를 맡은 이번 음악회는 한국, 이탈리아, 독일 가곡과 성가곡, 오페라 아리아로 구성되어 다양한 장르와 언어의 음악을 감상할 수 있다.



바리톤 김동원, 소프라노 나유선, 피아니스트 김초아의 연주회

사랑에 대한 이야기로 음악회 곡을 구성했다는 성악가 김동원은 이탈리아 대표적인 작곡가 토스티 (Francesco Paolo Tosti)의 아름답고 애절한 곡들, 나유선 작곡의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등의 관객과 호흡하며 즐길 수 있는 곡들을 선보인다.

사랑을 표현한 브람스의 곡과 그리움을 정서가 나타난 한국 가곡 '그대 있음에', '그리운 금강산' 등을 부르는 성악가 나유선은 2부에서 성악가 김동원과 함께 오페라 아리아와 이중창의 하모니를 들려준다.

한양대학교와 밀라노 베

르디 국립 음악원을 졸업한 바리톤의 김동원은 뉴잉글랜드 컨서버토리 (New England Conservatory)에서 아티스트 디플로마 오페라 과정을 졸업했다. 토티 달몬테, 마리오 델 모나코 등의 수많은 국제콩쿨에서 우승 및 입상하였으며 각종 오페라의 주연으로 출연한 바 있다. 현재는 오페라 보스톤, NEC 오페라 등과 협연하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소프라노 나유선은 뉴잉글랜드 컨서버토리에서 석사과정을 졸업한 후 일리노이 센트럴 칼리지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다. 배리 알렉산더 등 다양한 국제콩쿨에서 우승한 경력이 있으며 사랑의 묘약, 휘가로오의 결혼 등의 유명한 오페라의 주역을 맡았다.

보스톤 총영사관과 해외동포재단에서 후원하는 이 음악회는 일반인 \$10, 어린이와 청소년은 무료로 입장 가능하다. 티켓은 [www.kcsboston.org](http://www.kcsboston.org)에서 사전에 구매하거나 당일 연주장소에서 구매할 수 있다.

기타 문의사항은 781-223-4411로 연락하면 된다.

[dyoo9146@bostonkorea.com](mailto:dyoo9146@bostonkorea.com)

## 한국문화 소개한 로드아일랜드 헤리티지 가을행사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지난 20일 로드아일랜드한인회(회장 이동문)는 로저 윌리엄스 국립 기념공원 (Roger Williams National Memorial Park)에서 열린 제 37주년 헤리티지 페스티벌 (Heritage Annual Festival)에 참가했다.

매년 개최되는 헤리티지 페스티벌은 올해 각국의 문화와 음식을 소개하는 국제적인 축제로 열렸다.

행사에 참여한 많은 외국인들이 한복을 입고 퍼레이드에 참가한 강순 이사를 향해 환호와 박수를 보내며 한국 전통의상에 큰 관심을 보였다. 최고의 호응을 받은 이날의 하이라이트는 태극기 그리기였다. 태극기의 의미를 물어보며 정성스럽게 색칠하는 어린이들이 몰려 우리

나라를 더욱 알리는 뜻 깊은 시간이 되었다.

비빔밥은 수많은 국제 음식 중에서 외국인들의 이목을 끌었다. 손수 당근과 호박 등을 준비해 온 박민정 한식 전문 강사는 "비빔밥은 세계인의 건강을 리드하는 자연스러운 음식"이라며 "음식 준비를 하느라 2시간 정도밖에 못 잤지만 정말 보람 있는 날이었다"며 행사를 마무리했다.

특별히 이날 행사에는 전임 백옥진 회장이 병원임원 중임에도 불구하고 행사에 도움을 주었다.

행사에 참여한 로드 아일랜드 한인회 회원들은 내년 행사를 위한 계획을 미리 구상하는 등 지역참여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보였다.

[bostonkorean@hotmail.com](mailto:bostonkorean@hotmail.com)

## 보스톤 산악회 단풍산행 공지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보스톤 산악회에서 오는 10월 4일 토요일 뉴햄프셔 소재 마운트 카디건 (Mt. Cardigan/ Cardigan Mountain State Park, Orange, NH 03741)으로 단풍산행을 간다.

산행에 필요한 준비물은 물과 간식거리, 장갑, 겹옷이며 이번 산행에는 하산 후 바비큐가 제공된다.

라이드가 필요한 사람은 울스톤 공영주차장으로 오전 7시까지 집결해야 하며 직접 차로 오는 사람은 Park&Ride Exit2 of RT93으로 오전 7시 30분까지 오면 된다. 직접 차

를 이용해서 오는 사람은 사전에 연락을 해야 한다.

참가하고 싶은 사람은 산행 전 목요일(10월 2일) 오후 6시까지 신청해야 하며 참가비는 \$30이다. 참가 신청 등 기타 자세한 문의는 이메일 ([bostonmt@gmail.com](mailto:bostonmt@gmail.com))이나 전화 (978-905-5819)로 하면 된다.

산행일: 2014년 10월 4일 토요일  
집결지: 울스톤 공영주차장 오전 7시/ Park&Ride Exit2 of RT93 오전 7시 30분

[bostonkorean@hotmail.com](mailto:bostonkorean@hotmail.com)

## 제 1회 로드아일랜드 한인회 장학기금 모금 음악회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가을을 맞아 화음보스톤 챔버 오케스트라(음악감독 박진욱)가 10월 5일 일요일 오후 5시에 로드아일랜드 소재 브라운대학에서 첫 장학기금 모금 음악회를 연다.

브라운대학 한인학생회(KGSA)에서 주최하는 이번 음악회는 젊은 한인 음악가들을 격려하고 후원하는 취지

로 마련되었으며 아울러 브라운대학 250주년을 축하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음악회는 전 로드아일랜드 한인 회장을 역임한 이길자(25대), 정정욱(13대) 박사 내외의 후원과 로드아일랜드 이동문 한인회장의 적극적인 협조로 열리게 되었다고 행사 관계자가 전했다.

티켓 및 후원금 관련 문의는 508-336-5580으로 연락하면 된다.

### 행사일정

일시: 2014년 10월 5일 일요일 오후 5시

장소: 브라운대학교 그렌오프센터 (Granoff Center), 154 Angel Street, Providence, RI 02912

[bostonkorean@hotmail.com](mailto:bostonkorean@hotmail.com)

**Kim Law Offices, L.L.C.**

성심을 다해 변호하겠습니다

**김연진 변호사**  
Yeon J. Kim, Esq.

주요 경력  
 ■ 前미연방 이민국 심사관  
 Boston지사 에서 만여건의 영주권 시민권 심사  
 ■ 前 미연방 세관 특별수사관  
 NY지부 연방 범죄 관련 직접 수사  
 ■ 前 미국 육군 심문관

업무분야  
 이민법 / 상법  
 형사법 / 가정법

Tel: (781)932-0400 Fax: (781)932-0403  
 3 Baldwin Green Common, Suite 210 Woburn, MA 01801

Attorney at Law

**장우석 변호사**

사고 상해  
 파산 보호  
 비즈니스/리스

IRS/DOR/UI  
 민/형사 소송  
 이민법

전화: (781)712-1706 CHANG & ASSOCIATES, P.C.  
 67 South Bedford Street, Suite 400 West,  
 Burlington, MA 01803

**한미선 공인회계사**  
Master of Science in Taxation

IRS, MA DOR 와의 세금 문제 해결  
 사업체 세무보고 및 회계/경영 자문

- 회사의 설립 및 해체/ 회계처리/회계 감사
- QuickBooks Set-up - 비즈니스의 성격 및 구조에 맞는 기본설치 및 운영상담
- Payroll 서비스 및 고용주의 세금납세 대행

개인 세무 보고

- 해외 소득, 임대소득, 주식 등 투자, Self-employed 사업자, 자산 처분, Clergy, Military, F1, J1 Visa holders - 한국과의 Tax Treaty 하에 있는 분 등

각종 세금 공제 및 절세를 위한 세무 상담

Tel: 617-792-2355 Fax: 617-849-5852  
 E-mail: [michellehan.cpa@gmail.com](mailto:michellehan.cpa@gmail.com)  
[www.mhancpa.com](http://www.mhancpa.com)  
 Cambridge Office (Alewife Station)  
 125 Cambridge Park Dr. Suite 301  
 Cambridge MA 02140

# 뉴잉글랜드지역협의회 교사연수회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오는 27일 토요일 재미한국학교 뉴잉글랜드지역협의회(NAKS-NE)는 한국학교 교사 및 한국어 교육에 관심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교사 연수회를 갖는다.

‘한국학교 교사 전문성 향상 - 효과적인 한국어 및 한국역사 문화수업’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 연수회는 뉴튼 소재 뉴잉글랜드 한국학교에서 열린다. 뉴잉글랜드지역 한국학교 교사, 이사, 학부모 등 교육에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주 강연은 현재 하버드대학교 교육대학원의 김명화 교수가 ‘한미 1.5세와 2세 아이들에 대한 이해’이라는 주제로 맡는다. 이 후에 이어지는 분반 강의는 문혜원(로드아일랜드 한인학교), 전하나(워싱턴 중앙 한국학교), 강주연 교수(미국방 외국어 대학 워싱턴 지부 한국어 학과장), 황우성 교수(하버드 대학교)가 초청되어 강연을 펼친다. 각 학교의 교장들은 박지영 교육영사와 함께 간담회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이날 연수회는 오후 1시 30분 등록

을 시작으로 개회식, 전체 강연, 분반 강의 I, II, 식사 및 교제의 순으로 진행된다. 전체 일정은 오후 7시에 마칠 예정이다.

자세한 정보는 재미한국학교협의회 홈페이지(www.naks-ne.org)를 통해 알 수 있으며, 기타 문의는 한순용 협의회 회장(soonyhan03@gmail.com) 혹은 김현정 총무(anasta24.kim@gmail.com)에게 하면 된다.

bostonkorean@hotmail.com

# 서울대 동창회, 가을바다 여행으로 동문에 다져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서울대 동창회(회장 장수인)에서 주최한 가을바다 여행 행사가 지난 20일 토요일 메인 주 오군퀴트 바다(Ogunquit Beach, Maine)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가을바다 여행에 참석한 55학년부터 03학년까지의 총 20여명의 동

문들은 가을 바닷가를 산책하고, 운치 있는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며 신입회원을 환영하는 등 동문애를 다지는 뜻 깊은 시간을 보냈다.

장수인 회장은 “참석한 동문들과 상쾌하고 편안한, 그리고 여유 있는 시간을 보내며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었

다” 고 전했다.

다음 서울대 동창회 행사로는 10월 11일 콩코드(Concord) 노스 브리지(North Bridge)에서 열리는 동문 피크닉이 있다. 자세한 행사 정보는 <http://sites.google.com/site/snuaane>를 참고하면 된다.

# 뉴햄프셔 국제결혼 가정문화 선교회 모금만찬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오는 11월 1일 토요일 국제결혼 가정문화 선교회 뉴햄프셔 지부(NAICFM

Southern NH Chapter)에서 모금만찬을 갖는다.

국제결혼 가정문화 선교회는 국제결혼한 한인들의 모임으로 미주리에 본부를 두고 활동하는 비영리 단체다. 이 모임은 국제결혼을 한 여성과 혼혈아의 인권을 옹호하고 가정폭력과 사회적 편견으로부터 보호하는 등 국제결혼을 한 한인들과 활발하게 교류하

고 있다.

엘크스 로지(Elks Lodge, Nashua)에서 열리는 이날 모금만찬의 티켓은 \$50이며 10월 26일까지 사전예약을 해야 참석할 수 있다. 기타 문의는 603-889-8201로 연락하면 된다.

### 행사일정

일시: 2014년 11월 1일 토요일 오후 6시, 10월 26일 사전예약 마감

장소: Nashua Elks Lodge, 120 Daniel Webster Highway, Nashua, NH 03060

bostonkorean@hotmail.com



작년 하버 힐에서 열린 국제결혼가정문화선교회 기금 모금 만찬

# 2014 한얼대전 작품 공모전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재미한국화가회(회장 정영심)가 주최하는 2014 한얼대전 작품 공모전에서 오는 30일까지 작품 접수를 받는다.

공모는 그림 부문과 차세대 부문(어린이, 청소년, 대학생 대상), 사진 부문(연령 제한 없음)으로 나뉜다. 작품은 한글, 한국의 아름다움 및 자유 주제로 참여 가능하다.

공모전은 30일 접수를 마감하며 전문 심사단이 입상작을 선정, 발표한다. 10월에는 수상자 특별전시회가 열릴 예정이다.

재미한국화가회는 지난 1월 한려예술원(원장 정수경)과 공동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33명의 원로, 중진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한 ‘아름다운 동행전’을 부산시청에

서 개최한 바 있다. 올해는 창립 10주년을 맞아 국내외 작가를 발굴하여 그 정신을 발전, 계승하고자 세계 한인미술상 시상도 추진하고 있다.

접수처 등 공모전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재미한국화가회 카페(<http://cafe.daum.net/hangukhwaUSA>)를 참조해야 하며 문의사항은 [hangukhwa@gmail.com](mailto:hangukhwa@gmail.com)로 하면 된다.

bostonkorean@hotmail.com



3학년 학생이 차세대 부문에 출품한 작품

# 200여명 모인 법륜스님의 유쾌한 즉문즉설 강연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유대인 기자 = 지난 24일 수요일 하버드대학에서 약 200여명의 한인이 모인 가운데 열린 법륜스님의 릴레이강연이 성황리에 마쳤다.

중은 보스톤 지역의 젊은 학생들이 주를 이뤘다. 지역한인의 애환과 고민을 듣고 법륜스님이 답을 하는 즉문즉설 강연은 종교를 뛰어넘는 유쾌한 시간이 되었다.

이날 법륜스님의 강연을 찾은 청

dyoo9146@bostonkorea.com



**COLDWELL BANKER**  
RESIDENTIAL BROKERAGE

**부동산 중개인 김현구**  
Chris H. Kim, GRI Realtor

정직하고 성실하게 도와 드립니다  
주택 무료 감정

Cell 617.694.0985

Brookline Office: 622 Hammond Street, Chestnut Hill, MA 02467 (B) 617-566-2447  
Newton Office: 1261 Centre Street, Newton, MA 02459 (B) 617-969-2447

Covering Boston, Brookline, Newton, and Greater Boston  
Chris.Kim@NEMoves.com

Birchtree Properties, R.E.

**이정선 부동산**

\*부동산 비즈니스 세일

Cell 781.883.5984  
Fax 781.874.9587  
Work 781.874.2087  
Email Chunglee7@gmail.com

33 third street medford, Ma 02155  
www.btpusa.net

**惠民 Park Acupuncture and herbal medicine**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최상의 선택  
**혜민한의원**

617-787-0789 www.acupark.com  
60 Leo M. Birmingham Parkway, Suite 101, Brighton, MA 02135

# 가정폭력, 주지사 선거 핫이슈로 떠올라



지난 선거에서 여성유권자에게 유난히 약했던 찰리 베이커 후보는 올해 여성유권자들에게 많은 관심을 쏟고 있다

### NFL 선수 가정폭력 불똥 찰리 베이커에 여성운동가들 즉각 찰리 베이커 태도 비난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찰리베이커 매사추세츠 주지사 후보(공화당)가 내셔널 풋볼 리그(NFL) 22일 로저 구델 총재의 사임을 요구하고 나섰다. 생뚱맞은 일 같지만 매사추세츠 주지사 선거에서 실제로 구델 총재로 대변되는 가정폭력 문제가 이슈화 되고 있기 때문이다.

가정폭력을 휘두른 풋볼 선수 레이 라이스를 제대로 징계하지 않은 구델 총재의 사임 요구에 베이커 후보까지 동참한 것은 그만큼 가정 폭력 이슈가 이번 주지사 선거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가정폭력 문제는 늘 정가의 이슈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볼티모어 레이브스의 스타 러닝백 레이 라이스가 자신의 약혼녀에게 펀치를 날려 녹다운 시켰던 비디오가 인터넷 상에 공개되면서 미국 선거판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가정폭력에서 대부분 피해자 입장에서 여성 유권자들의 표심을 단번에 뒤흔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가정폭력을 휘두른 풋볼 선수 레이 라이스의 행위를 알고서도 제대로 징계하지 않은 구델 총재에 사퇴압력이 거세게 일고 있다. 지난 주 목요일 18일 찰리 베이커 후보도 이문제로 곤욕스런 상황에 봉착했다. “우먼포찰리(Women for Charlie)” 라는 베이커 후보의 여성유권자 선거운동 종료 즈음 로저 구델 사임에 대한 질문이 화근이었다.

베이커 후보는 “이러한 상황에 봉착할 때마다 누군가를 해고한다면... 잘 모르겠다. 좀더 많은 자료와 정보를 검토해야할 것 같다. 하지만 구델 총재는 많은 것에 답해야 할 것이다” 라며 신중한 자세를 취했다.

미적지근한 베이커 후보의 태도에 즉각 여성정치 그룹과 마사 코클리 주지사 후보(민주당) 선거캠프는 즉각 날 선 반응을 보였다. 매스나우(MassNOW)는 성명서를 발표해 “베이커 후보가 명확한 답변을 전달하는 것을 거부했다 <중략> 가정폭력 근절이 그에게는 우선순위가 아님을 반명한다” 고 비난했다.

마사 코클리 선거캠프도 코클리 후보의 반응을 담은 웹비디오를 만들었다. 코클리 후보는 “결코 어려운 결정이 아니다. 그(구델)는 반드시 사임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또한 베이커 후보의 답변이 초점을 잃었다는 주장과 함께 코클리 후보의 비디오를 참고하라며 이를 선거기금 모금의 도구로도 사용했다.

마사 코클리 후보와 모라 힐리 공동으로 편지를 발표했다. 이 편지에는 고교 운동선수들에게 약물 오남용 교육을 받는 것처럼 청소년 데이트 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교육을 받도록 하자는

제안을 담았다.

베이커 선거캠프는 코클리 후보가 가정폭력을 정치적 공세로 악용하고 있다고 깊은 실망감을 표했다. 특히 베이커 캠프는 지난 2013년 미들섹스 지검 매리언 라이언 검사의 제르드 레미에 대한 기소가 부실했던 점을 마사 코클리 후보가 감췄던 것을 지적했다. 레미는 자신의 여자친구인 제니퍼 마르텔의 머리를 거울에 부딪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얼마후 풀려나자마자 마르텔을 살해했다.

하지만 신중한 답변으로 궁지에 몰린 베이커는 22일 즉각 구델의 사임을 요청했다. “지난 주말 접한 정보에 따르면 그가 첫번째로 리스 사건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던 시점에 훨씬 많은 것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있다. 따라서 그가 사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고 기자들에게 밝혔다.

베이커는 가정 폭력범에 대한 처벌 강화와 법적 절차 단순화를 제안하는 등 이미 지난 3월에 자신의 입장을 밝혔지만 결국 로저 구델에 대한 반응에서 단호하지 못한 것이 화근이 됐던 것이다. 지난 2010년 선거에서 여성 유권자들로부터 무려 24%나 적게 득표했던 베이커는 그동안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여러가지 준비를 했으며 신중한 접근을 해왔었다.

hsb@bostonkorea.com

## 베이커 “스윗하트” 발언 사과하는 게 옳아

### 공화당 부주지사 후보 폴리토 밝혀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찰리 베이커의 러닝메이트인 부주지사 공화당 후보는 찰리 베이커가 여성 TV앵커에게 “스윗하트(sweetheart)” 발언에 대해 사과하는 게 맞다고 24일 밝혔다.

보스톤 헤럴드의 보도에 따르면 찰리 베이커의 러닝 메이트인 케이린 폴리토는 “그는 당연히 사과해야 했고 또한 이에 대해 사과했다” 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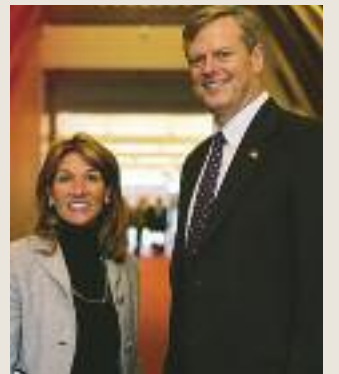
팩스 25뉴스의 리포터 셔먼 사케티는 23일 찰리 베이커와의 인터뷰에서 더 많은 질문을 받을 것을 종용했었다. 찰리 베이커는 그녀의 공세에 “좋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질문으로 해주세요 스윗하트” 이라 말하며 질문을 막았다.

그의 이 같은 발언은 즉각 비난의 대상이 됐다. 베이커가 남성우월주의자이라는 질문에 폴리토 부

주지사 후보는 “베이커는 나를 존경하며 사면도 존경한다. 그리고 그와 함께 일해왔던 모든 여성들에게 존경심을 갖고 있다” 고 밝혔다.

변호사이자 스루스베리 지역 주하원의원이었던 폴리토는 찰리 베이커에 대해 “이번 선거에서 나의 견해와 의견을 포용하고 있다” 고 밝혔다.

hsb@bostonkorea.com



케이린 폴리토와 찰리 베이커

“휴식과 회복이 있는 곳”

## 은혜한의원

Grace Acupuncture & Oriental Medicine

원장 **백승희**  
(경희한의대 42기)

각종 상해, 의료보험 취급 / 편리한 주차

**781.862.1842**

442 Marrett Rd. Suite 6  
Lexington, MA 02421  
www.graceaom.com

“당신의 환한 미소가  
마름답습니다.”

거의 모든 보험 받습니다  
매스헬쓰도 받습니다

**978.689.9363**  
(한국어문의)

DongWon Kim DMD  
**김동원치과**

465 South Broadway Lawrence MA 01843

**가족 물리치료 병원**  
GB Family Physical Therapy

매사추세츠 최초  
**REDCORD식 치료법 도입**

진료분야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어깨, 팔, 무릎, 다리 및 각종 운동 후 통증  
척추 측만증 및 자세교정

교통사고/직장상해 보험, 유학생/여행자 보험,  
메디케어 외 정부보험 및 미국보험

대표: 781-365-1876 한국어 781-365-1867  
83 Cambridge St. Suite 2B Burlington, MA 01803

**www.gbfamilypt.com**



조기유학 및 학업지도 대표 기관

# BOSEC 보스톤 유학원

www.bosec.com

보스톤유학원은 가장 오래 전통을 가진 유학원으로 많은 학생들을 명문 중/고등 사립 학교와 명문 대학에 입학 시켜온 교육 컨설팅 대표기관입니다. 보스톤 유학원은 학생들이 미국에서의 학업에서 성공하도록 최상의 컨설팅과 수준높은 학업지도를 제공합니다

## Educational Consulting Department

1. 조기유학, 초/중/고 /대학 입학, 전학, 인터뷰 가이드 전문
2. 한국에서 갓 전학 온 학생 교육컨설팅
3. 대학 입학 상담, 지원서 작성 (College Consulting) : 하버드 입학담당관 출신이 전문위원으로 활약
4. 가디언, 홈 스테이, 여름/겨울 캠프
5. 주말 봉사활동, 특활 지원
6. 상세 사항: 웹사이트 참조 [www.bosec.com](http://www.bosec.com)

- 컨설팅 서비스의 특징: 다년 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성공적 상급 학교 진학을 보장하는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 서울 사무소: 부모님 들의 편의를 위해서 도곡동 타워팰리스 단지 내에 서울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주소 참조)
- 합격한 중, 고등 학교: Fay, Choate Rosemary, St. Paul, Milton, Groton, Kent, NMH, Loomis Chaffee, Hotchkiss, Lawrenceville, St. George, Middlesex, Concord, Governor Dummer, Eaglebrook, Cardigan Mountain, Fessenden, Cushing, Brooks, Westover, Dana Hall, Holderness, Kent, Worcester Academy, Eaglebrook, Philips Academy, Pomfret 등. 상세 사항 웹사이트 참조.
- 합격한 대학: Harvard, Yale, Stanford, Cornell, Columbia, NYU, Bowdoin, Dartmouth, Trinity, Emory, U. Mich., U. Penn. Brandeis, Boston College, Bowdoin 등 다수

## 튜터의 자질과 경력을 보고 프로그램을 선택하세요!

## Academic Tutoring Department

SAT, SSAT, TOEFL, Writing 전문 학원

대표 강사 부원장: James Kim, Harvard, Yale 철학 전공

책임 강사: Robin Burns,  
Stanford Univ. English Major, MS, BA, 수석 졸업,  
SAT Verbal 800

- 대상 학생: Native Speaker, 유학생, 보딩스쿨/데이스쿨 학생
- 한국식 엄격한 지도. 숙제 관리. 공부를 하지 않을 수 없게 지도 함.
- 시험 요령 습득이 아닌 실력 향상 위주.
- SAT, TOEFL, SSAT수강생 전원에게 정선된 필수 단어 목록 제공

### Private Tutoring

Math, Essay Writing, Physics, Chemistry, Biology, History, Spanish, French, Latin, TOEFL, SSAT, ISEE SAT, ACT

\$70-100/hr

여름 방학 특강 (보스톤)				
SAT 집중반	7월6일-8월 20일, 월, 수,	10 AM-1PM	\$1250	실전 테스트 5회
개인 지도	학생이 지정		\$60-\$80 여름 특별가	전 과목

단 주 1회 실전 테스트 일은 10 AM-1:30 PM, 최소 인원 3명

### 여름 방학 특강 (서울)

개인지도 혹은 4인 이하 소 그룹: 문의 02-579-9731

지도과목: SAT, ACT, AP US History, AP English, SSAT, TOEFL, Reading/Writing

## 기숙학교 연중 프로그램(안전한 홈스테이, 항공, 교통편 제공)

Program	기간	그룹 지도	개인 지도	제공서비스
추수 감사절	11월 중순-말	SAT, SSAT, TOEFL, ESSAY	전과목	교통편/항공편, 숙식
성탄 휴가	12월 중순-말	SAT, SSAT, ESSAY	전과목	교통편/항공편, 숙식
봄방학	3월중 3주간	SAT, SSAT, TOEFL, ESSAY	전과목	교통편/항공편, 숙식

이 프로그램 들은 2001년 부터 6년 째 제공되고 있는 정평있는 프로그램입니다. 학부모가 이 기간 중 한국에서 오시는 경우 편안한 장기 투숙 안내 제공.

- 주말 교통편, 홈 스테이, 학업 지도, 봉사 활동 제공 - 학생이 필요한 과목별 개인 지도, 유학생을 위한 집중 영어 쓰기 지도 제공
- 한 학교에서 3명 이상이 같은 프로그램으로 오는 경우 할인 혜택
- SAT는 CR과 Writing점수목표가 650-750사이인 학생을 목표로 함. SSAT는 80-99%를 목표로 하는 학생을 위한 클래스임.

### 보스톤 유학원

미국: 545 Concord Avenue, Suite 214,  
Cambridge, MA 02138

한국: 서울 강남구 도곡동 대림 아크로텔 2402호  
(삼성 타워팰리스 단지 내 02-579-9731)

대표: 원장 공학박사 송영두

Tel 617-491-0041  
617-491-0043

- \* 교사 수시 모집: [info@bosec.com](mailto:info@bosec.com) 으로 resume를 보내 주십시오.
  - \* 홈스테이 가정 수시 모집: 뉴잉글랜드 전역. [info@bosec.com](mailto:info@bosec.com) 으로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사절.
  - \* 사무 직원 모집: 미국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닌 분. [humanresource@bosec.com](mailto:humanresource@bosec.com) 로 resume를 보내 주십시오.
- "주차는 보스톤유학원 옆의 Fresh Pond Mall 의 Whole Foods Market에 하시면됩니다."

# 마사 코클리, 베이커와의 격차 벌려

포괄적인 프리스쿨 교육 이슈 앞세운 코클리, WBUR 조사에서 10포인트차 앞서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민주당 주지사 후보이 마사 코클리가 공화당 주지사 후보인 찰리 베이커를 10포인트 차로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WBUR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코클리 후보는 46대 36으로 베이커를 앞서고 있다. 이 같은 차이는 최근 보스톤 글로브에서 조사했던 3 포인트 차 등 여러 조사보다 훨씬 큰 표차다.

매스잉크 여론조사 그룹(The MassINC Polling Group)의 스티브 콕젤라 회장은 “이번 표차의 정확함 이유는 어떤 거라고 규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번 여론조사는 502 유권자를 전화 조사한 것이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매스잉크는 누구에게 투표할 것인가를 묻고 아직 결정하지 못한 경우 어떤 후보에게 기울고 있는가까지 질문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부동산들이 점차로 줄어 12%만 부동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찰리 베이커는 유권자의 9%가 그의 이름을 인지하고 있었다. 베이커 후보의 인지도는 8월 말 84%에 불과했다. 그동안 정치분석가들은 베이커가 승산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지도를 높여야 한다고 분석했지만 인지

도가 높아진 상황에서도 득표율에는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것이 나타난 것이다.

특히 베이커는 여성 유권자들에 대한 구애작전에 나섰음에도 50-26으로 커다란 표차의 열세를 보였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는 코클리의 주요 선거 공약인 프리스쿨 등 조기 아동교육이 커다란 반향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권자의 73%는 포괄적인 아동 조기 교육에 대해 찬성했으며 포괄적인 조기 아동교육을 위해 세금을 올리는 것에 대해 53%가 찬성 입장을 보였다.

코클리는 아이들이 조기교육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특히 저소득 가정의 자녀들이 학교에 갈 수 있는 바우처 프로그램을 확대해 현재의 긴 대기자 명단을 없앨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코클리의 정책은 프리스쿨로 인해 많은 교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부모들에게는 커다란 매력으로 다가오고 있다.



베이커는 지난 주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도 조기 교육의 일면에는 동감하지만 유니버설 프리스쿨에 대해서는 좀더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조심스러운 자세를 취했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에서 3명의 무소속 후보는 거의 주목을 받지 못했다. 이반 팔척은 2%, 제프 맥코믹과 스캇 라이블리는 모두 1%씩의 지지를 받는데 그쳤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16일부터 21일까지 502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했으며 표준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4.4%이다.

hsb@bostonkorea.com

# 머니 매거진, 뉴튼 브루클라인 가장 살기 좋은 곳 중의 하나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보스톤에 서쪽으로 인접한 브루클라인과 뉴튼이 머니 매거진이 뽑은 미국내 가장 살기 좋은 곳 중의 하나로 선정됐다.

머니 매거진은 인구 5만에서 30만 내의 중소도시 781개를 검토해 최고 50위까지의 도시를 선정했다. 이중에 35개 도시를 직접 방문해서 순위를 결정했다.

머니 매거진 선정 15위에 오른 뉴튼은 평균 가정소득 \$150,821, 평균 집값 \$740,000이며 13개의 빌리지가 클래식한 뉴잉글랜드의 매력을 간직하고 있는 도시다.

머니 매거진은 이렇게 소개한다 : 핫 브레이크 힐(Heartbreak Hill), 보스톤마라톤에서 가장 악랄하게 어려운 곳

다는 사실이다.

한편 브루클라인은 21위에 선정됐고 평균소득 \$156,042, 평균 집값 \$615,000 인 것으로 나타났다. 브루클라인은 탐 브래디와 지질 변천이 자신들의 보금자리를 지어 살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머니 매거진은 이렇게 소개했다. 보스톤 교외도시로 호화롭고 최신 유행의 브루클라인은 부띠 크들과 각종 나라의 음식점들로 가득차 있다.

한편 이 매거진은 다른 순위에서 부자이며 싱글인 사람이 살기 좋은 도시로 브루클라인과 뉴튼을 꼽았다.

hsb@bostonkorea.com



브루클라인 콜리지 코너



정관장 정품은 정관장만 취급하는 “브랜드스토어”에서 구입해야 안전합니다.

**정관장**

미주 한인 **힘** 대한민국 **뿌리**에 있습니다

## 요즘 같은 때 일수록 면역력이 중요합니다

가족의 건강이 걱정되는 요즘 제일 먼저 챙겨야 할 것은 면역력입니다




**정관장 홍삼이면 믿을 수 있습니다.**

115년 정관장의 원칙은 결코 모방할 수 없습니다. 오직 국내산 6년근 고려인삼만을 100% 계약재배를 통해 원료로 사용하며 최고의 설비에서 철저한 품질 관리를 받고 만들어집니다. 태생부터 다른 정관장 홍삼은 타 홍삼제품이 모방하지 못하는 품질이 있습니다.

**그 어떤 건강식품 보다 안전합니다.**

과대광고 제품과 다양한 속설에 주의하세요. 홍삼은 장기섭취가 가능하고 무독한 상약으로 분류되어 오랫동안 한국인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정관장 홍삼은 인삼을 증삼하여 부작용을 줄였으며 체질에 관계없이 드릴 수 있도록 안전하게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1일 권장량을 지켜서 드시면 그 효과가 더욱 좋습니다.)

**전화주문 서비스**

**FedEx** 로 주문 다음날 편하게 받으세요. \$100 이상 주문시 무료배송

✓ 타주로도 배송 해드립니다.

**781-238-0303**

보스톤 정관장 브랜드스토어

MART Burlington점 안에 위치해 있습니다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 보스톤 극단주의 막기 위한 시험 프로그램 시행

## IS 같은 극단주의 단체 확산 방지 프로그램, 로스 앤젤레스, 미니애폴리스와 함께 선정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폭력적인 극단주의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연방 법무부가 시험적으로 실시하는 프로그램이 보스톤에서 시행된다. 보스톤은 이번 프로그램이 시행되는 미국 내 3개 대도시 중 하나로 선정되었다.

카르멘 오티즈 매사추세츠 지부 연방 검사는 극단주의를 막기 위한 프로그램이 보스톤에서 시행된다는 소식을 알리면서, 성명서를 통해 “폭력적인 극단주의에 대처하고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고 밝혔다.

오티즈 연방 검사는 “보스톤은 연방 정부와의 관계, 커뮤니티의 결속력, 기존 치안 프로그램 등의 강점 때문에 시범 지역으로 선정되었다” 고 설명했다. 그러나 극단주의를 막기 위한 프로그램이 어떻게 시행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발표되지 않았다.

극단주의 확산 방지 및 예방 프

그램은 지난 주에 연방 법무부가 발표하였다. 보스톤 외에도 로스 앤젤레스와 미니애폴리스에서 같은 프로그램이 시행될 예정이다. 시범 지역으로 선정된 도시는 백악관, 국토안보부, 대테러 센터 등과 협력하여 미국인들이 극단주의 단체에 가입하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

극단주의를 막기 위한 시험 프로그램이 시행된 것은 최근 미국인들을 공개 처형한 IS(Islamic State)가 빠른 속도로 세력을 확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IS는 시리아와 이라크에 기반을 두고 소셜 미디어를 통해 사람들을 모으고 있다. 상당수의 미국인들도 해외로 출국해 IS나 다른 폭력 단체에 가입하고 있다.

FBI 보스톤 지부의 빈센트 리시 특수 요원은 “미국의 많은 남성과 여성들이 테러를 지원하기 위해 시리아나 다른 나라로 출국한다는 사실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다. 매사추세츠

의 상황 역시 다른 주와 다르지 않다” 며 “이런 출국자들을 상대하기 위해 우리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취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

그러나 리시 요원은 보스톤이 선정되었다고 해서 보스톤 시에 테러를 위한 단체가 조직되어 있거나 테러를 지원하기 위한 네트워크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리시 요원은 “우리는 (보스톤에) 사람들을 전쟁터로 보내기 위해 조직된 네트워크가 있는지에 대한 정보는 없다” 고 말했다.

보스톤은 9.11 테러 이후 연방 정부와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협력 관계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또한 보스톤 시 정부는 지역 커뮤니티, 특히 이슬람을 비롯한 종교 단체와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테러 방지에 힘쓰고 있다.

hsb@bostonkorea.com



MA주는 도로 상태가 불량한데 반해 유지 및 보수에 많은 비용을 사용하고 있다

## MA주 도로 사정 열악, 유지비는 높아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최근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매사추세츠 주의 고속도로 상태가 미국 내 50개 주 중에서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유지보수 비용은 높아 미국 평균보다 4배 이상 많은 돈을 도로에 사용하고 있다.

LA에 위치한 리즌 파운데이션에서 발표한 보고서는 연방 정부의 2012년 자료를 분석하여 각 주의 고속도로를 평가하였다. 이 보고서에서 매사추세츠 주의 고속도로는 최하위권인 46위를 기록했다.

매사추세츠 주의 고속도로는 대부분의 교각이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으며 포장 상태가 엉망이라는 것이 보고서의 지적이다. 게다가 마일당 유지 비용이 가장 높았다. 그나마 매사추세츠 주민에게 위안이 되는 것은 마일당 사망자 수가 가장 낮아 부실한 도로 사

정에도 불구하고 가장 안전한 고속도로로 꼽혔다.

리즌 파운데이션의 연례 고속도로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데이빗 하트젠은 “매사추세츠 주민들은 질문을 던져야 한다. 왜 우리는 미국 평균보다 4배나 더 많은 돈을 쓰면서 더 나쁜 고속도로를 이용해야 하나?” 라고 말했다.

매사추세츠 주는 주 정부가 관리하는 도로에서 마일당 평균 \$675,312을 유지 및 보수비용으로 쏟아 붓고 있다. 미국 평균은 마일당 평균 \$162,202이다. 매사추세츠 주보다 더 많은 비용을 도로에 사용하는 주는 뉴저지가 유일하다. 매사추세츠 주에서는 차량이 1억 마일 이동할 때마다 0.62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어 미국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미국 전체 평균은 1.13명이다.

jsi@bostonkorea.com

## 급격확산 호흡기 바이러스 드디어 보스톤 상륙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호흡기 바이러스가 전국적으로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23일 매사추세츠 주 보건부는 첫 엔테로바이러스 사례가 확인됐음을 밝혔다.

8세의 애스마(asthma)병력이 있는 이 여아는 보스톤 칠드런스 호스피탈에서 치료를 받은 후 집으로 돌아가서 회복 중에 있다. 보건부는 어느 지역에 거주자인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지난 주말 매사추세츠 주 각 병원에는 엔테로바이러스 D68 치료를 위해 방문한 어린이들이 줄을 이었다고 보스톤닷컴은 밝혔다. 전국적으로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는 바이러스가 이미 매사추세츠 주 경계를 넘어 점차 확산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건부는 성명서를 통해 “엔테로바이러스 D68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매사추세츠주에서 발병한 것은 전혀 놀랄 일은 아니다. 그

동안 보건부는 각 병원에 적절한 테스트를 통해 이 바이러스 여부를 확인케 하는 등 준비해 왔다. 대부분의 감염 아이들은 가벼운 증세를 보였으나 애스마나 호흡기 바이러스가 있는 경우에는 심각한 증세를 보일 수 있다” 고 밝혔다.

보건부 관계자는 아이들이 호흡기 질환 증세를 보일 경우 주저 없이 소아과 의사를 접촉해 적절한 진료를 받을 것을 권장했다.

엔테로바이러스는 매년 수백만명을 감염시키고 있지만 엔테로바이러스D68는 상대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종류로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고 있다. 감기 같은 증세를 보이지만 심한 기침으로 호흡곤란을 유발하는 것이 특징이다. 주로 기침과 재치기로 인

해 바이러스가 퍼지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보건부 장관 알프레드 드마리아 박사는 “손을 씻는 것이 확산을 막는 핵심이다. 비누와 온수로 약 20초간 손을 씻어야 한다” 고 강조했다.

hsb@bostonkorea.com



**NEWSTAR Realty of Boston** **NEWSTAR BOSTON** 미주 전체 New Star Realty **금탑수상**

# Gina Choi

Realtor, MBA  
978-866-3248  
ginachoi@newstarrealty.com  
<http://blog.naver.com/newstargina>

안녕하세요. New Star Realty의 지니 최입니다. 1997년에 보스톤 지역으로 유학을 와서 학부와 대학원(MBA)을 마치고 다년간 BOSTON과 CAMBRIDGE 지역에서 직장 생활로 각 지역마다의 장점, 단점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성업중이며 불경기에도 10년 이상의 가족 비즈니스를 운영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적의 자리에 집과 사업체 매매를 도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exington Office**  
40 Waltham St., Lexington, MA 02420  
Tel: (781) 259-4989

**Newton Office**  
1111 Washington St., Newton, MA 02465  
Tel: (617) 969-4989




**EXCLUSIVE**

\$ 239,000, 3 BEDS, 2.5 BATHS, 1,594 SQ FT

학군 좋은 ACTON 지역의 타운 하우스입니다. 대부분의 학교가 10만점에 10점 일 정도로 학군이 좋습니다. 보스톤 다운타운에서 서쪽으로 약 19.5 마일입니다. 더 자세한 집 정보와 동영상은 아래 블로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blog.naver.com/newstargina/209766588>




**BEDFORD 지역 단독주택**

\$619,000, 3 BEDS, 2 BATHS, 2,010 SF, 1.3 Acre Lot Size (3 CEDAR LANE, BEDFORD, MA)  
학군 좋은 Bedford 지역 Single House. 넓은 정원, 안쪽에 위치, 조용하고 Private한 곳입니다.

# 오바마, IS 단연코 분쇄...미 개입 확대

## NYT, 오바마 이전 총회연설 때와 180도 달라졌다

(서울=뉴스1) 정이나 기자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유엔총회 연설에서 급진 수니파 무장 세력 '이슬람국가(IS)'를 '죽음의 네트워크(network of death)'로 지칭하면서 격퇴 의지를 거듭 천명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날 연설에 대해 중동지역에서 미국의 역할 확대를 시사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연설에서 IS 격퇴에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하다며 "IS 격퇴 노력에 전 세계가 동참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IS와 같은 살인자들이 이해하는 유일한 언어는 무력(language of force)"이라며 "미국은 이 죽음의 네트워크를 해체하기 위해 광범위한 국제 연합체와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이날 오바마 대통령이 연설을 통해 중동지역에 대한 군사, 정치적 개입이 심화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연설에서 IS에 합류한 세력에 대해 "할 수 있을 때 전장을 떠나라"고 경고했다.

그는 "테러리스트들에게 안전한 피난처를 허락하지도, 그렇다고 점령 세력처럼 행동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



우리의 안보와 동맹국에 대한 위협에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대테러 협력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 연설에서 지난해 유엔총회 연설과는 180도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시리아 정권의 화학무기 사용 의혹에 대한 공습 계획을 철회한 뒤 가진 유엔총회 연설에서 전임자였던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의 간섭주의 정책(interventionist policies)으로부터 거리를 두려는 듯한 기조를 유지했었다.

NYT는 당시 "끊임없는 전시 체제에서 옮겨갈 것(shift away)"이라고 말했었던 오바마 대통령이 올해 연설에서는 전시(戰時)중의 지도자처럼 국제 연합전선과의 폭넓은 협력 의지를 재천명했다고 전했다.

NYT는 다만 이라크, 아프간 종전 등을 대외정책 핵심 업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오바마 대통령의 비개입 정책에 급작스러운 변화가 있을지는 불투명하다고 설명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이 같은 증오범죄를 부채질하는 자금줄을 끊어야 한다"고 전 세계에 촉구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총회 직후 전체회의를 열고 외국인들의 테러단체 합류 또는 후원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오바마 대통령은 아울러 연설에서 "국제사회에서 어느 한 국가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면 바로 이것(IS 문제)"이라며 "국경을 넘은 테러리스트들은 형언할 수 없는 폭력을 행사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Ichung@news1.kr

# 공습 불구, IS 쿠르드 마을 진격 가속화

(다마스쿠스/무르시트피나르 로이터=뉴스1) 정이나 기자 = "미국의 공습에도 불구하고 시리아 북부 쿠르드 밀집지역을 장악하기 위한 급진 수니파 무장세력 '이슬람국가(IS)'의 진격은 멈추지 않고 있다고 2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시리아 3번째 규모의 쿠르드족 밀집 지역이자 전략적 요충지로 꼽히는 아인 알-아랍(쿠르드식 지명 코바니) 마을을 둘러싼 IS와 쿠르드군의 교전은 지난 16일부터 계속되고 있다.

시리아 내 쿠르드 관계자들은 IS가 터키 국경과 인접한 아인 알-아랍 장악 노력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미국의 공습에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쿠르드군 지도자 오갈란 아이소에 따르면 미국과 아랍 국가들의 시리아 공습이 시작된 이후 더 많은 IS 대원들과 장갑차량들이 코바니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의 IS 소식통도 로이터통신에 아인 알-아랍 인근 마을 여러 곳을 장악했다고 주장했다. 유튜브에 게재된 영상들에 따르면 IS 대원들은 대포 등의 무기를 동원해 아인 알-아랍 외곽에서 쿠르드군과 교전을 벌이고 있다.

IS를 피해 국경을 넘어 터키로 대피한 아인 알-아랍 마을 주민 하메드는 "공습은 중요하지 않다. 우리에게 사상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가족과 함께 터키로 들어온 마즐룸 베르가텐은 "IS는 사람들을 죽인 다음 마을을 불태운다. 마을을 장악한 뒤에는 주민들 중 한 명을 참수해 나머지 주민들을 공포로 몰아넣는다"며 "우리(쿠르드) 문화를 뿌리뽑고 몰아내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엔난민기구(UNHCR)에 따르면 지난주 이후 IS의 공격을 피해 터키로 넘어간 시리아 난민은 13만 8000명에 이른다.

Ichung@news1.kr

# <시리아공습> 유엔서 '절차적 정당성' 놓고 논란

(유엔본부=연합뉴스) 이강원 특파원 = 제69차 유엔총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이뤄진 미국의 이슬람국가(IS)에 대한 공습을 놓고 유엔 일각에서 정당성 논란이 일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미국이 타국 영토를

무력으로 공습한 이번 군사작전이 주권 침해 등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는 것이다. 게다가 미국 측이 내세우는 '공습 논거'가 일관되지 않은 것도 논란을 부채질했다. 여기에 미국의 유럽 동맹국들이 IS 공습에 불참한 것도 미국

로서는 부담 요인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 시리아 공습 이후 나온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성명도 평소와 달리 포괄적으로 에둘러 표현돼 이런 논란을 반영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미국의 시리아 공습을 두고 법적인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한 사람은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다.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뉴욕을 찾은 그는 23일 미국이 시리아 정부로부터의 사전 조율이나 승인이 없었다는 점에서 미국의 공습은 합법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공습은 시리아 내

의 반군인 '이슬람 국가'를 지지하겠다는 목적이지만 동시에 시리아 정부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모호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시리아의 우방인 러시아 등도 이번 공습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승인 없이 이뤄졌으며 이는 국제법을 위반한 침략행위로 유엔헌장 42조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통사고  
직장상해  
닥터노트  
학생보험

## 물리치료 재활치료 전문병원을 찾으십니까?

전. 닥터스 통증 병원 대표 원장  
뉴욕 닥터스 통증 클리닉 대표 원장  
노스이턴 대학교 물리치료학 박사  
에모리얼 병원 재활의학 과 수석비서  
위싱턴 디씨 통증병원 원장  
대구대학교 와재 교수  
신원대학교 외과 교수  
영동대학교 교수 | 희곡강  
한양대학병원 재활의학 과

617.731.1001  
GOODPT.COM  
44 Washington St, Suite 104 Brookline, MA 02445  
DOCTOR PHYSICAL THERAPY  
닥터스통증병원

Century 21  
SHAWMUT PROPERTIES

1274 Washington Street  
Newton, MA 02465

송 윤주 Realtor  
Yoon Song  
Direct: 857-636-0429  
Email: Yoonjoo@century21.com  
Web: YoonBoston.com

주택 매매, 콘도, 수익성 부동산 투자, 렌트 전문  
고객의 입장에서 성실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Newton, Needham, Brookline, Belmont,  
Boston, Wellesley, Weston, Cambridge,  
Lexington 전문

## MED ACUPRESSURE

지압치료(Acupressure Therapy)  
핫스톤  
속 눈법 연장, 웨이셀

전화 예약 : 617-970-6038 , 617-558-8870  
시간 : 월요일 ~ 토요일 (10am ~ 8pm)  
주소 : 634 Commonwealth ave (#204)  
Newton center, MA 02459  
website : http://www.medacupressure.com

# 아이폰 매장마다 '장사진'... 드러난 불편한 진실

(서울=뉴스1) 정은지 기자 = 아이폰6, 아이폰6플러스가 출시 3일만에 1000만대 이상 팔리며 판매 돌풍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애플 매장마다 새 아이폰을 구매하기 위한 긴 줄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는 직접 기계를 구매하려는 얼리어답터이지만 상당수는 이를 비싼 값에 되팔거나 조직적으로 대리해 구매하려는 인파로 알려졌다. 후자의 대부분은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중국인들로 나타났다. 이는 중국이 아이폰 1차 출시국에서 제외되면서 중국내 아이폰6 품귀 현상이 빚어졌기 때문이다.

특히 이들은 제품을 구하기 위해 주먹다짐도 불사하고 있다.

NBC에 따르면 22일(현지시간) 미국 뉴헤이븐 지역에 위치한 애플스토어에서 아이폰6 구매를 위해 줄을 선 고객들끼리 주먹 다짐이 벌어졌다.

아이폰6가 출시된 지 3일만에 벌어진 이번 '패싸움'은 상대방이 새치기를

했다고 의심한 것이 발단이 됐다. 경찰 관계자는 "경쟁상대인 두 그룹의 중국인 집단이 새치기 했다고 의심하면서 주먹다짐으로 이어졌다"며 "3명이 체포됐다"고 밝혔다. 체포된 3명 가운데 1명은 이마에 작은 상처가 났으며 싸움에 가담했던 다른 사람들은 타박상을 입었다.

뉴헤이븐 경찰 대변인 데이비드 하트맨은 "이번 싸움에 가담한 중국인들 중 대부분은 매일 아이폰6를 구매하기 위해 뉴욕에서 온다"며 "이 제품을 3000~4000달러에 되판다"고 밝혔다.

현지 언론은 뉴헤이븐 애플스토어에서는 1000달러의 계약금을 받지 않고 있어 많은 구매자들이 몰리고 있으며 매장 매니저는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여러 차례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일부 중국인들은 1차 출시국에 포함된 홍콩에서 아이폰6를 구매한 후 몰래 중국으로 반입한 것이 적발

되기도 했다고 중국 인민망이 보도했다.

홍콩에서 중국 내륙으로 통하는 관문인 선전시의 황강항구와 푸토히구 세관은 아이폰 출시일인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아이폰6 600여대를 찾아냈다.

인민망에 따르면 19일에는 17세 학생은 관광객으로 위장해 차(茶)상자에 6대의 아이폰6를 들여오려다가 적발됐다. 21일 오전에는 배를 타고 이동한 소형차의 의자 뒤편에 아이폰6 6대가 교묘하게 숨겨져 있던 것을 발견하기도 했다고 세관은 설명했다.

이날 밤에도 카스테라 상자, 커피 포장 등에 아이폰을 숨겨 반입하려다 적발된 사람도 있었다.

당국 관계자는 아이폰6의 중국 판매 날짜가 확정되지 않았지만 이 제품이 중국 내륙에서 사용이 가능해 암시장에서 아이폰6의 가격이 치솟고있다.

ejjung@news1.kr



## 아이폰 6, 6+ 사흘만 1000만대 돌파... 중국 수요 몰려

(서울=뉴스1) 국종환 기자 = 애플은 신제품 아이폰6와 아이폰6플러스의 출시 후 첫 주말 판매량이 1000만대를 넘어섰다고 22일(현지시간) 밝혔다.

애플은 새로운 아이폰이 출시된 19일 이후 3일 간 판매량이 이같이 확인됐다면서 신제품 출시 후 3일간 1000만대를 넘게 판매한 것은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1년 전 아이폰5S와 아이폰5C가 출시됐을 당시 첫 주말 판매량은 두 모델 합쳐 900만대였다.

애플은 아이폰6와 6플러스의 판매량을 구분해서 공개하지는 않았다.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성명을 통해 "아이폰6와 6플러스의 출시 후 첫 주말 판매량이 우리의 기대치를 넘어섰다"면서 "우리는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우리는 훌륭한 공급력으로 더 많은 아이폰을 판매할 수 있었다"면서 "주문량을 가능한 빨리 소화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애플의 이번 판매 기록은 세계 최대 스마트폰 시장인 중국이 1차 출시국에서 제외된 상태에서 나온 것이어서 더욱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해 아이폰 5S와 5C가 첫 주말 판매량 900만대를 기록할 당시에는 중국이 1차 출시국에 포함된 상태였다.

2012년 아이폰5가 출시됐을 당시에도 중국은 1차 출시국에 포함됐으며 출시 후 첫 사흘 판매량은 500만대를 기록했었다.

아이폰6와 6플러스는 19일 미국을 비롯해, 영국,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홍콩, 일본, 푸에토리코, 싱가포르 등 1차 출시국 10개국에서 먼저 출시됐다.

애플은 오는 26일 이탈리아, 뉴질랜드, 스페인, 스위스, 대만 등 2차 출시국 20여개국으로 판매를 확장하며 연말까지 판매국을 115개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애플의 주가는 0.15% 상승해 주당 101.11달러를 기록했다.

acenes@news1.kr

**2014년 가을은 청담 ReadWrite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함께 하세요!**

WEEKLY CLASSES Year Round Critical Reading and Writing	Special Programs Fall 2014
<p>청담 ReadWrite의 수업으로 학년별, 수업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p> <p><b>1학년과 2학년</b>들이 들을 수 있는 수업으로는 Literary Analysis 가 있으며 선생님과 간단한 테스트와 상담후에 조인 가능합니다.</p> <p><b>3학년과 4학년</b> Reading and Writing Workshop 수업은 리딩과 라이팅의 기본적인 스킬을 배우고 Issue Analysis 수업에서는 에세이와 토론, 발표능력을 길러줍니다.</p> <p><b>5학년부터 8학년</b>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에세이 라이팅 스킬과 독해 스킬은 Expository Analysis 수업에서 배울 수 있으며 Literary Analysis 수업에서는 문학/소설의 이해, 테마와 캐릭터분석 등을 통해 에세이를 작성하고 글로 표현하는 연습을 할수있습니다.</p> <p>이외에 <b>9학년부터 12학년</b> 수업은 College Prep Expository Analysis 와 Intensive Essay Writing등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p>	<p><b>Vacation Days (9:00am- 3:00pm)</b> 학교에 가지않는 공휴일에 숙제와 독서 그리고 리딩과 라이팅 스킬을 배울수 있는 프로그램 입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4년 11월 11일(화요일)</li> <li>- 2015년 1월 19일(월요일)</li> <li>- 2015년 2월 16일~20일(월요일-금요일)</li> <li>- 2015년 4월 3일(금요일)</li> <li>- 2015년 4월 20일~24일(월요일-금요일)</li> </ul> <p><b>Pizza Nights</b> 책을 읽고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함께 내용에 관한 대화를 나누는 시간으로 짧은 영상을 만들고 작품을 발표하는 재미있는 북클럽 시간입니다. 이번달 선정된 책은 The Giver 입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4년 10월 17일 5:00-8:00pm</li> </ul>

# TASTE OF KOREA

# 코리아나

## KOREANA RESTAURANT

코리아나에서 **블랙앵거스 비프** 를 시작합니다

최상의 품질의 바베큐를 제공하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BEST OF BOSTON  
2006

BEST OF BOSTON  
2001

BEST OF BOSTON  
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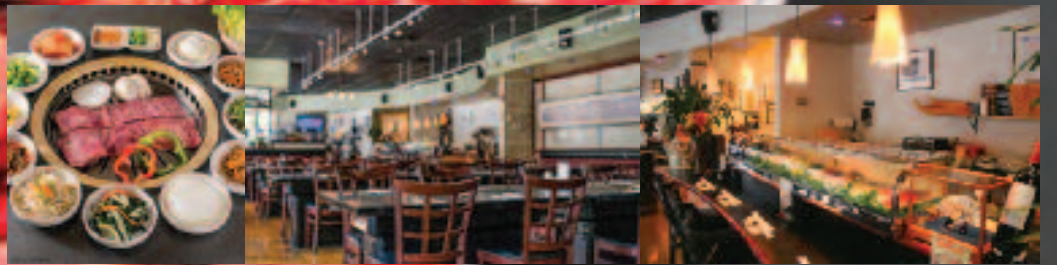


**Parking Information**

1. 주유소주차, Broadway Gas Station (Mon~Sat: After 6pm), (Sun, Holiday: All Day)
2. 건물 뒤 주차장, Drive Way(Behind Building) (Lunch: 4 Cars), (Dinner: 2 Cars)
3. 도로주차, Broadway Play Ground 옆 (2 Hours Free Parking: 8am~6pm), (After 6pm: Free) (Sun: All Day Free)

\*이외에도 Free Parking 가능한 곳이 Restaurant 가까이에 여러곳이 있습니다. 전화로 문의해 주세요.

최상급 블랙 앵거스 비프를 사용한 코리아나의 바베큐를 맛보세요



**617.576.8661**  
www.koreanaboston.com

영업시간  
일요일-목요일(11:30AM~10:30PM)  
금요일-토요일(11:30AM~12:00AM)  
158 Prospect St. Cambridge, MA 02139



형사법  
상법/회사법  
유언장/ 상속  
민사법  
부동산법

**스티븐 김 변호사**  
보스톤 검사 경력  
(Steven S. Kim)  
**617.879.9979**  
stevenkimlaw.com

**The Law Office of Steven S. Kim**  
2001 Beacon Street, Suite 101,  
Boston, MA 02135  
Steven@stevenkimlaw.com



**PROSPECT**  
DENTAL GROUP, LLC  
Advanced Restorative Dental Clinic

프로스펙트 덴탈의 진료는 미래의 당신을 위한  
가장 값진 선물이 될 것입니다

- 한국어 가능
- 응급환자 당일진료
- 주말 진료
- Walk-ins Welcome
- 각종 보험



Eugene Khang DMD(강유진)

원장: **Eugene Khang DMD (강유진)**  
진료시간: 월-금: 9AM ~ 6:30PM  
토: 9AM ~ 5PM

**TEL: 617.576.5300**  
30 Prospect St. Cambridge, MA 02139 (Redline Central Sq.역)  
www.prospectdental.com

# 박 대통령 유엔 기조연설, 북한엔 강경 일본엔 유화적 제스처

## 유엔총회서 동북아 평화 및 북발전 전제 조건으로 제시 'DMZ공원' 등 남북관계 개선 위한 국제사회 역할 당부 인도적 문제 해결 주문 속 '일본군 위안부' 우회 비판

(보스턴=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 정착과 대북(對北) 경제 지원 확대를 위해선 북한의 '핵(核) 포기'가 선행돼야 한다는 원칙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또한 북한인권에 대해 날선 발언으로 북한에 대한 강경기조를 이었다. 이날 오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69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서다.

박 대통령은 연설에서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의 가장 큰 위협인 북한 핵 문제가 시급히 해결돼야 한다"며 "북한은 핵을 포기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스스로 핵을 포기하고 개혁과 개방을 선택한 여러 나라들처럼 (북한도) 경제발전과 주민 삶을 개선하는 변화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면서 "그럴 경우 우리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경제발전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만간 유엔이 한국에 설치할 북한

인권사무소가 이런 노력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북한 주민들의 인권 문제 해결과 관련해서 올 3월 유엔 인권이사회가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권고사항을 채택한 사실을 들어 "북한과 국제사회는 COI 권고사항 이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국제사회는 탈북민의 인권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며 "탈북민이 자유의사에 따라 목적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유엔 해당 기구와 관련 국가들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중국이나 동남아 지역 국가 등을 경유하는 과정에서 관계 기관에 붙잡힌 탈북민들이 본인 의사에 반해 복송되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경색된 남북관계 해소와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

해 최근 정치권 등에서 '5·24 대북제재 조치'의 부분 해제 또는 완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북한 주민과 탈북민의 인권 문제에 이례적으로 유엔이란 공개적 상에서 거론해 북한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그러나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유엔총회 기조연설은 원론적인 얘기"이라며 "현재 우리 정부가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국제사회에 직접 설명한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 특히 유엔의 적극적인 역할 모색 또한 거듭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작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북한에 제안했으나 이후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비무장지대(DMZ) 내 세계평화공원' 조성 방안과 관련해서 "유엔이 앞장서 달라"고 말했다.

북한 인권에 대해 직접적으로 거론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오후 미국 뉴욕 유엔본부 총회장에서 유엔총회 일반토의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했던 박 대통령은 "전시(戰時) 여성에 대한 성폭력은 어느 시대, 어떤 지역을 막론하고 분명히 인권과 인도주의에 반하는 행위"란 말로 과거 일제 강점기하 일본군 위안부 강제 동원 문제를 우회 비판하는 등 일본에 대해서는 유화적 제스처를 취하기도 했다. 향후 한일 정상회담을 예측케하는 대목이다.

박 대통령은 또 세계 빈곤 문제 해결과 기후변화 대응, 교육의 질 개선

등 각종 글로벌 이슈와 관련해 우리나라가 그동안의 발전 경험을 살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가교(架橋)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다짐했으며, 정부 외교정책 방향인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의 일환으로 최근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등 역내 국가들이 참여하는 '동북아 원자력안전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사실을 소개했다.

hsb@bostonkorea.com

Fall class starts on September 2nd!

# Cheap or Quality?

ASC : Boston's #1 ESL School

**1** **ESL or TOEFL 10% Off**

Speak to an advisor now!  
10% off total tuition for at least 4 months of enrollment. Limited Offer. Book by **September 2nd** for this discount.

**2** **What makes us different? These colleges accept...**

The Level 5 "TOEFL/IELTS Waiver" applies for		The Level 4 "TOEFL Waiver" applies for
Northeastern Univ.	Pre-MBA Program	Benjamin Franklin Institute of Technology
Cambridge College	Undergraduate and Graduate Programs	Quincy College
Lasell College	Undergraduate and Graduate Programs	Middlesex Community College
Lesley University	Undergraduate and Graduate Programs	
Merrimack College	Undergraduate (lv. 5) Graduate (lv. 6)	
Boston Architectural College		The Level 6 "TOEFL Waiver" applies for
		Southern New Hampshire University

Main: 1106 Commonwealth Ave. Boston, MA 02215 T. (617) 730-3705  
 Downtown: 65 Harrison Ave. 6th Fl., Boston, MA 02111 T. (617) 338-5288  
 Website: www.ascenglish.com

# H MART

Yes, We are **OPEN 365** days a year!  
**SALE WEEK SEP.26, 2014 - OCT. 2, 2014**  
**ONLY FOR HMART BURLINGTON STORE**  
 STORE HOURS : SUN.-THU. 8:00 AM - 9:00 PM | FRI.-SAT. 8:00 AM - 10:00 PM  
 All prices are based on availability. Typographical errors may be present in the prices and descriptions.  
 수량에 따라 세일이 일찍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 광고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인쇄에 오류가 있을 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CUSTOMER SERVICE**  
 For coupons, Events & Exclusive Deals. Subscribe at [www.hmart.com](http://www.hmart.com)  
 Toll Free No. 877.427.7386  
 Customer\_care@hmart.com



## Fall in love with the freshest Fall fruits

The best of the season's freshest, sweetest, most delicious fruits.  
 갈아서 달디단 H마트 가을 제철과일이 왔어요!

<p>금토/일만 세일 가격 적용 Fri/Sat/Sun Limited Time Offer</p> <p><b>GALA APPLE 갈라 사과</b> lb. <b>\$0.99</b></p>	<p>HAMI MELON 하미 멜론 lb. <b>\$0.99</b></p>	<p>FUJI APPLE 후지 사과 lb. <b>\$1.69</b></p>	<p>금토/일만 세일 가격 적용 Fri/Sat/Sun Limited Time Offer</p> <p><b>GOLD KIWI 골드 키위</b> box <b>\$19.99</b></p>
---	---	---	---

NEW CROP

**Organic 100% DELICIOUS**  
 H마트 유기농 제품으로 더욱 더 건강하세요.

<p>금토/일만 세일 가격 적용 Fri/Sat/Sun Limited Time Offer</p> <p>Organic King Oyster Mushroom 유기농 새송이 버섯 8oz./pkg. <b>\$3.99</b></p>	<p>금토/일만 세일 가격 적용 Fri/Sat/Sun Limited Time Offer</p> <p>Organic Enoki Mushroom 유기농 팽이 버섯 5.29oz./pkg. <b>2\$4</b> for</p>	<p>금토/일만 세일 가격 적용 Fri/Sat/Sun Limited Time Offer</p> <p>PEMMICAN Organic Peppercorn Beef Jerky 페미칸 유기농 페퍼육포 2.5oz. <b>\$4.99</b></p>	<p>금토/일만 세일 가격 적용 Fri/Sat/Sun Limited Time Offer</p> <p>수취해소에 좋은 Napa Cabbage 배추 박스 box <b>2\$19.99</b> for</p>
---	---	--	---

<p>FRESH</p> <p>Boneless Beef Rib Eye Steak 등심 스테이크 lb. <b>\$8.99</b></p>	<p>FRESH</p> <p>Beef Top Blade Steak 부채살 (낙엽살 스테이크) lb. <b>\$6.99</b></p>	<p>FRESH</p> <p>Pork Spare Rib for BBQ 바베큐용 돼지갈비 lb. <b>\$2.99</b></p>	<p>FROZEN</p> <p>Pork CT Butt for Bulgogi 불고기용 생동 돼지육살 lb. <b>\$5.99</b></p>	<p>MARINATED</p> <p>Marinated Sliced Beef Rib Eye for Bulgogi 양념 소불고기 lb. <b>\$6.99</b></p>
---	---	--	--	---

<p>FROZEN</p> <p>Cooked Snow Crab 스노우 크랩 10up/lb. <b>\$7.99</b></p>	<p>FROZEN</p> <p>Headless Black Tiger Shrimp 머리없는 블랙 타이거 새우 16-20's/lb. <b>\$15.99</b></p>	<p>금토/일만 세일 가격 적용 Fri/Sat/Sun Limited Time Offer</p> <p>Norwegian Salmon Fillet 노르웨이 연어 필렛 lb. <b>\$7.99</b></p>	<p>FROZEN</p> <p>TONGTONGBAY Premium Oyster 통통배 청정생굴 8oz./pkg. <b>\$3.49</b></p>	<p>FROZEN</p> <p>TONGTONGBAY Dried Anchovy 통통배 지리멸치 8oz./pkg. <b>\$8.99</b></p>
---	--	--	--	---

<p>NEW</p> <p>HARU HARU Medium Grain Brown Rice 하루하루 현미 15 lbs. <b>\$15.99</b></p>	<p>HARU HARU Medium Grain Milled Rice 하루하루 마이 쌀 15 lbs. <b>\$12.99</b></p>	<p>오성 홍라면 OHSUNG Hong Ramyun Hot/Mild 4.2oz. x 5ea./pkg. <b>\$2.99</b></p>	<p>NONGSHIM Shin Bowl Noodle Soup 농심 신라면 컵라면 3.03oz. x 12ea./pkg. <b>\$9.99</b></p>	<p>CHUNGJUNGONE Grapeseed Oil 청정원 포도씨유 30.4fl.oz. <b>\$9.99</b></p>
--	--	--	---	---

<p>AJINOMOTO Don 아지노모토 된장 All Varieties/ 9.88 - 11.29oz. <b>\$2.99</b></p>	<p>HAIOREUM Fried Soybean Curd 해오름 누구나 유부박사 5.7oz. <b>\$1.99</b></p>	<p>SAMHAK Rectangle Fish Cake 삼각 깎 사각 어묵 2.2 lbs. <b>\$3.99</b></p>	<p>HAIOREUM Canned Bai Top Shell 해오름 굴뱅이 캔 14.1oz. <b>\$4.99</b></p>	<p>HAIOREUM Japanese Style Noodles U-Dong 해오름 냉동 우동 8.82oz. x 5ea./pkg. <b>\$2.99</b></p>
<p>해오름 쏘이쏘이 달리셔스 두유 HAIOREUM Soy Soy Delicious Soymilk All Flavors/ 6.76fl.oz. x 24ea./pkg. <b>\$9.99</b></p>	<p>LAND LAKE'S All-Natural Large Grade A Brown Eggs 랜드 레이크스 라지 갈색 달걀 12z./fz. <b>2\$5</b></p>	<p>Polyester Cleaning Mat 일본산 부직포 수세미 4pcs/pkg. <b>\$1.99</b></p>	<p>YOBO HOME Shabu Shabu Hot Pot 여보홈 사바사바 핫팟 Single/26cm/ea. <b>\$7.99</b></p>	<p>YOBO HOME Smart Noodle Pot 여보홈 스마트 누들팟 Red/6qt./ea. <b>\$16.99</b></p>

H마트 MA 진출 5주년 기념 고객 감사 경품 대축제  
**5TH ANNIVERSARY SWEEPSTAKES!**  
 CELEBRATE 5 YEARS OF HMART IN MASSACHUSETTS

SEP. 12TH - OCT. 5TH, 2014 AT ALL MA HMART STORES

H마트에서 장도 보시고 경품 대축제에 참여하세요! (스마트카드 고객에 한함)

Hmart is celebrating its 5th year of business in the state of MA with special sweepstakes event. Get a chance to win Hmart gift certificate when you shop with your Hmart Smart Card! Simply fill out the bottom of your Shopping receipt and insert into our special bin!

DRAWING DATE: OCTOBER 5TH, 2014 AT 5PM

1ST PRIZE (1 WINNER): \$1,000 HMART GIFT CERTIFICATE  
 2ND PRIZE (5 WINNERS): \$300 HMART GIFT CERTIFICATE  
 3RD PRIZE (10 WINNERS): \$100 HMART GIFT CERTIFICATE

\*In order to give the most customers a chance to win, there will be no duplicate winners. (If you win a prize at both stores, Cambridge & Burlington, you will receive the higher prize.)

**HAIOREUM**

NEW HAIOREUM PRODUCT LAUNCH!

### Introducing Dumpling that Pops with Flavor!

Korean dumplings spiced just right. Try them and you'll sing for joy.

장인의 정성으로 품게 받은 해오름 손끝만두 출시

# 여 "무조건 연다"...26일 단독 본회의 최후통첩

김무성, 정 의장 만나 "26일이 마지노선"...소속 의원에 '대기령'

(서울=뉴스1) 진성훈, 김영신, 유기림 기자 = 새누리당은 24일 이틀 앞으로 다가온 국회 본회의에서 계류 중인 법안들을 처리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24일 야당의 국회 의사일정 참여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끝내 불참할 경우 단독 본회의를 개최할 뜻을 분명히 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오후 정의화 국회의장을 만나 "26일이 마지노선"이라며 26일 본회의를 열고 이미 예고된 '정기회 중 국정감사 실시의 건' 등은 물론 계류 중인 9개 법안을 처리해줄 것을 거듭 요구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이완구 원내대표 및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와 약속 회의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26일 본회의는 예정된 대로 무조건 연다. 전 의원들은 거기에 대비하고 있다는 것을 한번 더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여야 협의가 안되면 불가피하게 정 의장이 직권상정이 아닌 국회법에 따라 9개 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고, 의장이 그대로 할 것으로 믿고 있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특히 "인내심의 한계가 왔다. 더 이상 국회를 공전시킬 수 없다"며 여당 단독 국회를 진행할 뜻을 분명히 했다.

이에 앞서 김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12월 2일로 규정된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맞추려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예산안 심사와 예산부수법안 처리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26일 본회의에서 여야 이견 없는 법안을 처리하고 이후 국정감사와 대정부질문, 예결위 활동 등에 차질이 없어야 예산안 처리시한을 맞출 수 있다. 의사일정을 단 하루도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새정치연합은 비상대책위원회가 꾸려진 만큼 예산안을 심의하고 민생 정책으로 경쟁하는 모습을 여야가 국민에게 보여주는 게 국회의 존재이유임을 깨닫고 국회로 돌아와 주길 바란다"고 촉구하고, "만약의 경우 야당 뭉까지 우리가 담당할 수 있도록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 의원들의 노력이 더 필요하다"며 단독 국회 진행을 시사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야당도 국민에 대한 죄송한 자세로 조건없이 26일 민

생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며 "대한민국에 민생과 관계 없는 법안은 하나도 없다. 본회의 계류 9건은 여야 이견없는 민생법안인 만큼 26일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소속 의원들에게 26일 오후 2시 본회의 개최를 알리고 의원 전원에게 '대기령'을 내렸다.

이 원내대표는 공지문을 통해 "26일 오후 2시 본회의에서는 정기국회 일정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국정감사 정기회 중 실시의 건'과 9월 29·30일 교섭단체대표연설을 위한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 등 중요 안건이 처리될 예정"이라며 "야당 불참시 단독 처리가 불가피하므로 해외체류 중인 의원들은 즉시 일정을 조정해 귀국하고, 국무위원 겸임 의원들도 반드시 본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일정을 조정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26일 본회의 직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의원들의 국회 출석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새누리당의 의석은 158석으로, 이 중 구속 중인 박상은·조원룡 의원을 제외하면 국무위원 겸임 의원(4명)을 포함해 거의



나흘만에 당무에 복귀한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에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마친 후 자리를 나서고 있다

모든 의원들이 참석해야 안건 처리가 가능하다.

김태호 최고위원은 "세월호특별법이 당장 해결이 어렵다면 최소한 예산심사와 국감만큼은 정상 추진되도록 여야 지도부가 결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인제 최고위원은 PBC라디오 인터뷰에서 세월호특별법의 수사권·기소권이나 특별검사 추천권 등 쟁점에 대해 "이미 두 차례 합의하지 않았느냐. 그 이상 여당이 양보할 수 있는 사안이 전혀 없다"고 여야 원내대표 2차

합의안이 마지노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다만 새누리당은 대화 재개 노력도 병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원내수석은 이날 김영록 새정치연합 원내수석부대표와 접촉을 이어가며 국회 정상화와 관련된 협의를 이어갔다.

김 원내수석은 이날 오후 국회 안에서 농성 중인 세월호 유가족들과도 따로 만나 얘기를 나눴다.

true@news1.kr

## 야 "26일 본회의 불가...새 일정 잡자"...정 의장에 전달

"정 의장의 의사일정 직권 결정은 18년만의 일"

(서울=뉴스1) 김현, 박정양, 서미선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은 25일 정의화 국회의장의 26일 본회의 개최 방침과 관련해 '불가' 입장을 거듭 밝히며 여야간 합의로 새로운 의사일정을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영선 원내대표와 김영록 원내수석부대표는 정 의장을 찾아 정 의장이 26일 본회의 개최를 직권 결정하는데 대해 항의하며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박 원내대표는 "뭉든 일방적으로 하면 후유증이 너무 크다"며 "저도 의회주의자이긴 하지만, 집권여당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과정에 있어 집권여당뿐 아니라 대통령까지 나서 이런 식으로 국회를 무시하는 건 옳지 못하다"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내가 일방적으로 하는 사람은 아니지 않느냐. 국회는 돌아가야 되고, 야당이 그때쯤이면 정리돼야 하지 않겠나 해서 최소한의 날짜를 맞춰서 했다"고 설명했다.

정 의장은 이어 "대의민주주의가 제대로 굴러가려면 아주 훌륭한 야당이 있을 때 훌륭한 여당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라면서 "새정치연합이 하루 빨리 정리돼서 정기회가 정상화되길 바

란다"고 말했다.

20여분간 비공개 면담 직후 김영록 원내수석부대표는 브리핑을 통해 "26일 본회의는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없이 직권으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나쁜 선례를 남겨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렸다"며 "연기나 미루는 게 아니라 야당 입장에서 여야 합의에 의해 새로 정해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와도 새로이 의사일정을 정하는 부분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수석은 "(정 의장은) 저희 뜻에 공감한 부분을 많이 갖고 있다"며 "여야 합의에 의해 결정한다면 새로이 본회의 날짜를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열린 새정치연합 정책조정회의에서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새정치연합은 누차 여야 합의없이 국회의장이 직권결정한 26일 본회의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음을 밝혀왔다"며 "26일 본회의를 미루자거나 연기요청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본회의 의사일정 직권결정은 18년만에 처음있는

일이라고 의장도 인정했다"며 "현상사상 나쁜 선례를 남겨선 안된다. 정기국회 의사일정은 여야 합의에 의해 새로이 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새누리당은 국회 공전 원인이 국회 선진화법에 있는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며 "19대 국회는 식물국회가 아니다. 전반기의 법안처리건수는 역대 최대인 1271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작년 연말 외국인투자촉진법과 올 5월 기초연금법안 처리에 대해 야당은 반대하면서도 무제한 토론이나 안전신청 등 선진화법에 의존하지 않고 이를 통과시켰다"며 "새누리당은 연일 국회선진화법을 문제삼고 권한쟁의심판청구까지 한 것은 18대 국회에서 97건을 날치기 처리한 직권상정의 본색을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석현 국회부의장은 "어제 오후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26일에는 본회의를 소집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부의장은 "세월호 유족 회장단이 새로 구성돼 우리당 대표와 어제 만났고 주말에는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위한) 여야간 깊이있는 논의가 예상된다"며 "이런 상황에서 안건을 단독으로

처리하는 것은 협상 분위기에도 좋지 않고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오후 세월호가 족대책위와 면담을 이어가며 세월호 특별법 해결을 위한 돌파구 마련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취임 직후 오는 29일을 특별법 해결의 마지노선으로 정한 만큼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세월호 특별

법 협상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봐 가면서 저희는 의사일정 협의도 할 것"이라며 "새누리당은 계속 국회 의사일정만 26일 단독으로 열겠다고 야당을 압박하고 있는데, 정말 꼬인 정국을 풀려면 문제의 핵심인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 진전된 안을 내놓고 협상에 임해야 한다. 그건 소홀이하면서 야당만 압박하는 건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gayunlove@news1.kr

### 정의화 "26일 본회의 개최 법대로"

(서울=뉴스1) 김현, 서미선 기자 = 정의화 국회의장은 25일 국회 본회의 26일 개최와 관련, "법대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와 김영록 원내수석부대표와 면담을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는 정 의장이 의사일정을 직권 결정한다고 국회 본회의를 개최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정 의장은 "최종 결심은 내일 오

전 11시쯤 될 것 같다"면서 "여하튼 양쪽의 얘기를 다 듣고 좋은 방향으로 결론을 내리려고 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26일 본회의 개최를 요구하는 새누리당 의원들의 서명이 담긴 본회의 개의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기 앞서 정 의장과 면담을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

gayunlove@news1.kr



맛있을 수 없는 한국의 맛을 압구정에서 느껴보세요

# 압구정

압구정이 **갈비**와 **냉면** 전문점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1114 Beacon St, Newton, MA  
 예약문의 / 617-527-7888  
 단체석 노래방 시설 완비/뉴튼 센터에서 차로 3분 거리

<보스톤 처음으로 **즉석**에서 직접 뽑는 냉면을 맛보세요>

## 헤어 앤드 그레이스 살롱

처음 고객님 20% 할인

- 헤어컷
- 컬러, 하이라이트, 코팅
- 트리트먼트
- Up-Do
- 메이컵
- 매니-페디큐어
- 왁싱
- 각종 펌


웨딩헤어+메이컵  
 일요일도  
 예약받습니다



예약문의 **508-879-7777**  
 Natick Mall에서 **3분 거리**  
**914 Concord St.**  
 Framingham, MA 01701

회사 상호가 변  
 경되어도. 항상  
 여러분을 도울  
 수 있는 곳에  
 있겠습니다.

KO / MÃO / HAND / 손 / MANUS / MAIN /

NETWORK HEALTH는 이제  
**TUFTS  Health Plan**  
 NETWORK HEALTH  
 입니다.

고객을 향한 우리의 약속도 이전과 동일하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Network-Health.org** 에서 확인하십시오.

Tufts Health Plan - Network Health 를 포함하여 고객님의 건강 계획 옵션에 관한 모든 것은 MAhealthconnector.org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청 "송광용 경찰 수사' 3개월 동안 몰랐다"

"임명 당시 거짓 진술... 당시 전산 자료에서도 확인 못 해"  
'사퇴 논란' 사흘 만에 공식 입장 내놔 "추가 비리 없는 듯"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청와대가 송광용 전 교육문화수석비서관 임명 이후 3개월 동안 그가 경찰수사를 받아온 사실을 까맣게 몰랐던 것으로 드러났다.

송 전 수석 본인이 임명 당시 자신이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청와대에 밝히지 않았던 데다, 수사 사실에 대한 경찰의 전산 입력 처리마저 늦어지면서 송 전 수석의 고등교육법 위반 혐의 사건의 검찰 송치가 결정되기 전까지 관련 사항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23일 오후 배포한 '송 전 수석 사퇴 관련 설명자료'를 통해 송 전 수석의 사퇴 경위와 검증 과정 등을 설명하며 이 같이 밝혔다.

청와대에 따르면, 고위 공직자들의 사전 인사검증과 비위 감찰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송 전 수석이 경찰 수사를 받아온 사실을 처음 인지한 건 지난 19일이다.

청와대는 배포한 자료에서 "19일 민정수석실에서 송 전 수석이 고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될 예정이란 사

실을 알게 됐다"며 "20일 (송 전 수석) 본인에게도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후 "송 전 수석이 청와대 수석 신분을 유지한 채 수사를 받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20일 오전 사의(辭意)를 표명해 이를 수리케 됐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송 전 수석은 청와대 수석 임명에 앞서 지난 2007~11년 서울교대 총장으로 재직했으며, 최근 경찰은 서울교대가 2010~11년 외국대학교와 연계해 학위를 주는 유학 프로그램(1+3유학제도)을 운영하면서 교육부 장관의 인가 받지 않은 혐의(고등교육법 위반)를 포착하고 관련 수사를 벌여왔다.

그러나 송 전 수석은 6월 10일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보낸 '자기 검증질문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거나 받은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진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송 전 수석을 소환 조사한 수사 경찰서에서도 조사 당일 이 같은 사실을 전산 입력 처리하지 않아 송 전 수석에 대한 6월 10일자 '범죄 및 수사경

력조회' 결과에선 '해당사항 없음'으로 나타났었다고 한다.

때문에 당시 청와대로선 "송 전 수석에 대해 수사 중인 사건이 없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가.

송 전 수석은 이후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6월 23일 박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았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시 청와대로선 (송 전 수석에 대한) 인사검증과정에 현행법상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했지만, (송 전 수석) 본인이 거짓으로 진술해 걸리지 않았던 것"이라면서 "송 전 수석이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도 이달 16일 이후에나 전산 조화가 가능하도록 입력돼 있었다"고 말했다.

전산상으로 범죄·수사경력 조회가 이뤄지려면 당사자의 '지문 날인' 등과 같은 절차가 필요한데, 해당 사건이 검찰로 송치될 때까지 이 같은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었다는 설명이다.

이어 이 관계자는 "경찰이 송 전 수석에 대한 수사 사실과 검찰 송치를 청와대에 공식 보고하기에 앞서 민정수

석실의 정상적 감찰 활동을 통해 수집한 첩보로 이를 먼저 인지하고 본인에게 확인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송 전 수석은 민정수석실의 확인 과정에서도 자신의 법 위반 혐의가 그리 중대하다고 판단하지 않았고, 민정수석실 또한 혐의의 경중 등 사건의 성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만일 이 사건이 (경찰로부터) 사전에 보고됐더라면 여기서도 당연히 알았을 텐데, 그런 보고가 없었던 것으로 안다"

며 "그래서 수사 사실을 인지하기 어려웠던 것이지 청와대의 검증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이날 '송 전 수석 사퇴 관련 설명자료' 배포 등은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 내부 회의를 거쳐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청와대는 '송 전 수석이 고등교육법 위반 혐의 경찰 수사 외에 다른 이유로 사퇴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는데 대해선 "검찰 수사가 끝나봐야 알겠지만, 경찰에선 추가적으로 확인된 비리 사항이 없다고 한다



송광용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

"고 전했다.

청와대는 이어 "앞으로도 이번 건과 같이 사전 검증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나지 않았더라도 (고위 공직자에 대한) 지속적인 검증과 내부 감찰을 실시할 것"이라며 "사후에라도 문제가 인지된 경우엔 단호히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청와대의 이 같은 설명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이번 송 전 수석의 사퇴를 통해 청와대의 고위 공직자 인사검증 체계 등의 '허점'이 재차 드러난 만큼 그에 따른 책임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ys4174@news1.kr

## 청, '경찰수사' 알았든 몰랐든 책임론 불가피

다른 이유 없었나 의문도 여전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송광용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의 사퇴를 계기로 고위 공직자 인사검증 등 청와대의 내부 보고체계 '부실'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다시금 커지고 있다.

청와대가 송 전 수석의 사표를 수리한 지 사흘이 지나도록 그 배경 등에 대해 아무런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는 가운데, 송 전 수석이 임명 전부터 경찰 수사 대상에 올랐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 일각에선 송 전 수석이 이번에 불거진 수사 문제 외에 '다른 이유로 사퇴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어 송 전 수석 본인이나 청와대의 '납득할 만한' 설명이 있기 전까지 그 과장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3일 청와대와 경찰 등 관계기관들에 따르면, 송 전 수석은 청와대의 수석 내정 발표 사흘 전인 지난 6월 9일 자신이 2007~2011년 총장으로 재직했던 서울교대의 고등교육법 위반 혐의 사건과 관련해 서울 서초경찰서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경찰은 7월 22일 송 전 수석에 대한 소환조사 사실을 서울지방경찰청에 공식 보고한 뒤 같은 달 31일 그를 불구속 입건했고, 이달 16일 기소 의견을 담아 송 전 수석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송 전 수석은 6월 12일 교문수석에 내정됐고, 6월 23일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았다. 이달 20일 사표를 제출하기 전까지 약 3개월 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했다.

청와대는 통상 고위 공직자 임명에 앞서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기강비서관실을 통해 그 후보자에 대한 사전 검증 작업을 수행한다. 또 정무수석실 산하 사회안전비서관실에선 매일 경찰이 취합한 각종 정보 사항 등을 보고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청와대가 당시 송 전 수석이 경찰 수사를 받은 사실을 알고도 그를 수석으로 발탁했다면 법 위반 혐의의 경중을 떠나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인사 검증을 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된다.

반대로 청와대가 만일 송 전 수석

임명 과정에서 그에 대한 수사 사실을 몰랐다고 한다면 이 또한 "관련 보고 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된다.

청와대가 송 전 수석에 대한 사전 검증 또는 임명 과정에서 그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공식적으로 확인해주지 않고 있는 것도 이 같은 '딜레마적 상황'에 처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19일 박 대통령을 수행해 인천 AG 개막식에 참석했던 송 전 수석은 이날 오후 박 대통령의 캐나다·미국 순방 출국에 앞서 사표를 제출했고, 청와대는 이 사표가 "즉각 수리됐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정치권 일각에선 "송 전 수석이 단순히 이번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몰랐다고 보긴 어렵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송 전 수석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전직 대학 총장이어서 수사를 받게 됐다 해도 '도덕적 책임'을 질 부분이 없다면 그에 대해 충분히 소명할 수 있었을 것이라 이유에서다.

ys4174@news1.kr

## 안철수, 청 '수첩인사' 비판

오랜 침묵 깨고 박 대통령 겨냥

(서울=뉴스1) 박정양, 서미선 기자 =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전 공동대표는 23일 송광용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의 사퇴 파동과 관련해 "경찰에 소환돼 조사까지 받은 인사의 임명을 강행한 그 오만은 도대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가"라며 "사퇴 이유조차 밝히지 않는 청와대와 박근혜 대통령을 보면서 국민은 또 다시 답답함을 느끼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송 수석의 사퇴는 명백하게 박근혜 정부의 고질병인 '수첩인사'에 따른 인사참사"라고 지적하며 "참여정부의 인사시스템을 한번 되짚어보기를 권한다"고 밝혔다.

그는 "인사가 어려운 일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아무리 어렵더라도 대통령을 가까운 거리에서 돕는 수석비서관의 인사는 원칙과 기준이 분명해야 하고 투명하게 소통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전 대표는 "그 당시 인사는 인재 추천과 검증 기능을 분리했다"며 "인사수석실에서 추천 업무

를, 그리고 민정수석실에서 검증 업무를 담당했다. 자연스럽게 서로 견제하게 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수첩'으로 국정운영을 대신할 수는 없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송광용 교육문화수석의 사퇴 이유를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게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당 안팎에선 안 전 대표의 침묵을 깨운 대상이 박 대통령이라는 점에 주목한다. 일각에선 속고 끝에 정치 일선으로 복귀한 안 전 대표가 정치 현안에 일일이 대응하기 보다 보다 큰 틀에서 선이 굵은 정치를 선보이지 않겠느냐는 전망을 내놓기도 한다.

안 전 대표 측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원래 안 전 대표가 교육 쪽에 관심이 많았고 인사시스템에 대한 문제제기를 당 대표 시절부터 해왔다"며 "(청와대 등의) 인사시스템을 체계화해 '수첩인사'가 아닌 투명한 인사를 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smith@news1.kr

# 하나여행사 HANA TRAVEL

- 한국, 아시아, 미국내, 유럽, 남미 등 항공권 할인
- 관광 패키지

전문가와 함께 편안한 여행을 설계하세요.

**617-713-HANA(4262)**  
 Cell.phone: 617-818-2772  
 email: hanatravel@gmail.com

**Toll Free 1-800-368-6977**

Dedicated to Your Health

# Icon Dental

## 아이콘덴탈

Ultimate Smile

Quality Dental Care

렉싱턴과 콩코드에 편리하게 위치한 아이콘 덴탈은 여러분과 가족 모두에게 적합한 맞춤형 치료 계획을 통해 미용치과, 성인 및 소아 치열교정 및 최신 임플란트 시술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신 기자재와 진료기술 그리고 편안하며 현대적인 진료실에서 친절한 스태프와 함께 양질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표원장 치의학박사 안형준**

57 Bedford St. Suite 220, Lexington MA 02420  
**전화 781-861-8978**

97 Lowell Rd. Suite A8, Concord MA 01742  
**전화 978-369-0254**

이메일 info@icondentalexington.com  
 www.icondentalexington.com

**Dr. 차 영 주**  
 치과 일반의

**Dr. James Kim**  
 치과 일반의

**Dr. Larisa Turkenich**  
 치과 일반의

**Dr. Charles Braga**  
 임플란트 및 잇몸 수술 전문의

**Dr. 오 동 현**  
 교정 전문의

bostonhanjin.com

여러분 가까이 있습니다!

**한진**

17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T: 617.782.2424 F: 617.782.2421

귀국이사 / 로컬이사 / 포워딩 / 택배 서비스

여권사진 / 이벤트 사진 / 영상 촬영 및 편집  
 그래픽디자인 서비스 / 디지털 포토 & 포토샵 튜터링

Nabis Studio

"따뜻한 봄날의 시작을 헤어스타일 영이 책임지겠습니다"

남자컷 25불 / 여자컷 30불 / 파마 70불 부터  
 디지털 130불 부터 / 케라틴 매직 220불 부터 시작 합니다.

경력 압구정 김영남 미용실, 롯데호텔 마리 미용실, 송내 부천 박준 오픈 스텝  
 뉴욕 Fox 헤어 스튜디오, SALON LOFTS sunny 운명

**617.947.6840**

25 church st, watertown MA

# 군, 대당 1211억원 F-35A 40대 구매 최종 결정

대당 가격 1211억원, 방추위 '한국형 전투기(KF-X)사업 기본계획'도 의결  
F-35선택 배경, 스텔스 기능 등 성능 우수성도 있지만 주변 열강 흐름 의식한 듯

(서울=뉴스1) 김승섭 기자 = 오는 2021년까지 미국 록히드마틴사에서 제작된 F35A(F35) 차세대 전투기 40대가 우리 공군에 투입된다. 대당 가격은 1211억원 가량이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 주재로 24일 국방부 중회의실에서 열린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는 차기전투기(F-X) 협상 결과를 보고받고, 이를 승인했다.

이에 따라 군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7조 3418억원을 투입해 고성능 전투기인 F-35A 40대, 군수지원, 무장 및 시설 등을 확보하는 사업에 착수하게 됐다.

군에 따르면 FX의 총 사업비는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사업타당성 재검증 결과를 토대로 기획재정부와 협의에 따라 결정됐다.

총 사업비는 전투기 등 주장비 지불비용(기체 엔진 등)에 66%, 종합군수지원비로 26%, 무장 및 시설공사비용으로 8%가 책정됐다. 대당 가격은 총 사업비에서 주장비 지불비용을 40으로 나눈 금액이다.

구매 협상은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이다. 군 관계자는 이와 관련 "미 정부 및 제작업체 등의 계약에서 FMS 계약의 제한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경쟁상황에서 합의된 각종 기술, 계약조건 및 절충교역 협상내용을 대부분 반영했다"면서 "특히 KF-X(한국형전투기사업)에 필요한 주요 기술은 구매여건이 당초 60대에서 40대로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에 합의한 기술자료 및 기술인력지원 등을 모두 확보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도입하는 F-35와 미공군이 운용하는 F-35 사이에 성능의 차이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군 관계자는 "기본 성능은 동일하다"며 "다만 일부 탑재장비(각종 암호장비, 지도 데이터베이스 등)들은 국가별 운영 환경에 맞게 조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정부가 도입하는 F-35 성능이 미 공군은 물론, 기타 운용국가들의 F-35 성능과 동일하다는 것을 보장하도록 하는 조항을 계약조건에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F-35의 각종 결함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도 군 관계자는 "지난 6월에 발생한 미 공군의 엔진사고와 관련해 미 정부 F-35사업 최고책임자는 지난 23일 공식서한을 통해 '개발 간에 발생 가능한 사안이며, 한국에 도입되는 항공기의 성능, 가격, 도입 시기, 안전에 영향이 없다'고 회신했다"고 전했다.

군 당국이 설명하기는 했지만 몇 가지는 계약상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 전투기 40대를 들여오면서 군 당국은

여벌로 엔진 1개만을 받는다고 밝혔는데 과거 전투기 구매시 결함에 대비해 10~15개 가량 받았던 것과 비교하면 이 해되지 않는 부분이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엔진이 동시에 두 개가 결함이 있다고 하면 후속군수지원 개념에서 받아서 운영할 수 있다"며 "과거에 후속지원은 미리 우리가 사와서 엔진이 결함이 나면 우리가 바꿔 끼웠는데 지금은 목표 가동률을 계약조건에 넣어서 가동률을 유지할 수 있게끔 지원하게 돼있다"고 설명했다.

즉, 군 당국은 가동률은 전력노출을 우려해 밝히지 않았지만 "가동률에 부합하게끔 계속해서 지원하는 개념"이라고 말했다. 군 당국은 당초 40대에 더해 구매예정이었던 20대는 추후 검토하기로 했다.

전투기 엔진사고 등 결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F-35를 선택한 배경은 복합적인 이유가 있는 듯하다.

정부가 당초 차세대 전투기 사업을 추진할 때 입찰에 참여한 EADS(유로파이터)와 보잉(F15SE)은 제한된 스텔스 기능 때문에 4.5세대 전투기로 꼽혔고 F-35는 제5세대 전투기로 스텔스 성능에 더해 뛰어난 항전(항공전자)장비를 갖추고 있으며 APG-81 AESA 레이더를 비롯해 통합광학센서인 EOTS(전자광학조준장비)와 DAS(분산형 개구장치)를 갖추고 있다.

이같은 성능우수성 측면 외에도 군이 차세대 전투기로 F-35를 선택한 배경에는 최근 주요 강대국들이 주력기로 이를 구매하고 있는 것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지난 2009년 일본 자위대의 차세대 주력전투기로 자국이 실전배치한 F-22스텔스기가 아닌 미국과 영국 등 9개국이 공동개발중이던 F-35를 추천한바 있고 실제 일본은 F-35를 2012년부터 3년간 10대 구입한 이후 내년에도 6대를 구입키로 했다.

중국이 스텔스 기능을 가진 전투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동아시아 제공권에서 우위를 점하려면 정부로서는 F-35가 최적의 전투기라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방추위는 또 이날 회의에 상정된 한국형전투기(KF-X) 체계개발 기본계획안을 심의, 의결했다.

KF-X 사업은 한국이 개발을 주도하고 인도네시아와 해외선진항공기술업체 (TAC·Technical Assistance Company)가 참여하는 형태의 국제공동개발로 추진된다.

군 당국은 이날 기본계획안이 의결된데 대해 "2002년 소요가 결정된 이후 비로소 본격 착수를 가능하게 한 결정"이라며 "KF-X가 전력화되면 기본훈



방위사업청은 24일 차기전투기(F-X) 단독후보인 F-35A를 대당 1천200억원에 40대 구매하기로 했다

련기(KT-1), 고등훈련기(T050) 등 공군 주요 전력을 국내 독자형상으로 개발할 수 있다며 선진항공공국의 일원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이 사업이 실행되면서 안보 및 항공전력 측면, 경제적 측면, 기술적 측면에서의 기대효과가 있다고 보면서 특히 경제적 측면에서는 생산 유발효과로 9.9조원~13.2조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로 2.8조원~5조원, 취업유발효과로 4.5만명~6.1만명이 될 것으로 내

다봤다.

현재 군은 KF-X 개발에 필요한 체계통합기술, 설계기술 등을 90%확보해 놓은 상태라고 밝히면서 부족한 기술은 록히드마틴사의 전문인력 기술 지원, 전투기 자료 등 관련 기술 이전에 합의해 경쟁계약 수준 이상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KIDA는 과거 KF-X 개발에 필요한 총 예산을 8.5조원으로 산출한바 있는데 군에서는 대략 이 금

액 수준에서 사업이 추진되지 않을까 전망했다.

한편, 총 사업비 가운데 60%는 정부 예산(국방비), 20%는 인도네시아, 20%는 주업체 및 협력업체들이 부담하는 방식이다.

현재 주업체로 참여의사를 밝힌 곳은 한국항공우주산업과 대한항공이 있으며 전투기 엔진수주에 가장 먼저 뛰어든 곳은 미국의 GE항공이다.

cunjam@news1.kr

## F-35A 도입으로 2천억원대 '거래세' 미국에 납부 논란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차기전투기 F-35A를 정부 간 계약인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도입하는 과정에서 2천억원대의 국민 세금을 미국 정부에 일종의 '거래세'로 납부하게 돼 논란이 되고 있다.

25일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미 정부와 F-35A 40대를 도입하는 계약을 체결하면 FMS를 통한 구매금액의 3.5%와 0.85%를 각각 FMS 행정비와 계약행정비로 지불해야 한다. 구매금액의 4.35%를 미 정부에 행정비용으로 납부하는 셈이다.

차기전투기 사업의 전체 예산은 7조3천418억원으로, F-35A 기체와 엔진 등 주장비의 대부분과 종합군수지원 및 무장의 일부가 FMS로 도입되기 때문에 미 정부에 납부하는 FMS 행정비용은 2천억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전해졌다.

방사청의 한 관계자는 "F-35A 40대 도입에 따른 FMS 행정비와 계약행정비를 정확히 공개할 수 없

지만 2천억원대"라고 밝혔다.

FMS 제도는 동맹국이 미 정부를 통해 미국산 무기를 구입하는 방식으로, 미 정부는 '이익을 취하지도, 비용을 지불하지도 않는다'(No Gain, No Loss)는 원칙을 제시하면서 행정비용을 구매국에 부과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대형공격헬기 아파치(AH-64E) 등을 구매할 때도 FMS 방식이 적용된 바 있으나 구매금액이 많아야 1조~2조원 수준이어서 FMS 행정비용이 수백억원에 그쳤지만 F-35A 도입에는 7조원대 예산이 투입돼 FMS 행정비용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게 됐다.

이와 관련, 미 정부가 사실상 거래의 거래세를 받아가는 것은 문제가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FMS 계약조건이 미국의 다른 핵심 동맹국에 비해 여전히 불리한 편이라는 지적도 계속 제기되고 있다.

한국은 계약행정비로 0.85%를 지불하지만 '북대서양조약기구(NATO)+3(일본·호주·뉴질랜드)' 국가 중 개별 협정을 맺은 국가들은 0~0.85%를 계약행정비로 지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군의 한 관계자는 "일부 NATO 가입국은 우리나라보다 계약행정비를 덜 내고 있고, 계약행정비를 면제받는 나라도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방사청은 미 정부와 계약행정비를 낮추기 위한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사청 관계자는 "미국이 FMS 방식을 적용하는 전략무기를 구매하는 모든 나라는 FMS 행정비 등의 행정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며 "2008년 우리나라의 FMS 지위가 격상되면서 계약행정비가 1.5%에서 0.85%로 낮아진 바 있으며, 앞으로도 행정비용을 낮추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dhspeople@news1.kr

# JESSICA BEAUTY

한국 종합 화장품 | 참존 화장품 직영

**시선집중** 잡티개선, 주름개선, 탄력개선, 미백까지...

“화장품에도 당신의 인격과 품격이 묻어납니다”

나만의 화장품으로, 내 피부는 내가 만든다. 소비자의 선택을 도와주고 행복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드디어 상륙** 참존 스킨타운샷에서 피부관리 하시는  
멤버에게만 사용하는 제품

**처진 피부에 희소식**

스킨타운 프리미엄 리와이징 크림으로  
처진 피부를 개선 (탄력감화, 조적이 살아납니다)  
잡티 개선 참인셀 비타민C.E크림



617.770.0188  
온라인 쇼핑몰 오픈 | 무료배송

**JessicaSecret.com**

219 Quincy Ave. #31-A, Quincy, MA 02169  
金門 Kam Man Food 중국마켓 안에 있습니다

## 보스톤 코리아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전화: 617.792.6876

이메일: bostonkorean@hotmail.com

Seoul Soup in the Soul  
**서울설령탕**  
SEOUL SOULLONGTANG

### SUMMER SPECIAL 냉면개시!

**서울 SEOUL**  
KOREAN · SUSHI · WINES



한식 세계화의 종가집이 되겠습니다.

서울설령탕 In Allston  
1245 Commonwealth Ave, Allston  
617.505.6771  
SeoulBeefSoup.com

서울 on Beacon Hill  
156 Cambridge St, Boston  
617.973.6680  
SeoulFoodBoston.com

## ‘성령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로 인해 막혔던 답을 예수님이 무너뜨리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겸손, 은유, 인내, 사랑, 용납,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금요찬양예배 저녁 8:00**  
**주일예배 오전 10:00**

주일 예배 오전 10:00  
주일학교, 유스 예배 오전 10:00  
금요찬양예배: 금 오후 8:0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토 오전 7:00  
청년모임 주일오후 12:30  
속회모임 수 - 주일 속회별  
중보모임 화, 목 오후 8:00, 주일 오전 9:30  
성경공부 주일 오후 12:30, 수 오전 9:30, 금 오후 9:30

**비전 교회**  
The people of The United Methodist Church

80 Mt. Auburn St., Watertown, MA 02472 Tel: 617.744.9557  
www.gracevisionumc.org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 삶을 노래하는 교회

## 나사렛사람의교회

KOREAN CHURCH OF THE NAZARENE

주일예배 오전 11시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십니다.  
나사렛사람의교회도  
가까이 있습니다.”*

900 Main Street  
Reading, MA 01867  
보스톤 북쪽  
I-95 Exit 38B  
(Rt. 28N)로 나와서  
2 마일 왼쪽에 있습니다.  
Tel. 781.439.1840

**www.npeople.org**  
담당목사 유경렬



미주한인개신교장로회

## 세빛교회

NEW LIGHT KOREAN CHURCH

주일예배: 오전 11시 30분  
주일영어예배 (EM): 오전 11시 30분  
주일학교 (유, 초, 중, 고): 오전 11시 30분  
수요예배: 오후 8시  
금요기도회: 오후 8시  
새벽기도회: 오전 6시 (월요일 제외)

담당목사 김대업  
730 Main St. Waltham, MA 02451  
781-652-0001 / NewLightKC.org



## 뉴햄프셔한인교회

New Hampshire Korean Christian Church

**주일예배 • 오후 1시 30분**  
**담당목사 • 장계은**

12 Station Rd. Bedford, NH 03110 (395 주소: 8 Hawthorne Dr. Bedford)  
603-264-6799 • 603-264-6798 • www.newkcc.org




## 성 앙투안 다블뤼 보스톤 한인성당

St. Antoine Desneux Parish in Boston Diocese

하느님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삶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찾아 나서고자 하는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성 앙투안 다블뤼 한인 성당에서는  
새입교자를 위한 교리반을  
9월부터 시작합니다.

45Ash St. Newton MA 02466  
617-558-2711, 617-244-9685  
office.kccb@gmail.com /  
stdaveluychurch.org  
Mass: 11:30am(교중미사), 4:30pm



## 보스톤 서부 장로교회

Boston-West Korean Presbyterian Church

어머님 마음 같은 교회

주일예배: 오후 2시	주일학교: 오후 2시
중고등부: 오후 2시	대학부모임: 주일 12시
금요기도회: 오후 8시	구역모임: 구역별로

담당목사: 김혁수  
www.bostonwestchurch.org  
657 Boston Post Road, Weston, MA 02493  
교회: 781.894.3958 목사관: 617.969.5809



## 보스톤 남부지역 보스톤 새힘교회

**주일예배 11:00 AM**

**617-622-5225**  
**5 Cabot Pl, Stoughton, MA 02072**  
www.bostonrenewal.org



성경말씀을 통한 영혼의 성장을 위한

## 세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보스톤한인교회

담당목사: 송연호

안식일 학교: 토요일 오전 9:30  
안식일 설교예배: 토요일 오전 11:00  
중고등부 학생반: 토요일 오후 2:00  
금요일 예배: 저녁 7:30  
새벽기도회: 일요일 오전 6:00  
제자훈련: 화요일 저녁 8:30 (스카이프)  
영어교실: 화요일 오전 10:00

부설: 보스톤 세칠일 센터 / 17년간 합연들을  
위해 해당 무료 집회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주소: 4 Spring St. Stoneham, MA. 02180  
전화: 781-279-3270 bkadventists@gmail.com  
www.bkadventists.com



엔티비 (eTV)가 티보 플레이(TBO Play)로 새롭게 도약합니다. 더 좋은 서비스를 여러분께 보답하겠습니다.

## Welcome, TBO

티보 개학기념 학생할인  
**폭탄세일!**

**\$14.99** (2년 약정시)

**학생 할인**  
2014년 9월5일-10월4일까지  
보스톤 코리아 티보가  
학생 여러분께 BIG 할인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정규가격: \$34.99

- 학생증을 보여주세요!**  
학생 할인 \$14.99(2년 약정시)
- 신분증을 보여주세요!**  
시니어 할인(65세이상)  
\$24.99(2년 약정시)
- 티보 런칭기념 특별할인 연장!**  
10월 30일까지  
\$39.99 상품 개통으로부터 3개월간  
월 \$9.99으로 가격인하  
(2년 약정시, 3개월 후 \$34.99로 과금)

문의 및 연락처  
보스톤코리아 TV 사업국  
617.955.9112  
617.650.6656

KBS, MDC, SBS, SBS Plus, tvN, XTV, O'live, OCN

##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주택매매, 구입, 임차/사업체알선

**Century 21**  
Avon

**김택운**  
Realtor

Cell: **(617) 678-9330**

Fax: (617) 497-9947 E-mail: tkim@century21avon.com  
1675 Massachusetts Avenue, Cambridge, MA 02138



## 고국의 품에서 당신의 건강을 생각합니다

###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 유방·갑상선센터 (유방암, 갑상선암 진단·치료)
- 항동맥경화센터 (보스톤 한인에서 최초)
- 자궁근종센터 (내과/외과/자궁근종 전문)
- 심혈관·뇌졸중센터 (보스톤 지역 최초, 24시간 응급)
- 허추·관절센터 (신물 치료, 첨단 재활치료)
- 내시경센터 (위·대장 내시경 전문)

**617-583-2993**  
www.newyjh.com

고국방문 건강검진 VIP 입원 종합진료 보: 200만원 / 미: 210만원  
입원 종합진료 보: 100만원 / 미: 100만원  
당일 종합진료 보: 50만원 / 미: 50만원

진료과목: 소아과, 내과, 가정의학과, 내과, 신장내과, 영아과, 산부인과, 내과, 흉부외과, 피부과, 심장내과, 척추·관절센터, 알코올·중독센터, 알코올·중독센터, 내과, 소화기, 내과, 내과, 내과



# 합창단원모집



보스톤 멘토스 음악원에서  
B.Mentors 합창단 단원을 모집합니다.

**프로그램**

- 독창적인 스트레칭 체조를 통한 발성 호흡의 이해와 자기만의 음색 개발
- 전문적인 보이스 트레이닝을 통한 발성 원리의 이해와 운택한 소리의 완성
- 솔로, 중창, 합창곡 연습을 통한 음악의 이해
- 연주를 통한 지역공동체 봉사와 연례 정기연주회

**보스톤 멘토스 청소년합창단 (B.Mentors Youth Chorus)**

함께 합창음악을 배우고 연주하며 하모니를 만들어갈 청소년합창단원을 8-12학년의 한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모집합니다.

연습 시간: 매주 일요일 오후 4:30~6:00 회비: 가을학기 \$150, 봄학기 \$200

기간: 1년 프로그램 (가을학기: 2014년 9월 28일 ~ 12월 14일,

봄학기: 2015년 1월 11일 ~ 6월 14일) \*연주회 일정에 따라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스톤 멘토스 성인합창단 (B.Mentors Adult Chorus)**

음악과 문화를 사랑하는 한인을 대상으로 성인합창단원을 모집합니다. B.Mentors 성인합창단은 독창적인 음악 프로그램을 통해 몸과 마음의 조화로운 균형을 이루고 삶의 활력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연습: 매주 목요일 오후 7:30~9:00 회비: 월 \$30

**접수 및 문의**

이메일: bomentorsmusic@gmail.com 전화번호: 617) 218-7555

주소: 326 Washington St, Annex, Suite 10, Wellesley Hills, MA 02481



대한통운 보스톤 지사  
<http://www.keboston.com>

대한통운 과 CJ 아시아 최고의 물류시장 오픈 !!  
뉴잉글랜드의 모든 이사를 맡겨 주십시오.

**귀국이사 · 로컬이사 · 타주이사**  
**한국 및 타주 자동차 운반**

고국의 전지역 일주일 도착을 보장하는 **항공택배**

24시간 이사상담



978-461-2424 / 1-888-239-9377

e-mail 상담 : [huny@keusa.com](mailto:huny@keusa.com)

51 Knox Trail, Acton, MA 01720

# Crouser & Suh PLLC

크라우저 & 서 로펌

이민법/국제법 전문 미국 로펌  
한인 변호사들의, 한인들을 위한  
최상의 법률 서비스!



**이소영**  
이민 변호사

- 전문인력 취업비자 (H-1B)
- 단기연수인 비자 (H-3)
- 주재원 비자 (L-1)
- 특기자 비자 (O-1, P-1)
- 취업이민 (NW, EB-1, EB-2, EB-3)
- 투자비자 (E-2) / 투자이민 (EB-5)
- 종교 비자 (R-1) / 비자 변경 및 연장
- 가족초청 이민 / 시민권 신청
- 추방 재판 / 각종 이민 관련
- 비지니스, 민사 등 각종 소송 관련



**조규성**  
민법/상법 변호사



**양선영**  
이민 변호사



**스티브 서**  
이민 변호사

**Crouser & Suh PLLC**

1111 Washington Street, Newton, MA 02465

Tel: 617.969.7979 / 617.877.3435

Fax: 617.969.4959 [www.stevesuh.com](http://www.stevesuh.com) / [www.suhlwyer.com](http://www.suhlwyer.com)

# 패츠 공격력 최하위, 패스와 러닝 모두 문제

(보스턴 = 보스턴코리아) 정성일 기자 =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는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NFL에서 최고의 공격력을 지닌 팀으로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올해 들어 공격력이 급격히 저하된 모습을 보이면서 패트리어츠의 폭발적인 공격력은 사라진 것이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패트리어츠의 수비가 향상되면서 공격이 부족한 부분을 수비가 채워주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공격력이 강해도 수비가 발목을 잡았던 것과는 대조되는 모습이다.

2승 1패로 AFC 동부지구에서 공동 선두를 달리고 있는 패트리어츠는 이번 시즌 들어 치른 3번의 경기 중 2경기에서 공격 야드가 300야드 이하였다. 지난 시즌 치러진 경기 중에서 패트리어츠가 300야드 이하로 공격을 한 경기는 4경기에 불과했다.

패트리어츠는 지난 2006년 이후 매년 팀공격 부분에서 8위 이상을 기록했다. 그러나 아직 시즌 초라고는 하지만 3경기를 마친 현재 패트리어츠는 평균 301.3야드로 공격 부분에서 최하위인 27위에 랭크되어 있다.

빌 벨리치 감독은 “공격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지금보다 더 잘할 수 있다”며 “정말 모든 것을 다 잘할 수 있다. 상대 선수를 블록하고 패스를 던지거나 받고, 러닝과 공격 루트 등 모든 면

에서 앞으로 나아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패트리어츠의 공격이 부진한 것은 쿼터백 탐 브래디가 부진하기 때문이다. 슈퍼볼 우승 3회, 슈퍼볼 MVP와 리그 MVP, 프로볼에 9번이나 선정된 브래디는 작년부터 눈에 띄게 기록이 하향세를 그리고 있다.

이번 시즌 들어 브래디는 패스 시도당 5.54야드로 리그 30위, 패스 레이팅 82.9로 23위를 기록하는 등 리그 최고의 쿼터백이라는 명성에 걸맞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20야드 이상의 패스는 13번 시도하여 단 1번만 성공하였다. 장거리 패스의 정확도가 확실히 떨어진 것이다.

브래디는 패스의 정확도뿐만 아니라 특정 선수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비판을 받고 있다. 브래디의 패스를 가장 많이 받고 있는 리시버 줄리안 에들먼은 팀에서 두 번째로 많은 패스를 받고 있는 타이트엔드 랍 그롱코스키보다도 2배나 많은 패스를 받고 있다. 반면에 새로 합류한 브랜든 라펠은 4번, 기존에 있던 리시버 대니 아멘돌라는 단 3번 패스를 받는데 그치고 있다.

패스뿐만 아니라 러닝을 통한 공격도 신통치 않다. 패트리어츠는 러닝 시도당 평균 3.5야드를 전진하고 있어 러닝 공격의 효율성이 리그 최하위다. 지난 주 오클랜드와의 경기에서 패트리



패트리어츠의 오피시브 라인이 부실하여 쿼터백에 대한 보호고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어츠는 러닝 공격으로 76야드만을 전진했다. 오클랜드가 이전 2경기에서 상대팀에게 400야드 이상을 내준 것을 감안하면 패트리어츠의 러닝 공격 수준을 알 수 있다.

패트리어츠의 공격이 부진한 가장 큰 이유로 부실한 오피시브 라인이 꼽힌다. 지난 시즌 직후 오랫동안 패트리

어츠의 오피시브 라인 코치로 일해왔던 베테랑 코치가 사임했다. 올해 시즌 시작 직전에는 베테랑 가드 로건 맨킨스가 다른 팀으로 트레이드 되었고, 벨리치 감독은 오피시브 라인 선수들에게 고정적인 포지션을 부여하지 않고 로테이션으로 돌리는 새로운 전술을 사용하고 있다.

패트리어츠의 공격에 대해 브래디는 “우리 팀에 여러 새로운 선수들이 합류했고, 여러 다른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며 “우리 모두 서로에게 익숙해지고 우리가 하는 일에 익숙해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 나아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jsi@bostonkorea.com



글쓴이: 정철화, Ph.D.  
978-726-6979  
jungc811@hotmail.com  
Stow Acres Country Club  
58 Randall Rd. Stow, MA 01775

## 남녀의 서로 다른점

올해는 한국에서 손님들이 많이 다녀갔다. 다녀간 대부분의 사람들과 함께 골프 라운딩을 가졌는데 개중에는 처음 필드에 나가본 사람들도 있었다. 흔히들 처음 필드에 나가는 것을 머리 올린다 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어떻게 그말이 유래가 되었는지는 잘 모르지만 매우 중요하고 의미있는 하나의 의식이라는 느낌이 든다. 그리고 보니 그동안 골프레슨을 하면서 아주 많은 사람들과 함께 첫 필드 라운딩을 가졌는데 일반적으로 첫번째 라운딩을 준비하는 자세나 과정 그리고 실제로 필드에 나가서 플레이를 하는 것을 보면서 남자와 여자들이 골프를 대하는 일련의 태도가 많이 다르다는 것을 새삼 알게 되었다.

골프에 있어서 남녀의 차이점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겸손과 자만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여자들의 경우 대부분 자신의 골프에 대하여 지나치게 겸손하고 남자들의 경우는 대부분 자신감이 실제 실력을 넘어선다. 골프 스윙을 하나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자면 여자들의 경우 스윙을 끝까지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스윙을 하는데 자신감이 없어서이다. 자신의 스윙에 확신이 없기에 소극적으로 스윙이 되고 끝까지 자신의 힘을 공에 실어보내고 끝까지 자신의 스윙을 유지하는데 여력이 부족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반하여 남자들의 경우는 그 반대로 생각하면 된다. 자신의 스윙 실력에 비하여 너무 많은 자신감으로 가득차 있어서 스윙이 과도하게 되고 스윙 이후에 자신의 힘에 자신의 무너지는 불균형을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남자들에게 요구하는 대부분의 말은 자제하라는 말이고 여자들에게는 자신감을 가지고 끝까지 힘차게 스윙을 하라는 것이다.

부부들이 함께 골프를 하다보면 아마도 서로 다른 점을 많이 보게 될 것이다. 실제로 부부를 함께 가르치다 보면 남편과 부인에게서

로 반대로 이야기 하는 경우가 많다. 가지고 있는 성향이 서로 반대이기 때문에 반대로 이야기를 해야만 되기 때문이다. 골프를 하다가 부부가 부부싸움을 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자신이 알고 있고 자신에게 맞는 골프는 이것인데 배우자가 그것에 반대되는 것을 말하고 또한 그것을 도가 지나치게 강요한다면 부부싸움으로 충분히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서로의 다른 점을 충분히 알고 이해해 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재미있는 부부골프 라운딩을 만끽할수 있을것이다.

며칠 전 처음으로 필드에 다녀온 학생이 있다. 처음 골프를 시작하여 몇 번 레슨을 받은 상태인데 주위의 잘 아는 사람들이 빨리 골프 친구를 만들려고 졸라대는 덕분에 생각보다 일찍 필드에 나가게 되었다. 라운딩이 어땠냐고 물으니 “9홀 하고 왔는데 타수를 셀수는 없었지만 재미있었어요 ^^” 라고 했다. “그래요? 재미있었다니까 성공이네요” 라고 대답해 주었다. 첫 라운딩에 재미라는 것을 느꼈다면 그것은 틀림없이 성공한 것이다. 첫 라운딩을 준비하시는 분이 있다면 남자분들은

스윙의 힘을 자제하면서 부드럽게 하려고 노력하고 여자분들은 자신감을 가지고 힘차게 스윙을 한다면 재미있고 성공적인 라운딩을 하게 될 것이다.



# 박태환, 자유형 100m 은메달 획득 아시안 게임 통산 19번째 메달

(인천=뉴스1) 나연준 기자 =m '마린보이' 박태환(인천시청)이 자유형 100m에서 은메달을 획득, 한국인 아시안게임 최다메달 타이 기록을 세웠다.

박태환은 25일 인천 문학박태환체육관에서 열린 2014 인천 아시안게임 수영 남자 자유형 100m 결승에서 48초 75를 기록, 중국의 닝제타오(47초70)에 이어 2위에 올랐다. 닝제타오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아시아 최고기록(48초27)을 경신했다.

박태환은 이번 대회 첫 은메달이자 세 차례 아시안게임 합계 19번째(금 6개·은 4개·동 9개) 메달을 목에 걸며 사격의 박병택(금 5개·은 9개·동 4개)과 아시안게임 최다 메달 획득 기록을 함께 보유하게 됐다. 박태환은 앞서 이번 대회 자유형 200m와 400m, 계영 400m, 800m에서 동메달을 땀다.

박태환은 남은 자유형 1500m와 혼계영 400m에서 메달을 추가하면 아시안게임 최다 메달 획득 기록을 새로 세우게 된다.

이날 예선을 전체 1위로 통과한 박태환은 4번 레인에서 경기를 펼쳤다. 박태환은 0.65로 2번째로 빠른 스타트를 보였지만 50m 턴을 4번째로 했다. 박태환은 후반에 선두를 맹추격했으나 2위로 레이스를 마쳤다.



금메달은 목에 걸지 못했지만 이번 대회 3개 메달을 목에 건 박태환

# 부상투혼 양학선, 아쉬운 은메달

(인천=뉴스1) 홍우람 기자 = 리세광(29·북한)과의 맞대결로 기대를 모았던 양학선(22·한국체대)은 부상 투혼을 발휘했지만 아쉽게도 아시안게임 체조 도마 2연패를 달성하지 못했다.

2010 광저우 대회 챔피언 양학선은 25일 인천 남동체육관에서 열린 남자 체조 종목별 결승 도마에서 1, 2차 시기 평균 15.200점을 기록, 홍콩의 웨카이형(15.216점)에 이어 2위에 올랐다.

양학선과 라이벌 대결을 펼칠 것으로 기대됐던 북한의 리세광도 착지에 실수를 범해 14.799점에 머물며 4위에 그쳤다. 동메달은 중국의 황시(14.800점)에게 돌아갔다.

양학선은 이날 1차 시기에 자신의 고유 기술인 난도 6.4점의 '양1'을 시도했다. 그러나 공중에서 비틀기 동작이 모자란 결과, 난도 6.0의 '여2' 기술로 인정돼 15.000점을 얻었다.

2차 시기에는 신기술 '양2'(뿔틀을 옆으로 짚은 뒤 3바퀴 반 비틀기)를 시도했지만 이마저 비틀기가 3바퀴에 그쳐 난도 6.0의 '로페즈' 기술로 인정되면서 15.400점을 받아 평균 15.200점을 기록했다.

기대를 모았던 남북 금메달리스트의 맞대결도 아쉽게 마무리됐다.

양학선의 최대 라이벌로 꼽혔던 2006 도하 대회 금메달리스트 리세광은 이날 착지 동작에서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며 일찌감치 메달권 밖으로 밀

려났다. 3번째 순서로 나온 리세광은 1차 시기에 머리를 짚으며 착지에 실패해 감점(-0.30)을 더해 14.033의 저조한 점수를 받았다.

2차 시기에는 자신의 이름을 딴 최고 난도(6.4) 기술 '리세광'(도마를 옆으로 짚고 무릎을 펴고 뒤로 몸 굽혀 2바퀴 회전·1바퀴 비틀기)을 성공시키며 15.433점을 받아냈다.

그러나 1차 시기의 낮은 점수를 만회하지 못한 채 1, 2차 시기 평균 14.799점을 기록하며 경기를 마무리했다.



# 이광종호 홍콩에 3-0 승, 8강 한일전 성사됐다

## 28일 일본과 4강 다툼

(고양=뉴스1스포츠) 임성일 기자 =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인천 아시안게임 남자부 8강에 진출했다. 이광종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은 25일(이하 한국시간) 오후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열린 홍콩과의 16강전에서 후반에 터진 이용재와 박주호의 연속 골로 3-0 승리를 거뒀다. 8강에 진출한 한국은 팔레스타인을 4-0으로 꺾은 일본과 4강 티켓을 다투게 됐다.

웅크리고 틀어막는 홍콩의 밀집수비를 어떻게 뚫어내느냐가 관건인 경기였다. 그리고 예상과 오차 없는 흐름으로 전개됐다. 주도권이라는 표현이 의미 없을 정도로 한국이 시종일관 홍콩의 골문을 노리는 형국이었다. 상대의 전술을 알고 있어도 답답했다.

조별예선 3차전 라오스와의 경기에서 느꼈듯, 아무리 약체라도 마음먹고 내려앉아서 공격할 의지가 없으면 뚫어내기가 없다는 것이 첫 번째 문제다. 이런 상황에서는 90분 동안 몇 번 오지 않을 찬스를 반드시 잡아내는 해결사가 필요한데, 현재 이광종호의 공격

진은 여의치가 않다. 김신욱과 윤일록이 모두 부상으로 빠졌고 이종호는 경고누적이다.

결국 뛰어난 골잡이의 개인기보다는 팀플레이를 통해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했다. 이광종 감독의 해법은 좌우를 폭넓게 활용해 측면을 돌파한 뒤 크로스를 올리는 방법을 주요 루트로 택했다. 왼쪽의 김진수와 오른쪽 임창우의 공격가담이 많았던 이유다. 여차피 홍콩이 적극적인 공격을 펼치지 않을 것이 자명하기에 수비보다는 공격에 치중하게 했다.

경기 시작 33분에서야 김승규 골키퍼가 처음으로 공을 만졌을 정도로 일방적이었다. 하지만 전반이 끝날 때까지 골은 터지지 않았다. 종료 직전 홍콩 박스 안 혼전 상황에서 장현수가 밀어 넣은 것이 골라인 넘어가기 직전 골키퍼 손에 막혔다는 게 아쉬웠다. 전반전 유효슈팅이 16개였다. 지독한 결정력 부족이었다.

골이 나오지 않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한국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었다. 때문에 후반 14분 나왔던 이용재의 선제 골은 상당히 값졌다. 그간의 답답함을 풀어주는 작품이 하나나

왔다. 이재성이 오른쪽 측면에서 중앙으로 꺾어 들어가면서 수비 뒤쪽으로 공간 패스를 넣어줬고 이를 김영욱이 가슴으로 떨어뜨린 것을 이용재가 오른발로 강하게 슈팅하면서 크로스바를 때리고 골 라인을 넘어갔다. 귀중한 선제 골이었다.

무거운 짐을 털어낸 한국은 한결 여유롭게 경기를 운영할 수 있었다. 그리고 와일드카드 박주호가 남은 체중을 확실하게 뚫어주었다. 후반 32분 추가골이 터졌다. 김승대가 오른쪽 측면을 파고든 뒤 내준 것을 강력한 논스톱 왼발 중거리슈팅으로 연결해 골망을 출렁이게 만들었다. 이것으로 사실상 승부는 갈렸다. 한국은 종료 직전 페널티 에어리어 안 왼쪽에서 김진수가 강력한 왼발 슈팅으로 3번째 골을 성공시키면서 승리에 췌기를 박았다.

결국 경기는 3-0으로 마무리됐다. 이기기는 했으나 전반전을 비롯해 전체적인 내용이 모두 만족스럽지는 않았다. 앞으로 만날 상대는 홍콩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염두해야 한다. 당장 28일에는 한일전을 앞두고 있다. 기쁨과 함께 숙제도 받은 이광종호다.

lastuncle@news1.kr



선제골을 터뜨린 이재성이 환호하고 있다



**NEWSTAR BOSTON**

Each office independently owned and operated

매주 최대 한인 부동산 그룹 / 20여년 역사 / 1500명 이상의 에이전트 / 연30억불의 매출실적 / 50여 가지 서비스 / 한국 및 캐나다 자회사

전 미주 지역의 Network과 Teamwork 그리고 다년간의 경험과 New Star 부동산만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객의 성공과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백영주**  
617-921-6979



**Kwang O Kim**  
617-792-8615



**Joanne Song**  
617-797-3562



**Sue Rong Tsai**  
617-792-8842



**Yukai Sun**  
860-830-8599



**Thomas Park**  
617-880-9790



**이제봉**  
781-654-5281



**애나 정**  
617-780-1675



**최진민**  
617-877-0387



**Ritika Chopra**  
617-697-1191



**Michael Yun**  
617-459-5985



**OT Kim**  
617-620-8242

**단독주택 Single Family**



**\$455,000**  
**Sharon, MA**  
3 Beds, 2.5 Baths, 2000 sf.  
Many updates  
좋은 주거 환경, near Train Station  
이현주 401-935-3397



**\$455,900**  
**Tewksbury, MA**  
4 Beds, 3 Baths, 2714 sf.  
깨끗하게 잘 관리된 집  
넓은 공간, 좋은 가격  
뉴스타부동산 781-259-4989



**\$729,900**  
**Methuen, MA**  
4 Beds, 2.5 Baths, 3907 sf.  
잘 관리된 넓고 아름다운 주택  
Jay Lee 781-654-5281



**\$650,000**  
**Framingham, MA**  
4 Beds, 2.5 Baths, 2920 sf.  
조용하고 살기 좋은 주거 환경  
Near shopping on #9  
Jay Lee 781-654-5281

**단독주택 Single Family**



**\$499,900**  
**Sharon, MA**  
3 Beds, 2 Baths, 2235sf.  
Flexible floor plan  
#1 Best Place to Live in US  
이현주 401-935-3397



**\$749,900**  
**Westwood, MA**  
3 Beds, 2 Baths, 2475 sf.  
Updated kitchen, windows,  
roof, hot water tank etc.  
이현주 401-935-3397



**\$465,000**  
**Newton, MA**  
3 beds, 1 bath, 1180 sf.  
Wonderful 3 bedroom single  
family on quiet side street  
OT Kim 617-620-8242



**\$499,900**  
**Lexington, MA**  
2 Beds, 1 Baths, 816 sf.  
Amazing opportunity to own  
house in Lexington  
OT Kim 617-620-8242

**단독주택 콘도 Condominium**



**\$599,000**  
**Bedford, MA**  
3 Beds, 2 Baths, 2234 sf.  
Quiet and nice place to live  
Gina CHoi 978-866-3248



**\$429,900**  
**Belmont, MA**  
3 Beds, 1 Bath, 1245 sf.  
좋은 학군, 편리한 교통  
Anna Jung 617-780-1675



**\$239,000**  
**Acton, MA**  
3 Beds, 2.5 Baths, 1594 sf.  
Updated kitchen, floors  
Gina Choi 978-866-3248



**\$318,000**  
**Hopkinton, MA**  
2 Beds, 2.5 Baths, 1651 sf.  
좋은 가격의 깨끗한 콘도  
Michael Yun 617-459-5985

**Investment**

**E-2 & EB-5 투자**  
문의: 781-259-4989

**Condo**

Cambridge/ \$460,000  
2 beds, 2 full baths  
Greenline extension  
Jason Jeon 617-642-5670

**Condo**

Cambridge/ \$349,000  
Charming 1 bedroom condo  
Close to Harvard Sq.  
Joanne Song 206-734-1407

**프렌차이즈**

**300개 점포 소유 회사**  
S.J Park 617-304-7001

**아파트 건물 투자**

아파트 건물  
학생 렌트 건물  
Cambridge, Boston  
S. J Park 617-304-7001

**Space for Business**

케임브리지 H-Mart 근처 빈자리  
한인 비즈니스 최적 위치  
S.J Park 617-304-7001

**Drop off Store**

찾기 힘든 Drop off store  
좋은 위치, 고정적인 손님  
일년 매출 \$300K 이상  
제이슨 전 617-642-5670

**Full Plant Cleaner**

저렴한 렌트,  
안정적인 수입  
넓은 파킹  
제이슨 전 617-642-5670

**Lexington Office**  
40 Waltham Street, Lexington, MA 02421  
Tel, 781.259.4989 Fax, 781.259.4959  
www.BostonNewStarRealty.com

**Newton Office**  
1111 Washington St, Newton, MA 02465  
Tel, 617.969.4989 Fax, 617.969.4959  
www.NewStarRealty.com

# Agent 모집합니다. 781.259.사구팔구 617.969.사구팔구



1111 Washington St, Newton, MA 02465  
40 Waltham Street, Lexington, MA 02421

www.BostonNewStarRealty.com  
www.NewStarRealty.com

Each office independently owned and operated  
100% 한국인 부동산 그룹 / 2014년 10월 / 1000여 명의 에이전트 /  
다문화가정 상담 / 20여 개 언어 / 24시간 상담 서비스



김형진  
781-956-0409



박성종  
617-304-7001



제이슨 전  
617-642-5670



헤이줄 송  
617-895-7676



Shell Yu  
781-526-2416



Janice Lee  
978-806-6023

### Drop off Store



\$45,000  
**Lincoln, MA**  
Drop shop and alteration  
Great location by Lincoln place  
Anna Jung 617-780-1675

### Restaura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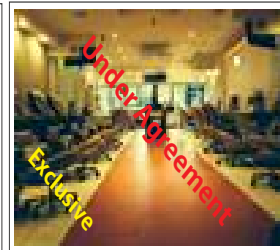
\$250,000  
**Boston, MA**  
Boston downtown 중심에 위치  
Great potential to grow  
Jason Jeon 617-642-5670

### Business Consulting



**레스토랑  
셋업 컨설팅**  
SJ Park 617-304-7001

### Nail Salon



\$280,000  
**Burlington, MA**  
Near Burlington Mall  
운영 잘 되는 네일 살롱  
Anna Jung 617-780-1675

### Drop off Store



\$50,000  
**Wakefield, MA**  
Wakefield center에 위치한  
drop off store  
Jin Choi 617-877-0387

### Full Plant 세탁소



\$300,000  
**West Boylston, MA**  
고정 손님 많고 잘 운영되는  
풀 플랜트 세탁소  
낮은 운영비, 좋은 수입  
Jason Jeon 617-642-5670

### Drop off Store



\$60,000  
**Concord, MA**  
Located in a busy shopping-  
mall close to Concord center  
Jin Choi 617-877-0387

### Clothing Store



\$100,000  
**Mattapan, MA**  
안정적인 수입  
모든 inventory 포함  
Jason Jeon 617-642-5670

### Cafe



\$250,000  
**Boston, MA**  
Cafe w/ 프로즌 요거트,  
버블 티, 아이스크림  
Anna Jung 617-780-1675

### Deli



\$99,900  
**Chelsea, MA**  
Amazing Deli with  
lottery, cigarette, ATM for sale  
Anna Jung 617-780-1675

### Grocery



Ask agent for price info.  
**Allston, MA**  
1100 sf.  
Hot Business Spot  
Anna Jung 617-780-1675

### Jewelry Business



\$74,990  
**Natick, MA**  
좋은 위치, 잘 운영되는 비즈니스  
New owner를 위한 training 제공  
Michael Yun 617-459-5985

### Investment

**E-2 & EB-5 투자**  
문의 781-259-4989

### Full Plant Cleaner

\$100,000  
**Weymouth, MA**  
잘 운영되는 비즈니스  
Jason Jeon 617-642-5670

### Convenience Store

\$120,000  
**Worcester downtown**  
Great business potential  
Won T. Ra 617-642-3156

### 병원 건물 렌트

**Worcester**  
3000 SF.  
SJ Park 617-304-7001

### Full Plant Cleaner

\$200,000  
**Middleton, MA**  
Middleton mall 내 위치  
Jason Jeon 617-642-5670

### 커머셜

**커머셜 건물 투자**  
SJ Park 617-304-7001

### 비즈니스 빈자리

센트랄 sq., 하버드 sq.  
올스톤, 뉴튼 센터  
**비즈니스 빈자리**  
SJ Park 617-304-7001

### APT Rental

보스톤 아파트 전문가!  
가격, 지역, 방 갯수 등 원하시는  
조건에 맞추어 찾아 드립니다.  
David Kim 781-956-0409



나원태  
617-642-3156



Steve Yoo  
617-386-3451



신보경  
508-361-6064



Claudia Lee  
617-817-사구팔구



이현주  
401-935-3397



Gina Choi  
978-866-3248

최고의 실력과 탄탄한 경력을 갖춘 에이전트들이  
여러분을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 지금 곧 전화하세요 !!!

**보스톤 한국콜택시**  
Boston Hankuk Jonghap Service, LLC

- 공항 픽업/관광 ● 소형 이삿짐/카지노
- 미니밴/승용차 ● 쇼핑물(아울렛 물)

**617.461.9270**

# 한인업소록

Korean Business Directory

이민법 전문 변호사



스티브 서

비자 / 영주권  
투자이민/취업이민  
Lawcity7@gmail.com

www.Stevesuh.com

**617-877-3435**

Vol 10, No.38 September 26 2014

한인들과 함께하는 좋은 신문 Bostonkorean@hotmail.com

발행처 : The Boston Korea

161 Harvard Avenue, Suite 13, Allston, MA 02134 전화: 617-254-4654, 광고문의 전화: 617-775-8474

**한진택배**  
HANJIN EXPRESS  
보스톤 대리점

Tel 617.782.2424  
175 Harvard Ave St14A, Allston, MA

업소탐방 255

새로운 날 때 생기는 따뜻한 고운한 전골

## 압구정(Apgujung)

1114 Beacon Street, Newton Highlands, MA  
617-528-7888

선 가든 힐링센터

지압 침 기치료

617-953-4988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유대인 기자 = 날씨가 급세 추워졌다. 한국 사람이라면 이럴 때일수록 따끈따끈하고 얼큰한 국물이 생각나기 마련.

뉴튼에 위치한 한식당 압구정은 갈비와 직접 뽑는 냉면으로 시원한 여름을 보냈다. 쌀쌀한 계절을 맞아 이제는 전골과 찜, 찌개 등 한국인 뿐만 아니라 외국인의 입맛마저 사로잡는 메뉴가 단연 인기다.

20여년의 식당운영 경력을 갖고 있는 압구정의 리사 최(Lisa Choi) 사장은 건강하면서도 맛있는 요리를 만드는 것을 모토로 한다. 무엇보다 손맛 좋고 부지런한 주방장과 함께 일할 수 있어 다행이라며 기쁜 마음을 전했다. 실제로 압구정의 정갈하고 깔끔한 밑반찬은 모두 주방장이 직접 만들며 심지어는 김치까지 담근다고 한다.

전골의 종류로는 해물전골과 곱창전골이 있다. 푸짐하게 들어간 신선한 재료와 조미료를 사용하지 않은 시원한 국물을 테이블에서 직접 끓이는데 보글보글 끓는 소리와 맛깔스러운 비주얼에 절로 입맛을 다시게 된다.

갈비찜과 아구찜은 돌솥비빔밥, 불고기와 더불어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다는 인기 메뉴다. 아구찜을 외국인들이 좋아한다니 신기할 따름이다. 그만큼

맛있다는 의미가 아닐까 싶다. 얼큰한 순두부찌개와 매운 갈비탕은 가장 잘 나가는 메뉴로 단체손님이 열댓 명 들어와서는 전부 매운 갈비탕만 시키고 갈 정도로 인기가 있다고 한다.

곱창전골과 오징어볶음이 테이블로 올라왔다. 우동면, 떡, 두부, 버섯 및 각종 야채가 푸짐하게 들어있는 곱창전골에는 쫄깃쫄깃한 곱창이 양껏 담겨 나온다. 적절히 매콤하고 얼큰한 국물은 날씨가 추워지면 꼭 생각이 날 것 같은 한국의 맛이다. 오징어 볶음도 푸짐하게 접시에 담겨 나왔다. 싱싱한 오징어와 각종 야채가 매콤하게 볶아져 입맛을 돋운다.

압구정의 넓고 고급스러운 내부는 단체 손님을 받기에 아주 적합하다. 식사와 함께 즐길 수 있는 노래방 시설이 무료로 제공되어 회식이나 생일파티 등의 큰 모임을 갖기

에 좋을 듯하다.

식당 내에는 일반 바(full bar)와 스시 바도 구비되어 있어 다양하게 식사를 즐길 수 있다.

영업시간은 평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0시까지

“주님의 사랑으로 모든 이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살아 숨쉬는 한 가족 같은 사랑공동체에서 참 기쁨과 평화, 영원한 생명을 함께 누리시길 바랍니다.

주일예배: 오후 12:30 담임목사: 최형락

**보스톤 사랑의교회**  
www.boston1vechurch.com  
1 Church St., Wakefield, MA 01880 (978)869-2596

보스톤 봉사회

의료보험안내  
무료세금보고

508-740-9188

코리아 여행사

617.267.7777  
1.800.473.1922

보스톤코리아 업소탐방

신청 방법:  
전화번호 617-254-4654  
bostonkorean@hotmail.com

오리엔트 여행사  
Orient Travel

781.665.0004

145 Main st Melrose, Ma 02176  
theorienTtravel@yahoo.com

CHOISIGNS & DESIGN

LED Sign, Channel Letter, Truck Lettering, Banner, Poster, Window Letter, Car Sign, Lighted Box, All Types of Signs.

간판 및 사인

617.470.1083  
e-mail choisigns@yahoo.com

장 음식 주문

- 김밥 및 떡 전문
- 생일잔치, 교회모임
- 돌, 회갑, 계모임 음식
- 대학교 파티, 결혼식
- 저렴한 가격
- 맛있고 풍부한 음식

Tel:781-648-0584

# 한인 업소록

## Korean Business Directory

한인들과 함께 하는 좋은 신문

# 보스톤 코리아

BOSTONKOREA.com

현재 한인업소록의 각종 전화번호를 업데이트 하고 있습니다. 혹 누락된 번호가 있으면 617-254-4654나 bostonkorean@hotmail.com으로 바로 연락 주십시오. 즉각 반영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긴급 주요 전화

가정폭력상담소(Ex. 33) 견인	617-338-2352
고등교육위원회	800-632-8075
고등교육정보센터	617-727-7785
공중위생국	800-442-1171
구세군	617-624-6000
국세청	617-536-7469
남서문의	800-829-1040
로간국제공항	617-976-6200
미아찾기	800-235-6426
백배지역	888-477-6721
보스턴공립학교	617-345-7958
보스턴수도	617-635-9000
보스턴시청	617-989-7000
보스턴총영사관	617-635-4500
사우스릭	617-641-2830
사회보장국	617-345-7958
성폭행	800-772-1213
성폭행	781-237-9110
성폭행	617-492-8300
시간문의	617-637-123
아동보호	617-748-2000
아동학대	800-792-5200
알코올/마약	617-445-1500
여성학대	617-248-0922
운전면허	617-351-4500
헬퍼	617-348-8500
자원봉사	800-522-8086
적십자	800-564-1234
전화신청 (Verizon)	800-941-9900
전화교정신청 (Verizon)	617-555-1515
택시	617-343-4475
AAA	800-222-4357
FBI	617-741-5533
MBTA	800-392-6100
NSTAR가스	800-572-9300
NSTAR 전기	800-592-2000
RCN케이블TV/전화	800-746-4726

### 한인회

뉴잉글랜드 한인회	781-933-8822
뉴햄프셔 한인회	603-767-1356
로드아일랜드 한인회	401-368-0467
메인 한인회	207-756-0092
버몬트 한인회	802-734-2521

### 주요 단체

국제철학자협회	978-407-7554
국제결혼자정신건강협회	603-889-8201
뉴잉글랜드골프협회	617-438-9763
뉴잉글랜드공공안전회	978-902-8305
NE교육자협회	978-394-3060
뉴잉글랜드문인협회	978-688-3137
뉴잉글랜드산악회	774-270-1948
뉴잉글랜드시인협회	508-962-2689
뉴잉글랜드교회협의회	978-394-3060
뉴잉글랜드해변대전우회	617-833-1360
대사추진위원회	603-894-5425
민주평통보통협의회	413-535-0916
보스톤 대한체육회	617-326-9009
보스톤산악회	978-569-3256
보스톤한미노인회	978-994-5490
재미과학기술자협회	857-998-7043
재향군인회	339-298-7187
세무인협회	508-826-5270
이북도도민연합회	978-514-3399
한인학교연합회	781-424-5269
FH한인경제인협회	401-481-4900
한국인양자(메인)	207-878-5652
6.25참전유공자회	978-725-9597
보스톤 한미예술협회	781-367-5993

### 동창향우동호회

건국대학교동창회	401-738-8735
경기고등학교동창회	508-995-7242
경기여고동창회	781-861-0437
경복고등학교	617-921-8799
고려대학교 교수회	617-795-1779
뉴잉글랜드산악회	774-270-1948
백악고등학교동창회	978-474-4780
보스톤 산악회	978-569-3256
보스톤한인사회관	617-789-4964
산사람	774-270-1948
서경대동문회	978-314-9620
서울고 동문회	617-792-2635
서울대학교동창회	978-821-9434
서울신학교동창회	
성균관대동창회	
영성중고등학교동창회	802-734-2521
이화여고동창회	508-541-6969
이화여고동창회	617-277-0730
이화여고동창회	978-390-1552
중앙대학교동창회	603-622-8883
강원대민회	617-875-1801
충청향우회	678-717-8800
한양대동문회	781-708-3160

### 건국

건국대학교동창회	401-738-8735
경기고등학교동창회	508-995-7242
경기여고동창회	781-861-0437
경복고등학교	617-921-8799
고려대학교 교수회	617-795-1779
뉴잉글랜드산악회	774-270-1948
백악고등학교동창회	978-474-4780
보스톤 산악회	978-569-3256
보스톤한인사회관	617-789-4964
산사람	774-270-1948
서경대동문회	978-314-9620
서울고 동문회	617-792-2635
서울대학교동창회	978-821-9434
서울신학교동창회	
성균관대동창회	
영성중고등학교동창회	802-734-2521
이화여고동창회	508-541-6969
이화여고동창회	617-277-0730
이화여고동창회	978-390-1552
중앙대학교동창회	603-622-8883
강원대민회	617-875-1801
충청향우회	678-717-8800
한양대동문회	781-708-3160

### 언론

보스톤코리아	617-254-4654
한인회보	781-933-8822
중앙일보(뉴욕)	718-361-7700
한국일보(뉴욕)	718-482-1111
Grapevine Times	781-548-9945

### 종교

가톨릭	
구세군	617-792-8780
그린랜드 연합감리교회	603-430-2929
글로벌 미션 보스톤교회	617-913-3074
나사렛사립교회	781-439-1840
뉴잉글랜드감리교회	617-969-0507

뉴튼 아름다운 교회	617-869-8159
갈보리교회	413-789-9888
구세군물론교회	617-792-8780
그레시안연합감리교회	203-459-8517
그리니치한인교회	203-861-1134
그린랜드연합감리교회	603-430-2929
나사렛사립교회	781-439-1840
내수아한인교회	603-888-8040
뉴잉글랜드감리교회	617-969-0507
뉴잉글랜드한미교회	413-567-9142
뉴튼 아름다운 교회	617-869-8159
뉴햄프셔감리교회	617-990-7619
뉴햄프셔장로교회	603-437-5134
뉴햄프셔한인교회	603-264-6799
라이코스교회	978-387-1115
라이스한인침례교회	508-926-8236
로드아일랜드성도교회	401-353-0983
로드아일랜드제일교회	401-944-0520
대생명의길장로교회	401-821-2311
메리 맥 교회	978-806-1363
목양교회	617-223-1690
무지개교회	207-774-1617
밀알한인교회	978-244-0691
렉싱턴 풍성한교회	617-953-0856
버클랜드 침례교회	617-864-5948
보스톤 국제교회	617-459-6479
보스톤 감리교회	781-393-0004
보스톤 사랑교회	978-869-2596
보스톤 사랑제일교회	978-844-2404
보스톤 산성교회	617-997-6165
보스톤 새생명교회	617-947-6765
보스톤 생명의 교회	978-777-1800
보스톤서부장로교회	978-578-6987
보스톤 성결교회	781-894-3958
보스톤 성령교회	781-275-8233
보스톤 소망교회	781-396-1004
보스톤시온성교회	978-758-4541
보스톤안식교회	781-279-3270
보스톤 온누리교회	781-933-7044
보스톤웨슬리장로교회	781-393-0004
보스톤 장로교회	508-435-4579
보스톤 제일교회	617-458-2733
보스톤 주님의교회	617-966-9608
보스톤 중앙교회	617-230-5004
보스톤필그림교회	857-636-9985
보스톤 한인교회	617-739-2663
보스톤 한우리교회	978-454-0454
보스톤한인연합교회	978-923-9581
북부보스톤감리교회	978-470-0621
비전교회	617-308-2391
새빛교회	781-652-0001
새우리살림교회	774-249-0022
선한목자장로교회	904-400-9386
성요한 교회	781-861-7799
순복음 보스톤교회	617-413-5372
스프링필드한인장로교회	413-789-4522
스프링필드제일교회	413-781-2477
시온감리교회	401-739-8439
아름다운교회	617-869-8159
안디옥 교회	978-534-3394
열방교회	617-620-3352
에이 어 벨렐교회	978-274-2369
엘리스 한인장로교회	413-549-6493
엘리스 시온교회	413-549-9200
우시 교회	508-799-4488
웨스트프론티어 교회	918-876-2815
임마누엘 연합교회	978-394-3060
자연교회	603-437-6151
존은영교회	978-930-6613
지구촌방주교회	434-382-9450
케임브리지한인교회	617-491-1474
케임브리지연합감리교회	781-861-3877
하버드 한인교회	617-770-2755
하버드 한인교회	617-441-5211

남궁연골프교실	978-474-4780
ABC골프	603-401-7990
최현주 골프 레슨	339-223-4700

### 공인 회계사

김양일 회계사	617-901-0707
김창근 세무사	781-935-4620
노성일공인회계사	781-863-2232
이현주 회계사	781-944-2442
이명원 회계사	617-455-8073
정진수회계사	508-584-5860
한미회계사	617-792-2355
한성회계사	617-283-7151

### 꽃

미스티화원	617-666-3116
데코플라워	617-875-0648
앤드슨꽃집	781-894-1843

### 금융/투자

인덱펀드(투영목)	617-777-2929
에이저 리	781-591-2722
이중수파니언스	617-799-6158

### 방송/에어콘/히팅

JK 플러밍	978-303-7000
Nirvana Air	508-473-3429

### 노래방

도레미노래방	617-783-8900
진 노래방	617-782-9282

### 도서관

뉴햄프셔한인도서관	603-644-1991
보스톤공립도서관	617-539-5400

### 당구장

울스트링당구장	617-782-0969
---------	--------------

### 동물병원

김문소 동물병원	978-851-3626
윤상재 동물병원	978-343-3049
제임스길 동물병원	978-658-5282

### 떡/진치/반찬

형제떡집	978-975-3303
장음식주문	781-648-0584
한아름	617-547-8723

### 미용실

가위소리	617-782-8111
그레이스킨케어	978-468-0039
그레이스킴클럽	617-331-1011
단오 헤어살롱	617-206-4560
뷰티룩 헤어살롱	857-284-3879
세리 미용실	781-676-7374
압구정동얼굴방	617-437-0378
웨스트민 헤어	508-734-0446
안디옥 교회	978-534-3394
열방교회	617-620-3352
에이 어 벨렐교회	978-274-2369
엘리스 한인장로교회	413-549-6493
엘리스 시온교회	413-549-9200
우시 교회	508-799-4488
웨스트프론티어 교회	918-876-2815
임마누엘 연합교회	978-394-3060
자연교회	603-437-6151
존은영교회	978-930-6613
지구촌방주교회	434-382-9450
케임브리지한인교회	617-491-1474
케임브리지연합감리교회	781-861-3877
하버드 한인교회	617-770-2755
하버드 한인교회	617-441-5211

### 돌상 대여

해피돌상	617-583-2339
------	--------------

### 방송국

엔티비보스톤사영국	617-650-6656
한국디지털위성	617-567-1346

### 변호사

김공식특허변호사/변리사	617-239-0839
김성국 변호사	781-438-6170
김성희 변호사	617-884-0002
김연진변호사	617-742-7707
김공식특허변호사/변리사	617-239-0839
김성국 변호사	781-438-6170
김성희 변호사	617-884-0002
김연진변호사	617-742-7707
박현중변호사	978-474-8880
성기주변호사	617-504-0609
스티브 서 변호사(미인법)	203-852-9800
워드랜드/엑커맨변호사	203-324-6155
장우석 변호사	781-712-1706
정선진변호사	617-230-0005
피터변호사	617-860-0171
JOHN DOWNEY 법률사무소	647-964-5809
STEVEN S. KIM 변호사	617-879-9979
Joy Lee 변호사	617-624-0292
Young Lee Danesh	617-367-4949

### 병원

가정의	
그레이스 김 가정의	978-475-5656
내과	
송민근	617-696-7600
허버드광(0재용)	617-421-2282
한서동내과	401-722-0305
산부인과	
최의웅산부인과	401-726-0600
이윤노산부인과	508-427-3000
소아과	
장경이 소아과	978-687-2119
심리상담	
배주은심리상담사	617-566-1055
심리상담	
양미아힐리리카운셀링	508-728-0832
인디안힐리리카운셀링	617-738-9622
재활의학	
가족돌리치료병원	781-365-1876
덕터스통증병원	617-731-1004
성진우정신건강전문	978-688-6999
주 남남 D.C.	617-230-4250
치과	
김동원치과	978-689-9363
김정규 치과	860-623-2601
브라이언치과	978-655-1583
신영목 치과	617-265-5606
안 치과	781-647-8000
엑셀퍼럴리덴탈	617-471-6970
이영원치과	508-987-8228
이요셉치과	781-431-7295
케임브리지덴탈	617-492-8210
케임브리지덴탈/파스	617-871-1482
퀸지치과	617-471-2184
퍼스트치스덴탈그룹	781-273-2233
프로스펙트덴탈그룹	617-576-5300
한은애정치과	781-894-1127
아이리덴탈	781-861-8978
ASHLAND FAMILY DENTAL	508-881-7272
장승현비치힐링덴탈	781-894-1470
전문치과	401-729-2711
기타	
메모리얼병원(병리)	203-330-8080
국제보석상	617-523-2553
메타판보석	617-298-6661
우리보석	781-272-2400
보험	
고영복(메트라이프)보험	978-646-3042
스티브(남술)김/뉴욕생명	617-538-7851
이민항 보험	781-325-3406
조종은 종합보험	781-255-1134
베스트치스인종합보험	617-782-8800
비디오	
나비스(촬영/편집)	617-756-5744
부동산	
가나안부동산(손득한)	617-290-0623
김중희부동산	978-866-7789
김현구부동산	617-694-0985
김현정부동산	617-388-8527
백영중부동산(뉴스타)	978-239-0141
송기백부동산	781-510-9924
송현미부동산	617-835-7664
손옥원부동산	508-737-8636
신한정부동산	617-947-6293
에이블부동산(채경)	617-868-2253
오성혜부동산	617-275-3109
이경혜부동산	800-867-9000
이정선	781-874-2087
이도경(condo & rental)	781-771-0047
정혜윤부동산(EXT.125)	603-770-3491
정윤숙부동산	617-236-8600
조현경부동산	508-249-5838
프루덴셜(이효숙)부동산	203-255-2800
프루덴셜(김종미)부동산	603-845-2138
시진관	
김아람 포토그래피	617-529-0427
나비스 스튜디오	617-756-5744
영스타디오	774-253-1800
생선가게	
매터팬시마켓	617

▶광고 마감: 매주 화요일 오후 5시(신문)▶수표 보내주소: Payable to: The Boston Korea 161 Harvard Ave, Suite 13 Allston, MA 02134

**사업의 시작은  
이경혜 부동산**

Tel 800.867.9000  
Cell 508.962.2689  
email: kayleebrokers@aol.com  
www.leebrokers.biz

**알뜰 나눔터 안내**

보스톤코리아는 2013년 5월 1일부터 새로운 알림광고 요금정책을 적용합니다. 보스톤 코리아 네이션 와이드 광고를 선택하시면 LA, 애틀란타, 뉴욕, 시카고, 애틀란타, 달라스, 시애틀 및 보스톤까지 총 미주 8개 지역의 오프라인 신문을 통해 광고를 동시에 내보내도록 합니다. 네이션 와이드의 광고는 총 5줄까지 가능하며 한 달 광고료는 \$50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N**은 보스톤 지역 외 네이션 와이드 광고임을 알려 드립니다. 만약 보스톤 지역 광고만을 원하실 경우 한 달에 \$30입니다. 결제는 그레딧카드로 하실 수 있으며 개인수표 또는 머니 오더 등을 보내주셔도 됩니다. 신문 광고 마감은 매주 화요일 오후 5시입니다. 보스톤코리아닷컴 광고는 신청 당일 업데이트 가능합니다.

**구인**

광고 문의 617-254-4654

**MANAGER/SUPERVISOR AT DRY CLEANING FACILITY**

Direct day-to-day assembly, delivery, and shipping department at a dry cleaning facility. Coordinate with Cleaning Department. LOCATION Brockton Mass. EXPERIENCE in Dry Cleaning business, good English, and references required. SALARY: Start \$13/hour for first 90 days, Negotiable, afterward based on demonstrated abilities. TO APPLY Fax application and resume to (888) 790-4171.

9/5  
참스포드 세탁소에서 카운터 보실 분(파트타임) 구합니다. T. 781-738-2627

4989 부동산매매는 **뉴스나부동산**  
617-969-사구팔구  
www.newstarrealty.com

9/12  
세탁소에서 프레스하실 분 구합니다. 드라이와 셔츠 각 1명 (N. Andover) T. 978-273-6000

9/26  
뉴튼 네일가게에서 일하실분 구함. 자격증 소지하신 분/취득하실 분 환영 T. 617-678-4780

8/29  
체스넛힐 레드망고 주방 보조 하실 분 구합니다. T. 617-795-0376

8/29  
렉싱턴 입주 베이비시터 / 가사도우미 구합니다. T. 617-340-9624

**Looking Korean interpreter**

Looking for an experienced certified Korean interpreter. Certification should be from a qualified program, would prefer experience but will consider new certificate holder. Must be able to interpret in a variety of community settings. As an independent contractor you can set your own hours and earn an above average hourly wage. Please send your resume to susan\_kelliher@ccab.org or call 617-464-8122. Immediate openings.

**사고 팔고**

광고 문의 617-254-4654

**Boston HTPC**

데스크탑, 랩탑PC 수리 맥북, 아이맥 수리 및 윈도우설치 각종 데이터 복구 및 백업 인터넷 연결 및 공유기 설치  
**TEL 617-645-8885**

**룸렌트 및 매매**

광고 문의 617-254-4654

8/22  
Restaurant for Sale  
Arlington Center on Massachusetts Ave.  
T. 617-480-7090

8/29  
우번 방렌트, 유틸리티 포함 \$500 T. 781-910-4433

4/25  
**N[매 매] 가게 - 1**  
그린빌 사우스 케롤라이나에 위치한 2개의 핸드폰 가게를 매매 합니다. 가게 1 \$49,000(인벤토리 포함) Multi carrier (pageplus,tmobile,gosmart,h2o)에 boost 딜러쉽 있습니다. 트레이닝 가능. 매상 월 \$14000, 순수익 월 \$3000 렌트 월 \$1000 T. 864-505-5784 (Kim)

4/25  
**N[매 매] 가게 - 2**  
가게 2, \$49,000(인벤토리 포함) Multi carrier (pageplus,tmobile,gosmart,h2o) 에 Boost 딜러쉽 있습니다. 매상 월 \$13000, 순수익 월 \$3000 렌트 월 \$500 새주인에게 verizon,Sprint,metro,cricket의 LTE 전화기를 pageplus 로 플래싱 하는 기술도 같이 전수해 드립니다. T. 864-505-5784 (Kim)

6/13  
**N[구인]**  
한식당주방장과 부주방장 구합니다 작은 동양 마켓안 한식당 주방장과 보조 각 1명씩 더 모집합니다 현재 주방장 보조 서빙 2명 디시워셔 하시는분 일하고 있음 식당테이블 17개 주 6일 근무, 주일은 쉽니다(인수가능) Warner Robins GA I-75 EXIT 160근처 T. 615-714-8016

6/13  
**N[구인]**  
도라빌 지역 보험회사 여직원 구함 자격요건 : 영어, 한국어 가능하신 분. 시간 : 9am-5pm Mon-Fri T. 770-458-9001

6/13  
**N[구인]**  
우리들척추신경원에서 여직원을 구합니다. 오랫동안 일을 같이 하실분을 찾고 있습니다. 이메일로 resume를 보내주세요. Accidentrecoverycenter5460@gmail.com

6/13  
**N[구인]**  
돌루스에 위치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오래 함께 일하실 여직원을 찾습니다. 한국어와 영어에 능통하고 취업에 결격사유가 없으신 분은 이력서를 eun@eparklaw.com 로 보내주시면 연락 드리겠습니다.

**Get Educated. Do More.** CLASSES STARTING SOON! 888.873.5082

CSI is the perfect choice when it comes to studying in the United States. CSI is ranked by SEVP as one of the top five F-1 and M-1 approved schools with the largest population of international students. Whether you are trying to apply for a student visa or transfer from another school, CSI can help.

**CSI가 다른 학원들과 다른 특징 ?**

- 저렴한 학비
- 인턴십을 통한 CTP획득 기회
- 영어 프로그램 공식 여름 방학
- 국제 학생입학 : 해외 학생들의 비자변경, 학교 편입을 도움

ESL Programs - \$3600 per year  
English Programs - \$4200 per year  
Skill Building Programs - \$4700 per year  
\*Books and supplies not included in tuition

**COMPUTER SYSTEMS INSTITUTE**  
esi.csinow.edu

**CAMPUS LOCATIONS**  
Chicago • Skokie • Lombard • Gurnee • Elgin  
Charlestown/Boston • Worcester

Computer Systems Institute is approved by the Division of Private Business and Vocational Schools of the Illinois Board of Higher Education and is authorized under federal law to enroll nonimmigrant alien students. Student visa and work authorization are issued to those who qualify. For more information about our graduation rates, the median debt of students who completed the programs, and other important information, visit our website at: http://www.csinow.edu/about/calconsumer-information. Program offering varies by campus. Tuition prices effective as of 5/1/14.

## 서태지, 해피투게더 출연 확정 단독게스트 형식 진행

(서울=뉴스1) 온라인팀 기자 = 가수 서태지가 KBS2 예능프로그램 '해피투게더' 출연을 확정지었다.

23일 서태지의 소속사인 서태지컴퍼니 측은 "서태지가 '해피투게더'의 출연을 확정지었다"며 "정확한 녹화와 방송 날짜는 조율 중이다"고 밝혔다.

서태지가 출연하는 '해피투게더'는 4-5명의 게스트를 초대해 집단 토크 형식으로 진행되던 기존 포맷과는

달리 서태지를 단독 게스트로 초대, 유재석과 서태지의 단독 만남으로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 관계자는 "서태지의 출연을 위해 '해피투게더'의 13년 역사상 최초로 국민 MC 유재석과 국민가수 서태지의 1:1 토크라는 파격적인 편성을 시도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가수, 국민 MC의 만남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많은 화제를 불러일으킬 거라 예상된다. 1972년생 동갑내기이자 한 아이의 아빠라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어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는 분위기 속에서 녹화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한편 서태지는 10월 18일 서울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서 컴백 공연 '크리스탈로윈' 공연을 개최한다.

서태지 해피투게더 출연 확정 소식에 누리꾼들은 "서태지 해피투게더 출연 확정, 완전 기대된다", "서태지, 신비주의 이미지 완전 벗어버리네", "서태지 해피투게더 출연 확정, 정말 파격적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suyoung0403@news1.kr



## 이상순 존박, 김동률 6집 앨범 피쳐링 참여 '기대만발'

(서울=뉴스1스포츠) 온라인팀 기자 = 이상순 존박이 김동률 앨범에 지원사격했다.

김동률은 지난 24일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정규 6집 '동행' 수록곡들을 선공개했다. 백, 청춘(feat.이상순), 내 사람, Advice(feat.존박), 그제 나야, 퍼즐, 내마음은, 오늘, 그 노래, 동행 등 10곡이 담겨있다. CD 아트웍은 디자이너 아케하(김지현)가 제작했으며 수록곡 'Advice'와 '청춘'에는 각각 존박과 이상순이 피쳐링으로 참여해 주

목을 받았다.

김동률 소속사 측은 신보 소개를 통해 "'동행' 앨범의 노랫말들은 하나의 시와 같다. 김동률은 유행어나 속어는 배제한 채 가사의 운율을 맞추고, 노래마다 시작부터 끝까지 명확한 흐름과 완결성을 가진 이야기를 썼다"며 "초반 30초가 지루하면 외면받는 시대에, 김동률은 멜로디에 대중의 귀를 억지로 끌기 위한 장치를 하지 않는다. 대신 어디 하나 허술하지 않은 작곡과 편곡으로 노랫말의 이야기를 정확

하게 전달한다. 멜로디는 길고, 소리는 어느 것 하나 빼놓을 수 없을 만큼 섬세하다. 온전히 한 곡을 감상하면, 김동률이라는 한 사람의 마음을 온전히 들여다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소개했다.

한편 김동률은 오는 26일 오후 2시부터 고양(11월29일~30일, 고양아람누리극장)과 전주(12월6일~7일, 한국소리문화의전당)에서 열리는 전국투어 콘서트 추가 티켓 오픈을 시작한다.

lee1220@news1.kr



## 뉴스룸 손석희 "직책 때문에 혼자 부각, 나도 구성원일 뿐"

(서울=뉴스1스포츠) 온라인뉴스팀 기자 = 뉴스룸 손석희가 겸손한 모습으로 주위의 귀감을 샀다.

방송인 손석희는 22일 오전 11시 서울시 중구 순화동 JTBC 사옥에서 열린 '뉴스룸'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보도국 사장이라는 직책 때문에 내가 많이 부각된다"고 말을 했다.

그는 "내가 맡은 책임이 더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일 수는 있지만 나도 구성원 중 하나일 뿐이다. 나 혼자만의 '뉴스룸'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뉴스룸'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자, 편집자, 영상기자 모두 다 뛰어야만 한다. 우리 구성원이 다 같이 하는 것"이라며 "혼자만 부각되는 것에 대해 부담스럽고 실제와 맞지 않다.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있겠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고 덧붙였다.

누리꾼들은 "뉴스룸 손석희 어떤 진행 보여줄지 기대된다", "뉴스룸 손석희 제대로 된 뉴스 기대하겠다", "뉴스룸 손석희 날카로운 진행 기대된다", "뉴스룸 손석희 100분 동안 하는 뉴스 과연 재밌을까"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JTBC '뉴스룸'은 '한 걸음 더 들어가는 뉴스'를 표방하며 선택과 집중 전략에 희생됐던 다양한 뉴스를 함께 담아낸다. 8시대는 속도감 있는 진행으로 그날의 뉴스를 정리하고, 9시대는 주요뉴스를 돌아보는 앵커브리핑과 인터뷰, 심층 취재, 토론 등을 통해 시청자들과 뉴스를 들여다보는 깊은 시각을 유지할 예정이다. 22일 오후 8시 첫 방송.

reddgreen35@news1.kr



## 연애의 발견 윤현민, 여성 시청자들이 인정한 최고의 발견

(서울=뉴스1스포츠) 권수빈 기자 = 연애의 발견 윤현민이 주목받고 있다.

윤현민은 최근 방송 중인 KBS2 월화드라마 '연애의 발견'(극본 정현정, 연출 김성윤 이응복)에서 어린 성격에 누구보다 의리와 배려심이 넘치는 헌성한 성형외과 전문의 도준호 역을 맡아 안정된 연기력을 보여주고 있다.

극 중 윤솔(김슬기 분)과의 긴장감 넘치는 러브라인이 본격적으로 부각되기 시작하면서 도준호의 유치하면서도

귀여운 질투, 윤솔을 위한 배려심 넘치는 모습 등이 인기를 끌며 여성 팬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뮤지컬 '김종욱 찾기'로 데뷔한 윤현민은 JTBC '무정도시'에서 의리남 김현수, KBS2 '감격시대'에서 냉철하지만 일편단심 사랑을 품은 아오기, tvN '마녀의 연애'에서는 여심을 울리는 쾌활하고 헌성한 용수철 역을 맡아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영화, 드라마 등 다양한 작품에서 러브콜이 이어지며 주목받는 배우로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 한주간



# 시청률 순위

2014년 9월 15일 ~ 9월 21일



1위  
MBC 주말드라마  
왔다! 장보리  
33.5%



2위 KBS2 주말연속극 가족끼리 왜 이래 25.7%



3위 KBS1 일일연속극 고양이는 있다 20.5%

- 4 KBS2 일일드라마(빠꾸기둥지) 20.3%
- 5 MBC 주말특별기획(마마) 17.8%
- 6 KBS2 해피선데이 16.8%
- 7 KBS1 KBS9시뉴스 15.1%
- 8 MBC 일일특별기획(엄마의정원) 15.0%
- 9 SBS 아침연속극(청담동스캔들) 13.6%
- 10 MBC MBC아침드라마(모두다김치) 13.2%

\* 한국 TV KBS, MBC, SBS를 월 \$34.99에 볼 수 있는 앤TV (617-955-9112) 지금 신청하세요!

## 한주간 흥행 차트 순위 10

- 01 신촌을 못가 포스트맨
- 02 독기 아이언
- 03 예뻐졌다 박보람
- 04 I Swear 씨스타
- 05 공허해 WINNER
- 06 연결고리#힙합 Bobby
- 07 한여름밤의 꿈 San E, 레이나
- 08 가드올리고 Bounce Bobby
- 09 Holler 소녀시대
- 10 내가 네게 소녀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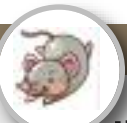
## 숫자 퍼즐 (Sudoku)

	5	4	2	7			8	
7			5			1		6
				4			2	
		9					1	2
		6				7		
1	3					6		
	6			9				
9		7			5			8
	1			8	6	4	7	

9월 28일 - 10월 4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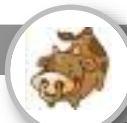
# 재미로 보는 주간 운세 지문 철학원

www.askjiyun.com  
213-739-28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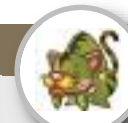
### 쥐띠 | 빈 잔이 되어야 다시 채울 수 있듯이

● 운수: 자신을 위해서 모든 시간이 멈춰져 있을 수 없는 것처럼 언제까지나 기회가 기다려주지 않을 것입니다. ● 금전: 사람을 믿지 못하는 것은 슬픈 일이지만 손해를 줄만한 사람이 등장할 수 있으니 잘 모르는 사람은 경계해야 하겠습니다. ● 애정: 빈 잔이 되어야 다시 채울 수 있듯이 사람의 마음도 깨끗이 정리해두어야 새로운 사람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84, 72, 60, 48, 36년생은 30, 4일 길일, 29, 2일 주의.



### 소띠 | 성공에 한 발짝 다가가는

● 운수: 성공이란 단어는 아무에게나 붙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공에 한 발짝 다가가는 계기가 생길 것입니다. ● 금전: 과거에 뿌렸던 씨앗이 어느덧 자라서 열매를 잘 맺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수확할 일만 남았습니다. ● 애정: 소개를 받는 자리가 있으면 마다하지 말고 만나세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좋은 상대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85, 73, 61, 49, 37년생은 1, 4일 길일, 30, 3일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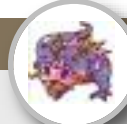
### 범띠 | 방향 감각을 잃은 사람처럼

● 운수: 방향 감각을 잃은 사람처럼 어디로 가야 할지 혼돈스럽기만 합니다. 어느 한 쪽으로 정하기가 어려우니 잠시 보류하도록 하세요. ● 금전: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따라가다가 구멍이에 빠지기 쉽습니다.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따라가다가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 애정: 정리를 해야겠다는 마음은 가지고 있으면서도 막상 행동으로 옮기지 못해 갈등만 커집니다. 86, 74, 62, 50, 38년생은 29, 2일 길일, 1, 4일 주의.



### 토끼띠 | 서로의 생각의 차이가

● 운수: 알찬 내용도 중요하지만 포장도 중요합니다. 보기 좋은 곳으로 손이 먼저 가기 마련이니 신경을 써야 하겠습니다. ● 금전: 다소 억울한 상황이 되기 쉽군요. 지금까지 애쓴 것에 대한 결과가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 애정: 서로의 생각의 차이가 크다는 것을 실감하면서 함께 가기가 어렵다는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87, 75, 63, 51, 39, 27년생은 28, 3일 길일, 2, 4일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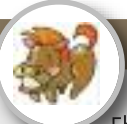
### 용띠 | 가면 갈수록 통한다는 느낌이

● 운수: 사소한 것 같은 말투 하나에도 정감이 있으면 이왕이면 좋은 쪽으로 해주려고 하기 마련입니다. 말 한마디로 인해서 여러모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금전: 큰돈을 벌 수 있는 찬스가 오고 있습니다. 돈이 될 만한 것이 눈에 띄게 될 것입니다. ● 애정: 처음에는 잘 어울리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통한다는 느낌이 듭니다. 88, 76, 64, 52, 40, 28년생은 28, 4일 길일, 30, 3일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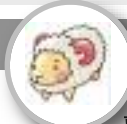
### 뱀띠 |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 운수: 이동이나 변화를 하기에 좋은 시기입니다.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변화를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 금전: 매상이 옵니다. 영업장소에 빈자리를 찾기 힘들 정도로 사람들이 뿔뿔하게 자리를 채우니 신이 나서 일하게 됩니다. ● 애정: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동안 미처 신경을 써주지 못했던 것들을 해줄 수 있게 됩니다. 마음의 빔을 덜어낸 것처럼 출가분해됩니다. 89, 77, 65, 53, 41, 29년생은 2, 3일 길일, 28, 4일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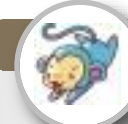
### 말띠 | 미래에 집중해야

● 운수: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알게 된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하세요. ● 금전: 당장 눈앞의 이익만 따라가지 마세요. 앞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미래에 집중해야 훗날에 많은 것을 얻게 됩니다. ● 애정: 자신이 얼마나 힘든지 적극적으로 표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속으로만 쌓아두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병만 됩니다. 90, 78, 66, 54, 42, 30년생은 28, 3일 길일, 29, 2일 주의.



### 양띠 | 이미 얻은 것에 만족하고

● 운수: 구태여 사서 고생하는 힘든 길을 선택하기보다는 평탄하고 쉬운 길을 찾아서 가는 것이 삶의 지혜입니다. ● 금전: 이미 얻은 것에 만족하고 더 큰 욕심을 부리지 마세요. 더 욕심내면 이미 가진 것도 잃게 되기 쉽습니다. ● 애정: 상대가 원하는 대로 다해주는 것보다 최소한의 섭섭하지 않을 정도로 마음을 써주어야 합니다. 틈틈이 애정 표현도 해야 하겠습니다. 91, 79, 67, 55, 43, 31년생은 29, 2일 길일, 30, 3일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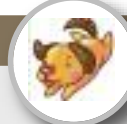
### 원숭이띠 | 고속도로를 달리듯이 시원하게

● 운수: 운이 상승세를 타면서 좋아지고 있습니다. 막혔던 일이 풀리면서 고속도로를 달리듯이 시원하게 진행이 될 것입니다. ● 금전: 충분한 만족을 줄 수 있는 결과와 이익이 따릅니다. 그동안의 기다림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 애정: 등잔 밑이 어둡다고 합니다. 가까이에 이렇게 좋은 사람이 있는데도 모르고 있었다는 새로운 발견을 하게 됩니다. 92, 80, 68, 56, 44, 32년생은 30, 4일 길일, 28, 1일 주의.



### 닭띠 |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 운수: 스스로 주어진 상황에 만족하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것을 해내도 허무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 금전: 다 남비입니다. 몇 번 쓰지도 않을 것을 비싼 돈을 주고 살 수 있으니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구입해야 합니다. ● 애정: 친구에서 연인사이로 발전하는 것보다 연인사이에서 친구사이로 돌아가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할 정도로 더 힘든 것입니다. 93, 81, 69, 57, 45, 33년생은 30, 1일 길일, 28, 29일 주의.



### 개띠 | 적합한 때를 만났으니

● 운수: 시작하기 전에는 꿈에 도전하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용기를 내면 하게 될 것입니다. ● 금전: 적합한 때를 만났으니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여줍니다. 매매나 계약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 애정: 편하게 얘기를 할 곳이 필요하던 차에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만날 것입니다.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이야기보따리가 펼쳐집니다. 94, 82, 70, 58, 46, 34년생은 28, 2일 길일, 30, 3일 주의.



### 돼지띠 |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 운수: 더디게 가는 사람을 이해해 주어야 합니다. 개인차에 따라 어떤 이에게는 쉽지만 어떤 이에게는 어렵지만 한 것입니다. ● 금전: 금전적인 부락을 거절하는 것이 당장은 편치 않지만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길게 보면 서로를 위해서 좋습니다. ● 애정: 모두들 너무 바빠서 함께 모여 식사하기가 어려웠던 가족들이 모처럼 모입니다. 기분 좋은 대화도 오고갑니다. 95, 83, 71, 59, 47, 35년생은 29, 3일 길일, 30, 1일 주의.

## '나의 사랑 나의 신부' 신민아 "배우자에게 큰 환상 바라면 상처 남아"

(서울=뉴스1스포츠)장아름 인턴 기자 = 배우 신민아가 결혼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신민아는 24일 오후 2시 서울 성동구 행당동 CGV 왕십리에서 열린 영화 '나의 사랑 나의 신부'(감독 임찬상) 언론시사회에서 "영화를 보면서 느낀 건 연애와 결혼은 남남에서 가족이 되어 가는 과정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결혼은 역시 사람과 사람의 인간 관계인 것 같고, 배우자에게 큰 환상을 바라다면 상처가 남는 것 같다"고 털어놓았다.

신민아는 '나의 사랑 나의 신부'에서 애교 넘치고 사랑스럽다가도 잔소리를 퍼부을 때는 있던 정도 떨어지게 하는 영민(조정석 분)의 아내 미영 역으로 등장한다.

'나의 사랑 나의 신부'는 1990년 이명세 감독의 동명의 영화를 리메이크한 영화다. 누구나 한번쯤 고민해봤을 결혼을 소재로 다룬 로맨틱 코미디 영화로 4년간 연애 끝에 이제 막 결혼한 영

민과 미영의 스토리를 담았다. 조정석, 신민아, 윤정희, 배성우, 라미란, 서강준 등이 출연한다. 내달 8일 개봉.

aluem\_chang@news1.kr



## 손담비 "데뷔 초 신비주의 콘셉트, 대기실 사용도 안해"

(서울=뉴스1스포츠)이경남 기자 = 손담비가 신비주의 콘셉트로 오해를 샀던 일화를 공개했다.

손담비는 25일 밤 11시 10분 방송된 KBS2 '해피투게더3'에서 "데뷔 초 신비주의가 심했다"고 밝혔다.

손담비는 "미쳤어"로 활동할 당시 대기실도 안 쓰고 바로 차에 가서 있었다. 회사 방침이었다. 나도 불편했다"고 말했다. 이에 '연예가중계' 리포터로 활약 중인 김생민은 "당시 취재하기 어려웠다. 성격이 까칠한 줄 알았다"고 오해했던 사실을 털어냈다.



lee1220@news1.kr

## 조인성 김민희 결별 억측 자제 부탁, 공효진 의식?

(서울=뉴스1스포츠) 온라인뉴스팀 기자 = 조인성 김민희가 결별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성경과 김기방이 조인성, 공효진과 함께 이태원에서 포착돼 눈길을 끈다.

지난 23일 조인성과 공효진은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카페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자리에는 SBS 드라마 '괜찮아, 사랑이야'에 출연했던 배우 김기방과 이성경도 함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포착되고 하루 뒤인 24일 김민희 측은 이날 불거진 결별설에 대해 "바쁜 일정으로 자연스럽게 결별하게 됐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에 전날 조인성과 공효진이 만남을 가진 것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

이들은 '괜찮아, 사랑이야' 종영 기념 태국 포상 휴가를 다녀온 뒤 조인성의 동생이 운

영하는 카페에서 조출한 뒷풀이를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 소식에 누리꾼들은 "조인성 김민희, 결별 소식 정말 하필 공효진, 이성경, 김기방과 만났네", "조인성 김민희 결별, 여기 공효진, 이성경, 김기방까지"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star@news1.kr



## 이성경, 꽃다발 셀카 "사랑해요, 고마워" 누구 향한 메시지?



(서울=뉴스1스포츠)윤한솔 기자 = 이성경이 꽃다발 셀카를 공개했다. 배우 이성경은 최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사랑해요, 고마워. Happy" 라는 글과 함께 사진 두 장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 속 이성경은 선물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꽃다발을 들고 환하게 웃고 있다. 생일을 맞아 누군가로부터 선물을 받고 기뻐하는 모습으로 보여진다. 한편 이성경은 최근 종영한 SBS 드라마 '괜찮아, 사랑이야'에서 오소녀 역으로 조인성, 공효진, 이광수 등과 함께 호흡을 맞췄다.

hs0514@news1.kr

# 천지보살

운명사주궁합신점

전화예약 617-947-6799

전화로도 상담해드립니다

## "광고는 영화다"

동영상 광고 전문제작 유튜브 / TV / 모바일

Nabis Studio  
6177565744  
ozic@hotmail.com  
17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이벤트사진, 여론사진, 그래픽디자인 서비스

## 김원태 건축사

Registered Architect (MA & NY) • NCARB • CDT • LEED AP  
MA REALTOR® • MA Licensed Real Estate Salesperson

# 건축 & 시공

15년 이상의 전문적인 경험  
매사추세츠와 뉴욕 건축사 전문 라이선스 보유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교 건축학과 졸업  
기획 · 설계 · 허가 · 시공 · 관리  
각종 건물 신축 · 증축 · 개축  
We can Design Build Buy Sell your home!  
상용건물 · 콘도 · 주택 · 사업체 매매 도와드립니다  
otk212@gmail.com 617.620.8242

# <김씨의 뿌리(14)>

## 한무제의 신하들



김은한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역사문제연구소 연구위원



양관에 있는 장건의 동상

중국 사람들은 역대 황제 중에서 5명의 명군(名君)을 꼽고 있다.

진시황제, 한무제, 당태종, 강희제, 건륭제가 다섯 황제인데 이 중에서 3명을 뽑으려면 진시황, 한무제, 강희제를 선택하고 최고를 선택하려면 주저 없이 한무제를 선택한다.

그 이유는 흉노에게 조공을 바쳐가면서까지 굴욕적인 화친을 강요당했던 한나라가 그의 52년 치세 때에 흉노와 40년에 걸친 전쟁에 승리하여 흉노를 물리치고 중국 천년 사직의 입지를 다져 놓았기 때문이었다.

그의 치세 때에 한나라의 영토가 제일 넓었고, 그의 치세 때에 실크로드를 통해 비로서 서역과 중국간의 교류가 시작되어 서역과 페르시아, 로마에 중국이 알려지게 되었다.

보편적인 잣대로 평가하면 그는 분명히 중국의 영웅이었다.

하지만 그의 야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그의 백성, 신하들이 치른 희생은 너무나도 엄청난 것이었다. 중국의 인구가 절반으로 줄어들었다는 것이 이를 대변해주고 있다.

목숨을 내걸고 흉노와 싸워 공을 세운

장군 이광, 이릉, 위청, 이광리는 가족까지 멸문지화를 당하거나 숙청되었다. 그는 죽을 임시에 “집은 황제가 된 후 분별없고 도리에 어긋나는 일을 많이 하여 천재에 근심을 더해 주었다. 오늘부터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재물을 낭비하는 일은 모두 중단하겠다” 는 말로 백성들에게 사과했다.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그가 하는 말이 선해진다” 는 말은 한무제를 두고 하는 말인 듯하다. 어찌되었든 한무제는 중국인들에게는 명군으로 추앙 받고 있는 영웅임에 틀림없다.

영웅의 등장에는 능력 있는 인재들이 따라오기 마련이다. 한무제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었다.

반고(班固), 반소(班昭) 남매가 저술한 전한서(前漢書)에는 전한(前漢: 東漢) (BC202-AD23) 때 활약한 48명 인물들에 대한 열전(列傳) 기록이 수록되어 있다. 48명 중 13명이 한고조 유방의 신하였고 23명이 한무제 유철의 신하들이었다는 사실은 한무제가 인재를 발탁하는데 특출한 노하우가 있었다는 얘기다.

그는 귀천이나 신분, 종족을 가리지 않고 능력 위주로 등용하였다. 예를 들면 흉노를 무찌르는데 결정적 수훈을 세운 위

청, 광거병은 미천한 계급 출신들이었다. 김일제의 경우는 흉노인이었지만 노예의 신분에서 발탁하여 황제 다음가는 2인자의 지위까지 수직 상승하는 파격적인 대우를 해주었다.

한무제는 인재들을 적재적소에 활용하는 데는 도가 튼 사람이었다. 흉노와의 40년 전쟁에서 그는 한번도 황궁을 나와 전쟁에 참여한 적이 없었다. 다만 그는 흉노를 대적할 장수들을 선택할 따름이었고, 그들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 사기(史記)의 저자 사마천은 어느 시대의 풍습이나 사회를 이해하려면 역사서를 읽어볼 것을 권유하고 있다.

역사서 중에서도 역사적 사실을 년, 월, 일 순으로 기록한 연대기(年代記)보다는 제왕의 역사를 기록한 본기(本紀)와 신하와 인물들을 기록한 열전(列傳)을 읽을 것을 권장하였다. 사마천의 권유에 따라 사기와 한서(漢書)에 기록된 한무제 시대의 신하 중 흉노와 관계된 몇 사람과 동중서, 장건열전을 소개하고자 한다.

1) 동중서(董仲舒)

그는 한무제, 무제에 이르는 시기에 유학의 대가였다. 그는 천인삼책(天人三策)이란 상주문을 무제에게 올려 군왕이 지켜야 할 도리를 지적하여 주었다. 3책의 첫 번째는 천인감

老上單于)에게 패하고 국왕이 죽임을 당하였는데 노상선우가 대월지 왕의 해골을 술잔으로 사용하는 야만적인 행패를 저질렀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

대월지 왕이 흉노에게 복수하기 위해 힘을 합쳐 흉노를 쳐 부술 동맹국을 찾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는 대월지국에 갈 사신으로 뽑힌 사람이 장건이었다. BC138년 장건은 흉노사람 감부(甘父)의 길 안내를 받으며 100여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출발하였지만 흉노 영내에 들어서자마자 붙잡혀 구금되었다.

그렇게 10년이 흘러갔고, 흉노는 장건을 회유하려고 장건에게 아내를 주고 득남까지 하게 되었다. 하지만 장건은 대월지국에 가려는 뜻을 굽히지 않고 탈출하여 대월지국에 마침내 도착하였다. 그러나 지난 10년 사이에 대월지국의 사정이 완전히 바뀌어있었다.

그들의 생활이 안정되어 그들은 더 이상 흉노와 싸울 필요가 없어졌고, 멀리 떨어져 있는 한나라와 동맹을 맺을 의사가 전혀 없었다. 장건이 돌아올 때는 흉노족의 영향력이 미치는 지역을 피해 남쪽 길을 택했으니 지금 신장의 아르칸트, 호탄, 콰질릭을 거쳐 강족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들어가다 다시 흉노에게 잡혀 1년이나 구금되었다.

마침 흉노간에 내란이 있어 아내와 조수 감부를 데리고 도망쳐 장장 13년간의 고행을 끝내고 장안으로 귀환하였다.

BC119년에 한무제의 청으로 장건은 기련산, 돈황 일대에 있는 오손에 사신으로 가게 되었다. 오손에 도착한 후 장건은 부사신들을 대완, 강거, 대월지, 페르시아, 신독(인도) 등에 보내 외교 활동을 펼치게 하였다.

가장 멀리 다녀온 사자는 로마제국과 아프리카 북부에 이르렀다.

장건은 귀국한 후에 세상을 떠났지만(BC114) 장건이 개척한 길을 통해 중국의 사신들은 1년에도 10여 차례

씩 서역을 다녀오게 되었다. 포도와 개자리, 석류, 호두, 참깨, 후추, 오이, 마늘 등은 장건이나 사자들이 서역에서 가지고 온 것이라고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와 일본에 전해진 것은 물론이다.



흉노, 한 대월지 지도

응(天人感應)으로 옳은 마음으로 일하면 하늘도 응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군권신수(君權神授)는 군주의 권력은 하늘이 내리신 것이라는 것이다. 세 번째는 천견론(天譴論)으로 군주가 잘못하면 하늘이 꾸짖는다는 것이다.

동중서의 천인삼책은 한무제 뿐만 아니라 후세에 이르기까지 군왕들이 지켜야 할 통치철학의 기본이 되었다. 동중서는 한무제의 스승으로, 그가 은퇴한 후에는 의논할만한 큰일이 생기면 사람을 보내 동중서의 의견을 물었다. 그는 사기의 저자 사마천의 스승이기도 했다.

2) 서역으로 가는 Silk Road를 개척한 장건(張騫)

한나라 때 옥문관(玉門關), 양관(陽關: 지금의 감숙성 둔황) 서쪽에 있는 광활한 땅, 즉 지금의 신장과 중앙 아시아 일대는 서역(西域)이라고 불렀다.

그곳에는 36개나 되는 많은 나라들이 있었는데 대부분 흉노의 통제 하에 조공을 바치고 있었다. 이로써 흉노의 경제력이 강화되니 흉노와의 일전을 준비하고 있던 한무제는 흉노로부터 서역을 떼어 놓을 방책에 골몰하게 되었다.

마침 서역에 있는 대월지(大月氏)국이 흉노의 노상 선우(



예전 실크로드의 거점 양관

2014  
ReNEW

Revive the New England Wave

# 함께 걷는 사랑으로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십시오.” (벧전 2:21)

2014. 11/27 Thur - 29 Sat 2박3일 Thanksgiving Holidays  
@ DoubleTree by Hilton Hotel in Danvers, MA

### Speakers

- + 오대원 David E. Ross 목사, Ellen Ross 사모 (한국예수전도단 설립자)
- + 송병주 목사 (LA 선한청지기 교회 담임)
- + 민영기 목사 (전 사랑의교회 대학부 담당)
- + 백소영 교수 (이화여대 기독교사회윤리학)
- + 서명구 교수 (Univ. of Maryland 경영대학원 교수, CBM 공동대표)
- + 최영환 대표 (NGO 엠트리 대표)
- + 김도현 교수 (Colorado Christian University 신약학)
- + 정일재 선교사 (전 파푸아뉴기니 성경번역선교사/위클리프선교회)
- + 김재원 (아나운서)
- + 김종원 목사 / 하신주 선교사 (미주 INTO 청소년 훈련학교 대표) / Youth ReNEW 강사 (Korean translation to English)

ReNEW는 대학, 청년, 청장년을 대상으로 하는 집회입니다.

집회 기간중 0-2세 영아를 위한 Nursery 공간이 마련되며, 자녀들을 위한 Kids ReNEW와 Youth ReNEW도 함께 진행됩니다.

등록비: 1차 등록 \$199/1인(4인 1실 기준, 호텔이용 및 식사비 포함)

등록/문의: [renewregister@gmail.com](mailto:renewregister@gmail.com)

ReNEW 2014 함께 걷는 사람들에 대한 더 자세한 인내는 ReNEW Homepage를 참조해 주세요.

[www.renewusa.org](http://www.renewusa.org)





## 한담객설閑談客說: 살얼음을 밟으라

김화옥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고등학교 국어시간에 배웠던가. 나옹선사 시조 한수다. 세상은 순리대로 사는 것이 마땅하다는 뜻일게다. 구름은 멀고 하늘 높은 보스톤 가을날 읽기에 적당하지 않다. 청산靑山은 나를보고 말없이 살라하고 창공蒼空은 나를보고 티없이 살라하네 욕심도 벗어놓고 성냄도 벗어놓고 바람같이 구름같이 살다가 가라하네 (나옹선사)

한 달여 기다려야 할데지만, 보스톤에도 곧 눈과 얼음이 닥칠게다. 지레 얼음을 떠올리며 생각해 하는 사자성어가 있다. 여의박빙如履薄氷. 눈어에 나오는 말인데, 시경詩經이 원전이란다. 살얼음을 밟듯 한다는 뜻이다. 말이나 행동이나 몸이나 모두 조심하라

는 해석이다. 한국군 사성四星장군이 불미한 일로 전역했다. 장군님은 충청도 괴산이 고향이라던가. 양반마을인 거기서 고등학교를 나왔다. 군인으로 별넷에 천정을 쳤다. 별무게에 어깨가 무거웠을테니 개천에서 용이 난게다. 시골고향 모교에서 한참 자라는 후배들에게 좋은 말씀 한번 해달라 했다. (이건 내가 안다. 내 친구가 고등학교장인데, 그가 초청강사 모시는 일에 열성이다. 아이들에게 한마디라도 좋은 말 들려주려 말이다.) 바쁜 시간을 쪼개서 내려갔을 게다.

고향인심은 남다르다. 강연후 밥 한끼 대접하는 건 마땅하다. 학교 동창들과 선후배들은 손목을 잡았을 터. 바쁘다는 핑계로 그냥 돌아선다면 '싸가지' 없다고 욕을 먹을 수

도 있다. 점심식사에 반주가 있었을 게다. 여러잔이 겹쳐서 권하는데 마냥 사양할 수 없는바. 좋던 분위기 썰렁케 할 수는 없다. 현대, 어처구니 없는 일은 높아진 시민의식 눈높이를 깜빡 했다. 더욱 엄격해야 할 몸가짐이 대낮술에 흔들렸으니 말이다. 술은 급하게 화장실을 볼렀고, 덕분에 가까운 장수 하나를 잃었다. 몸가짐을 마냥 살얼음판 위를 걷듯 조심해야 했다. 그건 아쉽다.

한국 유명 정치인을 동료 정치인이 평했다. '그 사람은 옳은 말도 싸가지 없이 말한다.' 싸가지란 말은 씩수란 말의 사투리라 던가. 오히려 암체없고 간죽이는 것처럼 들린다. 말은 알밋고, 다정스럽지 않다. 주는것 없이도 괜히 미운 것처럼 말이다. 요사이 싸가지 없는 말들이 창궐한다.

한국에선 무슨 대책위원회 간부들이 무더기로 사퇴했다. 대리운전기사와 시비가 원인이다. 집단폭행 사건인데, 때린 사람들이 오히려 다쳤다고 주장한다. 대리운전자를 부른 걸 보니 다시 술이 죄다. 술과 밥을 산 국회의원 나리는 '내가 누군지 아느냐' 일갈 했다던가. 국회의원은 대단한 벼슬인 모양이다. 그런데 말은 싸가지 없다. 벼슬이 닭벼슬이 아니길 빈다. 주먹질과 싸가지없는 말에 살얼음은 쉽게 깨질진저. 여의박빙如履薄氷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누가 21:34)

## 신영의 세상 스케치

466회

### 다시 오지 않을 그 순간, 찰나의 그 느낌...

찰나, 스치고 지난 시간은 다시 오지 않는다. 그것은 당연한 얘기이고 바꿀 수 없는 진리이고 이치이다. 그래서 더욱 안타깝고 아쉬운 일인지도 모른다. 계절과 계절의 색갈에서는 언제나처럼 잠시 나를 돌아보게 한다. 계절만큼 정직한 것이 어디 또 있을까. 파가운 가을별 아래 오가는 바람따라 익어가는 들녘의 곡식들과 들꽃을 보면 어찌 그리도 자연의 이치에 순응하며 잘 자라는지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때로는 사람만이 그 자연의 이치에 순응하지 못하고 벗어나려 발버둥치며 역행하는 것은 아닌지 하고 깊은 생각에 머물 때가 있다. 특별히 이 가을의 길목에서면 더욱이 그렇다.

자연을 좋아하는 편이라 시간이 허락되면 산으로 들로 망아지처럼 뛰어다니는 버릇은 지천명을 오르는 나이에도 변함이 없다. 곁에서 늘 지켜보는 남편은 아내인 내게 늘 철없이 살아 늙지 않는 모양이라고 걱정없는 것이 걱정이라는 말을 건네온다. 가끔은 그 말에 수긍은 하지만, 나는 데 별 불편함 없으니 또 이렇게 흘러가는가 싶다. 이제는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하루라도 줄어든 데니 웬만하면 다른 이에게 얼굴 붉히거나 불편한 관계를 만들지 않고 살면 최선의 삶이

고 최고의 인생이지 않을까 싶다. 굳이 버거운 일들을 일부러 만들 필요가 뭐 있겠는가.

휴대가 몹시도 그리운 날에는 카메라를 들고 산과 들과 바다를 찾아 들꽃들과 들풀들을 만나고 나즈막이 흘러든 물과 흙이 하나 되는 갯벌을 돌아오면 가슴 속이 훑 훑이는 것이다.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 어찌 힘들지 않고 거저 거두는 것이 그 하나라도 있을까 말이다. 마음에 드는 사진 하나 만나기 위해 몇 날 며칠을 새벽을 쫓아 땀방울 하길 열마인지 모른다. 길 가다 문득 좋은 풍경을 만나면 새 한 마리 날아들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길 얼마였는지 모른다. 참으로 고마운 것은 그 새벽 시간 들락거리며 오가는 것을 마다하지 않고 이해해주는 남편이 고맙기만 하다.

아마도 기억으로 2011년도의 어느 하루였을 게다. 지나는 길에 바닷가 근처의 조수간만의 차를 밀어주고 당겨주는 작은 호수 같은 곳을 만났던 것이다. 그렇게 인연이 되어 그곳에 자주 찾아가곤 했다. 새벽에도 찾아가고 비오는 날에도 찾아가 보고 계절이 바뀔 때마다 그렇게 한 번씩 찾아가는 곳이 되었다. 이제는 그곳에 가면 마음의 쉼을 얻고 내 엄마 품처럼 편안하고 평안한 장소가 된

것이다. 그렇게 2011년 어느 새벽의 이른 아침에 그곳을 찾았다가 마음에 드는 안갯속 풍경을 몇 담아왔었다. 그리고 그 몇의 사진은 글을 쓴 후 글과 어울리는 영상을 올리는 소재로 가끔 쓰곤 했었다.

이번 2014년 9월 20부터 10월 5일까지 열리는 KCSB 2nd Annual Exhibition(보스톤 한미예술협회 제 2회 협회전)에 사진 하나를 출품하게 되었다. 보스톤에서 활동하고 있는 서양화가, 동양화가, 조각가, 도예가 그리고 사진가 등 여러 예술인(작가분)들이 모인 자리인 만큼 더욱 작품에 대한 선정이 조심스러웠다. 아직도 부족한 모습이지만, 2011년도에 한국사진작가협회 작가 회원 등록이 되어 쉬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고 부지런히 뛰며 지금까지 활동에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곁에 그림을 하는 지인(화가)이 있고 친구가 있어 작품 활동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고받는 것이다.

그렇게 몇 년 전 담았던 사진을 이번 협회전에 등록하게 되었는데, 아뿔싸! 아무리 찾아도 원판파일을 찾을 수가 없는 것이다. 아무리 이리저리 생각하고 떠올려도 도대체 찾을 길은 없고 마감 날짜는 다가오고 막막하기만 했다. 그래서 같은 장소에 같은 시간대

와 날씨를 감안해 찾아가 보았다. 하지만 몇 년 전 담았던 그 풍경은 다시 담을 수도 없거니와 만날 수도 없는 것이다. 아무리 똑같은 장소라 할지라도 그때의 그 느낌을 지금의 그 어떤 풍경의 느낌으로도 채우지 못하는 것이다. 그 지난 시간의 그 순간, 찰나의 그 느낌을 만나려고 몇 날 며칠을 그곳을 찾았었는지 모른다.

기어코, 몇 날 며칠 사진파일을 뒤적이다 원판파일을 찾게 되었다. 어찌나 고맙고 감사하던지 그 어떤 보물을 찾은 것보다 더 기쁘고 값진 것이었다. 이렇듯 사물들 속 만나서 풍경들을 작은 렌즈에 담다 보면 또 하나의 새로운 세상을 경험한다. 그 순간의 찰나를 놓쳐버려 안타깝던 마음에 몇 날 며칠을 끙끙거리던 기억들 그리고 다시 만날 수 없어 아쉽고 그 아쉬움이 그만 그리움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다시 만날까 싶어 그 장소에서 몇 날 며칠을 서성거리보기도 하고 낯간 사람처럼 멍하니 하늘을 올려다보기도 한다. 어찌, 이 세상에 공짜가 있겠으며 또 어찌 노력하지 않고 쉬이 얻기를 바랄까.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기]로 등단, 한국[전통문화/전통춤] 알림이 역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skyboston@hanmail.net

# '나' 보다 '우리'가 되는 We are Bene Family

가맹점주님과 하나가 되어 꿈을 키워가겠습니다



카페베네 본사 인테리어고문  
나장수 디자이너

브라질 이파네마 커피 농장  
산 페드로 씨

뉴저지 카페베네  
데이비트 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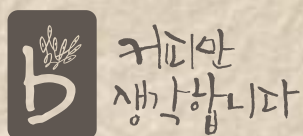
맨하탄 카페베네  
트레이시 씨

일본 하네다 공항 카페베네  
바리스타 켄지 야마다 씨

## 카페베네의 Family가 되실 미주 카페베네, 가맹대표님을 모십니다

\*Plan Caffebene  
카페베네 패밀리가 함께하다

뉴욕에 1호점을 낸 이후 계속해서 그 성장을 멈추지 않는 카페베네- 작은 커피전문점의 꿈을 넘어 세계 글로벌기업을 꿈꾸는 카페베네의 가맹대표님이 되어보세요. '나'보다는 '우리' 를 먼저 생각하는 카페베네가 점주님들의 성공을 이끌어 가겠습니다.



**카페베네 가맹대표님 모집**  
미국 내에서만 현재 100여 개 이상의 매장이 오픈 준비중입니다

**1.888.963.9672**  
[www.caffebeneusa.com](http://www.caffebeneusa.com)





**백영주의 부동산 따라잡기**  
Direct (617)-921-6979  
E-mail: clarapaik@newstarrealty.com

# 렌트 주택 판매시 주의 사항

부동산 성수기가 되면서 2-3년 전에 주택에 투자한 주택 소유자들이 이익 실현을 위해 주택을 대거 시장에 내놓기 시작했다.

그동안 겪었던 매물 가뭄이 좀 해갈됐고 이전 바이어들도 조금은 다양한 매물로 인해 느긋하게 쇼핑을 할 수 있게 됐다.

그런데 투자 매물들이 시장에 나올 때 보통 세입자가 살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때문에 이런 매물들을 거래할 때에는 집 주인이 살고 있는 주택을 살 때보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셀러와 바이어 모두 주의를 해야 한다. 자칫하면 복잡한 법적 문제를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부동산 시장 조사 기관에 의하면 최근 빈집으로 판매되는 매물 보다는 세입자나 집주인이 살고 있는 주택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2년 전에는 차압이나 숯세일 매물 등 빈집으로 파는 주택들이 많았었는데 최근까지 약 30%나 빈집 판매가 줄어들었다고 한다.

특히 세입자가 사는 매물 비율이 급격히 늘었는데 클로징이 되었는데도 주택을 비어주지 않아 종종 법적 분쟁이 발생한다.

만약 셀러로서 세입자가 살고 있는 주택을 팔고자 할 때에는 미리 충분한 시간을 두고 테넌트에게 주택을 판매할 것이라고 고지를 한

다. 만약 세입자가 1년 미만을 해당 주택에 살았다면 30일 노티스를 줘야 하고 1년 이상을 살았다면 60일 노티스를 주어서 주택을 비어달라고 요청한다. 이 경우들은 lease가 없을 때를 말한다.

대개의 경우 매매기간 동안 주택이 비게 되면 주택 소유자가 손해가 나므로 이때에는 서로 합의를 해서 집을 파는 기간 동안 임대료 할인 등 인센티브를 주어서 서로 협력하는 것이 좋다. 주택을 보여줄 때 내 집처럼 잘 보여주고 깨끗하게 관리하도록 주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계약에 들어가게 되면 세입자가 새로 이사할 매물들을 빨리 찾을 수 있도록 서로 돕는다. 보통 클로징이 종결되기 1-2일 전에는 세입자가 집을 비어야 하기 때문에 클로징 진행 사항을 중간에 미리 알려주도록 한다.

한편 바이어로서 주택을 구입할 때 클로징이 되었는데도 세입자 또는 집주인이 집을 비우지 않아 골치를 앓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럴 경우 일단 이사를 가지 못하는 이유를 확인하고 불가피하거나 단기간일 경우에는 주택 거주 기간 동안 날짜 계산해서 비용을 내도록 계약을 맺을 수 있다.

그러나 의도적으로 퇴거를 하지 않는 경우

에는 빨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강제 퇴거 절차를 받는 것이 좋다.

세입자가 퇴거를 하지 않아서 물질적인 손해를 입었다면 셀러에게 계약 위반을 들어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클로징 후 단기간 셀러가 거주를 하기를 원한다면 클로징 종결 전에 미리 렌트 계약을 맺어 분쟁의 소지를 없앤다.

이때 셀러가 바이어에게 렌트로서 내야 하는 비용은 바이어가 내야할 원금, 이자, 프로퍼티 텍스, 보험, 관리비등을 날짜 계산해서 내는데 이를 렌트백(Rent Back)이라고 한다.

종종 셀러가 자기 집을 팔고 이사 나갈 집을 동시에 구매할 때 많이 쓰는데 짧게는 3-4일에서 길게는 약 한달 정도 렌트백을 한다.

부동산 계약서에 보면 'Time is of essence' 라는 문구가 있다. 즉 계약에 있어서 정해진 기간에 약속을 이행하지 못해 상대방이 물질적인 손해를 받게 되면 손해 배상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특히 클로징이 되어 이사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어야 서로 행복한 거래가 된다. 상식적으로 양보하고 미리 미리 준비해서 서로 이익이 되길 기대한다.

이 모든 사항은 오퍼를 할때부터 서로 정하고 움직이면 더 편안한 매매가 이루어 질 것이다.

항상 경험있고 유능한 에이전트를 쓰는게 매우 중요하다.

## 백영주

Clara Paik  
Principal Broker  
Boston New Star Realty Branch Owner  
New Star Realty & Investment  
Realtor, ABR., GRI.  
Multi-Million Dollar Sales Club, Top 25 Individual of 2006, 2007, 2008, Re/Max New England, Association of Board of Realtors, Massachusetts Association of Realtors, Boston Real Estate Board,  
Office 617-969-4989, 781-259-4989  
Fax 617-969-4959, 781-259-4959  
Cell 617-921-6979, 978-239-0141  
E-mail: clarapaik@newstarrealty.com  
Website: ClaraPaik.com & newstarrealty.com



## 화랑도(花郎徒)와 성(性) 그리고 태권도(跆拳道) 49 정조와 홍국영(洪國榮)(2)

박선우 (박선우태권도장 관장)

세손의 대리청정 3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다.

이런 가운데서 정조는 즉위하자마자 자신을 핍박했거나 홍국영을 죽이려 했던 흥인인과 정후겸 일파를 비롯하여 모조리 다 처단하였다. 이 옥사의 결과로 다음 해 홍간간, 홍계능 등이 자객을 내전까지 침투시켜 정조를 죽이려 했지만 홍국영의 도움으로 화를 면했다. 정조는 즉위와 동시에 홍국영을 승지에 임명했고 그 직은 그가 정계를 떠날 때 까지 가지고 있었다.79)

홍국영은 도승지에 임명되고 나서 노론의 김종수와 정이환과 함께 같은 노론(노소론 탕평파)의 흥인한, 정후겸, 윤양후, 홍계능 등을 사도세자에 대한 불경죄와 정조의 즉위를 방해했다는 죄목으로 추방하고, 다음에는 조제한 등 소론과 남인들을 제거하였으며, 그다음에는 정조의 장인인 흥봉한 일파를 정순왕후의 오라비 김귀주와 합세하여 제거하였다. 그리고 나서 그는 김귀주 마저 흑산도로 귀양을 보냈으니 조정은 그의 손아귀에 들어 왔으며, 소위 '홍국영과 같아지면 역적이 된다' 80)는 '세도정치' 의 서막을 올렸다.

그리고 홍국영은 정조의 정비 효의왕후가 후손이 없는 것을 틈타 1778년(정조2년) 6월에 13세의 자신의 누이 동생을 후궁으로 들이면 서 외척이 된다. 그가 원빈元嬪 흥씨이며, 이

는 인조대 이후 노론들이 자신들의 가문에서 왕비를 배출한 '전통' 을 그대로 답습한 것이다. 더 나아가서는 후계자까지 염두에 두면서 정국을 주도하였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원빈 흥씨는 이듬해 5월에 특별한 병명도 없이 죽고 만다. 그래서 홍국영은 정조의 정비 효의왕후를 의심하면서 중전의 나인들을 불러서 칼을 빼들고 독살의 증거를 찾기 위해 그들을 혹독하게 고문하였다. 그로 인하여 정조는 자신을 공격한 것과 마찬가지로 생각하였고, 왕실을 비롯한 조정은 홍국영의 잔인한 보복성을 지탄하면서 그는 모두의 적이 되었다.

정조의 즉위와 함께 동부승지에서 곧 도승지로 또 1777년에 새로 설치한 숙위소 숙위대장으로 대장패와 전령패로 거의 퇴궐도 하지 않고 궁궐에 머물렀으며 임금을 호위하는 숙위군사를 직접 통제하면서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다. 홍국영은 문신이었지만 수어사, 오영도총수위, 금위대장, 훈련대장 등 5개 군영의 대장을 맡았다. 훈척만이 맡을 수 있었던 호위대장엔 임명된 적이 없지만 모든 군사권을 장악하였다. 승승장구할 것만 같았던 그의 세도는 정조가 추구하는 정치체도를 이탈하면서 결국 임금의 통치방식에 근본적인 위협을 주었고, 왕후의 궁인들을 혹독하게 다룬 결과 정조를 비롯한 모든 이의 인심은 그를 떠나고 있

었다.

1779년 9월 홍국영은 32세의 나이에 은퇴 상소를 올리면서 명예롭게 정계를 물러나는 형식으로 정조는 그에게 '봉조하奉朝賀' 81) 라는 직함을 내려주었다. 일찍이 백발의 봉조하는 있어도 흑발의 봉조하는 없었다고 해서 그를 '흑두봉조하' 라고 불렀다.

79) 정조의 명에 의하여 편찬된 '명의록'에 보면 이 조치는 정조의 목숨을 구한 '의리의 주인' 으로서의 공로로 내려졌다고 기록했다. 또한 정조는 "경이 아니면 내가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 있겠는가!" 라고 자주 회상하곤 했다. 반면에 '한중록'에서는 홍국영이 눈치도 빠르고 얼굴도 예쁘고 재치 있고 민첩하여 나이도 비슷한 정조에게 생소하고 자잘한 세상 일상사를 고해 정조가 신기해 하며 그를 귀히 여겼다고 적고 있다.

80) 노론의 지도자 김종수가 자주 말했다고 하며 정조 즉위 초에는 정조가 많이 했다고 한다.

81) 전직 고위관리를 예우하기 위해 녹봉을 주는 명예직, 정사에 참여 하기도 하였으나 점차 권한이 줄어들어 각종 의식에만 참여하였고, 법이 바뀌에 따라 녹봉의 액수도 낮아졌다.



# 고국의 품에서 당신의 건강을 생각합니다

##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 **유방·갑상선센터**  
유방암수술, 재건, 성형
- **암통합케어센터**  
원스텝 진단에서 치료까지
- **자궁근종센터**  
수술없이 자궁근종 치료
- **심혈관·뇌졸중센터**  
심근경색, 뇌졸중, 24시간 진료
- **척추·관절센터**  
무릎, 어깨, 허리, 비수술 통증치료
- **내시경센터**  
위암, 대장암, 내시경 치료

**617-583-2993**  
www.newyjh.com



### 고국방문 건강검진

VIP 입원 종합검진 남: 200만원 / 여: 210만원  
 입원 종합검진 남: ~~80만원~~ 60만 / 여: ~~85만원~~ 70만원  
 당일 종합검진 남: ~~55만원~~ 45만 / 여: ~~65만원~~ 55만원

### 진료과목

소화기병센터, 자궁근종센터, 건강증진센터, 인공신장센터, 인터벤션센터, 영상의학센터  
정신건강의학센터, 유방·갑상선센터, 척추·관절센터, 암통합케어센터, 심혈관·뇌졸중센터  
이비인후과·비뇨기과, 재활치료센터, 응급의학센터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신영각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 人

## 합(合)

“아버지께서 내(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아버지(하나님)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That all of them may be one, Father, just as you are in Me and I am in You. May they also be in Us so that the world may believe that You have sent Me.” - 요한복음 17:21

9월 25일 박근혜 대통령과 UN(국제연합) 총회 기조연설에 대한 국내 여론평가는 상반됐다.

새누리당의 김현숙 대변인은 “박 대통령께서 평화통일과 북한 인권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세계적 과제로 공론화 한 것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이 동북아의 평화와 발전, 나아가 전 세계의 평화에도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부각 시켰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논평했다.

특히 UN 연설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최초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 언급은 아주 고무적이었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또 박근혜 대통령이 “전시 여성에 대한 성(性)폭력은 인권과 인도주의에 반(反)한다”고 밝힌 것을 언급. “전시 여성 폭력”이란 표현은 일본을 특정해 거명하지는 않았지만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지칭한 것이라고.

지금까지 어떤 대통령도 말 못했던 ‘위안부 문제를 언급했다는 자체가 위안부 문제 해결 없이 한일 관계 개선 없다’는 박 대통령의 굳은 의지 표현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박수현 새정치 민주연합 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이 평화적인 한반도 통일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고 계시다면서 ‘5.24 조치의 철회’와 ‘금강산 관광재개’부터 시행함으로써 확 마친 남북관계를 풀어야 한다”고.

박 대변인은 이어 “통일된 한(韓)반도가 새로운 동북아를 만들어 가는 초석이 될 수 있도록 5.24조치와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전향적인 결단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UN 창설 정신인 사람 중심과 인권을 여러 차례 강조하셨는데 참

잘한 일”이라며 “귀국하시는 길에서는 세월호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대해서도 같은 차원에서 심각하게 되돌아 보실 것을 촉구한다”고.

하지만 “5.24해제결의안”이 길일까? 중국 엔베주 훈춘(琿春)은 두만강 하구를 사이에 두고 북한 나진과 마주본다.

훈춘에선 러시아 국경 건너편 하산이고 하산에서 두만강 다리 하나 넘으면 다시 나진. 여기서 조금 더 동쪽으로 가면 시베리아 횡단 열차(TSR)의 종착역인 브라디보스토크다.

TSR로 6박7일이면 모스크바(Moscow).

이 두만강 하구, 북한, 중국, 러시아 삼각국 경지대는 꿈을 꾸기에 적합한 지역. 3국간 정냉경열政冷經熱의 개발 열기가 달아 오른다는 소식이 끊이지 않는다. 박근혜 대통령이 주장하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Eurasia Initiative) 서쪽 출발점을 염두에 둔다면 야당이 주장하는 5.24해제결의안은 재고의 여지가 있을 듯.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이 “스스로 핵(核)을 포기하고 개혁과 개방을 선택한 여러 나라들처럼 경제 발전과 주민의 삶을 개선하는 변화의 길로 나와야” 동서독(獨)이 합(합일)했듯이 “우리도 남북합(合)이 보인다는 것.”

북한과 국제사회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 권고사항 이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는 박근혜 대통령 연설 맨 앞 자리에 북한대표단이 자리하고 끝까지 지켜봤다.

박근혜 대통령의 기조연설 하루 전 9월 23일 UN 기후재정세션에선 공동의장인 박 대통령과 김용 세계은행 총재 그 자리고 반기문 UN사무총장 등 한국 사람이 나란히 의장단 석에 앉아 습의 눈길을 끌어 UN: United

Nations - 국제연합의 중심이 마치 한국 사람 습을 뜻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었던 것.

하여 박 대통령의 습에 대한 정연한 연설이 많은 공감을 부추겼을 수도 있었던 것.

동서독이 하나로 합해진 것을 직접 확인하고 그 주역들을 접견하고 돌아온 박근혜 대통령.

우리 한반도가 남북으로 갈라 두 나라로 등록된 UN총회에서 습해야 할 기회가 왔다고 믿듯이...

DMZ(휴전선) 우거진 풀밭이 남북을 갈르는 것 아니라 남북 사람들이 함께 모여 갈렸을 때의 회포를 풀어 놓는 습공원이 된다면!

습: 結 | 견신 - 합할 합. 結자는 糸: 細糸 가는 실 맥 자와 극히 작은 수(數) 사, 두 가지로 받음되고 여기에 古: 嘉祥 가상, ‘길할 길’ 자가 붙어 ‘좋은 것을 함께 묶는다’는 뜻이다.

하여 습자를 분석하면 ① 人: 사람 인 또는 ‘民也 민야’ : 백성 민과 ② 一: 하나 일 또는 하나님을 그리는 숫자로 표시되고 ③ 口: 人 所以言食, 입 구. 이를 해석하면 “人子 인자 예수님은 하나님(一) 아버지의 말씀(口)을 담고 있다”는 뜻이 습으로 표시된다.

이 글 머리에 인용했듯이 “아버지(하나님: 一)께서 내(人)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모든 인간들)도 우리 안에 (하나님과 인자 예수님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하나님)께서 나(예수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

“I in them and You in Me. May they be brought to complete unity to let the world know that You sent Me and have loved them even as You have loved Me.” - 요한복음 17:23

brought to complete unity to let the world know that You sent Me and have loved them even as You have loved Me.” - 요한복음 17:23

인자 예수님이 하나님과 관계된 것은 하나님 말씀에서 엮여진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나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 시니라: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and the Word was with God, and the Word was God. - 요한복음 1:1

그러므로 습은 곧 인자(人子) 예수님이 하나님이니 말씀 곧 사람들이 쓰는 언어(言語)속에 같이 계신다.

문제는 그리스도 예수님이 함께하는 말씀과 하나님 아들이 쓰지 않는 말씀이 함께 쓰여지고 있어서다.

전쟁의 위협을 동반하는 핵(核)무기를 쓰지 말자는 말과 쓰겠다는 말은 모두 인간이 쓰고 알아 듣는다. 같은 한국 땅이면서도 북쪽의 김정은 국방위원장은 핵을 계속 쏘면서 위협을 하지만 남쪽의 박근혜 대통령은 핵을 없애야 평화롭게 살 수 있다며 남북이 동서독과 같이 습치자는 주장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던 김정은의 할아버지 김일성 주석이 예수 말씀은 버리고 핵을 포함한 무력으로 남한을 공산화로 붉은 물 들이겠다는 것.

반대로 박근혜 대통령이 남북한을 습쳐 잘 살아 보자는 꿈을 UN국제연합을 통해 세계 회원국들을 권고했었다.

한 나라를 둘로 갈라 놓은 38선을 38습으로 새로 묶으면 독일보다 더 잘 살 수 있는 꿈이 금강산(金剛山) 보다 빛나게 해 주실 것이 습에 담긴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행복한 미소가 그리우십니까?  
1st 초이스가 고객님의 미소를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Special!

치아교정 무론상담  
(2013-11-11부터)

모든 진료를 편리하게 한곳에서!

- \*치아교정
- \*소아치과
- \*사랑니발치
- \*치아미백
- \*임플란트수술
- \*악관절(TMJ)
- \*보철/비니어
- \*수면진정마취
- \*신경치료
- \*3DX-Ray(CT 스캔)



1st.CHOICE DENTAL

IMPLANT • BRACES • COSMETIC

DENTAL

www.1cdental.com

11 Cambridge St. Burlington, MA 01803

H

마트에서  
5분 거리



DENTAL IMPLANT CENTER  
FIRST CHOICE DENTAL GROUP  
11 Cambridge St. Burlington, MA 01803

Dr. Jeong Sook Lee (장정숙 선생)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DDS/Ph.D Tufts School of Dental Medicine, DMD Harvard School of Dental Medicine. Practice limited to prosthodontics

Dr. Michael Kong (강철문 선생) University of Pennsylvania, DDS Harvard Dental Resident Practice limited to endodontics

Dr. Samuel Lee (이승우 선생) UCLA School of Dentistry, DDS Harvard Dental Resident Practice limited to perio, implant, & ortho

앤티비(enjoy & TV)가 티보 플레이(TBO Play)로 새롭게 도약합니다

더 좋은 서비스로 여러분께 보답하겠습니다



# Welcome, **TBO**

티보 개학기념 **학생할인**

# 폭탄세일!

# \$14.99

(2년 약정시)

## 학생 할인

2014년 9월5일-10월4일까지  
보스톤 코리아 티보가  
학생 여러분께 BIG 할인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정규가격 : \$34.99

### 1. 학생증을 보여주세요!

학생 할인  
\$14.99(2년 약정시)

### 2. 신분증을 보여주세요!

시니어 할인(65세이상)  
\$24.99(2년 약정시)

### 3. 티보 런칭기념 특별할인 연장!

10월 30일까지  
\$39.99 상품 개통으로부터 3개월간  
월 \$9.99으로 가격인하  
(2년 약정시, 3개월 후 \$34.99로 과금)

문의 및 연락처  
**보스톤코리아 TV 사업국**  
617.955.9112  
617.650.6656





이명원

공인회계사  
617-455-8073  
mwlee@kicpa.or.kr 또는  
tomwlee1125@gmail.com

# 양도소득세

## 미국 영주권 취득 후 2년 내에 한국 주택팔면 세금 안 내나?

J 비자를 소지하고 대학 연구원 자격으로 미국에 입국한 김한국씨는 미국에 거주하던 중 미국 영주권을 취득했습니다. 미국에 오기 전부터 보유하고 있는 한국의 아파트 한 채가 있는데, 이를 영주권 취득일로 부터 2년 내에 팔면 양도소득세를 안 내나요?

이번주는 취업이나 유학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하여 미국에 거주하던 중 미국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이 한국의 주택을 양도하면 한국과 미국에서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과세되는지 살펴보기로 합니다.

### 1. 한국에서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 안 낸

한국에서는 양도한 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1세대 1주택'이란,  
- 1세대가,  
-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합니다. 다만,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2년의 보유기간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①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로서 출국일로부터 2년(국외에 계속 거주하여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 하는 경우에는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②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로서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그럼 위의 내용을 김한국씨에게 적용해보기로 합니다.

첫째; 출국일로부터 2년 내에 양도하면? 김한국씨가 세대 전원과 함께 미국으로 출국한 날로부터 2년내에 한국의 아파트를 양도하면, 위의 ②의 규정이 적용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둘째; 출국일로부터 2년이 지나고 영주권 취득전에 양도하면?

출국일로부터 2년이 지나고 영주권 취득일 전에 아파트를 양도하면 위의 ①이나 ②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기간에 한국의 아파트를 양도하면, 한국에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셋째; 영주권 취득 후 2년 내에 양도하면? 미국에 거주하던 중 영주권을 취득하고, 그 영주권 취득일로 부터 2년 내에 한국의 아파트를 양도하면 위 ①의 규정이 적용되어 한국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넷째; 영주권 취득 후 2년 지나서 양도하면? 마지막으로 영주권 취득 후 2년이 지난 후 아파트를 양도하면, 위 ① 및 ② 어디에도 해당되

지 않아 한국에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 2. 미국에서는 'Main home'에 해당하면 일정금액은 비과세 됨

미국에서는 'Main home'에 대해서는 최대 \$250,000 (부부가 합산신고하는 경우 \$500,000)을 주택의 양도차익에서 차감해 줍니다. 즉, 이익의 \$250,000(또는 \$500,000)까지는 세금을 안 낸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main home이란 납세자가 주로 거주하는 장소로 양도일 현재 지난 5년의 기간 중 2년 이상 소유하고, 지난 5년의 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말합니다.

'Main home'에 대한 규정은 그 주택이 어느 나라에 소재하든 상관없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국에 있는 주택도 2년보유, 2년 거주 규정을 충족한 main home에 해당되면 그 양도차익에서 250,000(또는 \$500,000)을 공제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여기서 김한국씨에게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과세되는지 살펴보기로 합니다.

먼저, 김한국씨는 J비자를 소지한 연구원 자격으로 미국에 입국했기 때문에 일정기간은 nonresident alien입니다(exempt individual). 이렇게 Nonresident-alien에 해당하면 미국 외의 나라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미국에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따라서 김한국씨가 nonresident alien에 해당하는 기간 중에 한국

의 아파트를 팔면 그 소득에 대해 미국에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Exempt individual의 기간이 지나 김한국씨가 세법상 resident alien이 되면 전세계의 모든 소득을 미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한국의 아파트 양도소득도 미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양도한 아파트가 한국에서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더라도 미국에서는 세금을 내야한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이 경우 그 주택이 Main home에 해당하면 일정금액 공제가 가능함). 이때 한국에 낸 세금이 있다면 그 납부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3. 결론

이론적으로 김한국씨는 아래의 어느 하나의 기간 중에 아파트를 양도하면 한국과 미국 두 나라에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는 한국이나 미국 또는 일부는 한국, 일부는 미국에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 한국에서는 아파트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고, 미국에서는 그가 비거주자인 기간 동안에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

- 한국에서는 '1세대 1주택, 미국에서는 'main home'의 규정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기간에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



이명덕, Ph.D., Financial Planner  
&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RIA)  
Copyrighted,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세  
rights reserved  
www.billionsfinance.com  
248-974-4212

##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249)

# 방어투자의 필요성

화재, 홍수, 지진, 등은 있을만하면 나타납니다. 이러한 재해는 막을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지만, 준비는 할 수 있습니다. 꾸준한 연습과 대비책으로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일반 투자자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며 투자합니다. 그러나 주식시장은 개인의 간절한 희망과는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도 합니다. 현재 미국 주식시장은 네 번째로 가장 긴 상승기(64개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2009년 3월 이후 무려 220% 상승했지만, 주식시장은 끊임없이 오르고 내림을 반복한다는 사실을 역사가 보여줍니다. 이러한 시기에 보유하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재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 투자자는 대부분 돌아오는 수익에 대해서 많이 집중합니다. 뮤추얼 펀드를 선택할 때 먼저 고려하는 것이 과거 수익률입니다. 그러나 투자는 보상과 위험성(reward and risk)을 항상 동반합니다. 사실 수익 보다는 위험성을 먼저 고려하는 것

이 제대로 하는 투자입니다. 100불이 50% 하락하면 50불이 됩니다. 50불이 다시 50% 증가하면 75불뿐이 되지 않습니다. 100% 증가해야만 본전이 됩니다. 투자할 때 수익 보다는 투자 위험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투자 포트폴리오를 형성할 때 대개 주식과 채권을 이용합니다. 주식은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오르고 내림의 폭(Volatility)이 큼니다. 채권은 정해진 이자를 받으므로 큰 수익을 기대할 수는 없지만 움직이는 폭은 주식과 비교해서 상당히 적습니다.

1970년부터 2013년까지 주식과 채권을 보유할 때 수익률과 위험성이 어떻게 변했는지 함께 알아봅니다. 40여 년 동안 최대 폭락은 2008년 금융위기 때입니다.

- 1) 주식 100%, 채권 0%, 수익률 10.85%, 폭락 39%,
- 2) 주식 80%, 채권 20%, 수익률 10.33%, 폭락 30%,
- 3) 주식 50%, 채권 50%, 수익률

9.76%, 폭락 15%, 4) 주식 20%, 채권 80%, 수익률 8.85%, 폭락 4%.

주식보유가 적어지고 채권 보유가 많아질수록 포트폴리오의 위험성은 적어집니다. 이에 따라 수익률 역시 적어지지만, 위험성의 비율만큼은 아닙니다. 이것이 모던 포트폴리오 이론(Modern Portfolio Theory)이 면 이 논문으로 마코위츠가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습니다.

투자 포트폴리오의 폭락을 계산할 때는 떨어진 비율(퍼센트)로 생각하지 말고 실제 돈으로 계산해야 투자 위험성을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산 50만 불을 주식에 80%와 채권에 20%로 투자했다고 가정하고 새로운 금융위기로 맞았다고 합시다. 투자 폭락 비율은 30%지만 돈으로 계산하면 15만 불이 바람처럼 사라집니다. 나의 소중한 자산이 50만 불에서 35만 불로 줄었을 때 평상시처럼 잠을 잘 수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주식시장이 폭락할 때는 모든 미

디어(신문, TV, 라디오, 인터넷)는 순간마다 뉴스를 전합니다. 암울한 소식뿐입니다. 내일을 희망해 보지만 결과는 같은 내용입니다. 투자한 것이 후회막심입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결정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결국, 참지 못하고 팔고서 나옵니다. 실제 손실로 이어집니다.

은퇴가 30년 후인 젊은 친구들은 주식시장 변화에 상관없이 꾸준히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퇴가 가깝고 이미 은퇴한 사람에게는 이러한 포트폴리오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포트폴리

오는 주식시장 변함에 민감합니다. 마음도 함께 불안해 집니다. 일반 투자자는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견디고 주식시장에 남을 수 있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봐

야 합니다. 만일 그렇게 할 수가 없다면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해야 합니다.

상승하는 주식시장에선 주식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주식시장 재조정(Correction)이 온다고 예측합니다. 그러나 언제, 어떠한 방향으로, 얼마나 빠른 속도로 주식시장이 변하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사실 아이들 학자금, 노후대책, 등을 위한 투자는 주식시장 변화 예측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수익률보다 투자 위험성을 먼저 고려한 포트폴리오를 보유하시기 바랍니다.





# HAPPY 해피돌상

**고품격 전통상 대어 (백일상, 돌상)**  
한국보다 더 한국적인 품품한 전통상차림,  
소중한 내 아기에게 한국의 미를 보여주세요!  
**저렴하고 푸짐하게!**





- 품격을 더하는 화접도 현수막
- 다양한 수공예 소품들



- 엄마의 마음으로 만든 기저귀 케이크
- 국내산 용기접시와 찬기, 공기



- 화려하고 우아한 나비춃대
- 풍성한 상차림 세트





문의 [Happydolsang@gmail.com](mailto:Happydolsang@gmail.com)

# MAKI MAKI

브라이트 대형 스시 뷔페 | Japanese Sushi & Seafood Buffet



스시 외 다양한 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 5년 이상 경력의 샐러드 전문 요리사 (Cold dish chef)를 구합니다

마키마키에서는 편안하고 기억에 남는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언제나 노력하고 있습니다.

뷔페스타일(all-you-can-eat)의 식사뿐만 아니라, 한정된 기간 동안 주문식 스시

(made-to-order) 스타일의 식사를 새롭게 선보입니다.

주방장의 열정과 엄선된 신선한 재료로 만들어진 다양한 일식 및 중식 요리들을 경험해 보십시오.

**Lunch 10%**

성인 3명 이하, 한 테이블에 쿠폰 한 장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4명 이상은 정상가격)

다른 할인이나 쿠폰 중복 사용 불가 / 공유일 사용 불가

유효기간 : 2014년 10월 16일까지

**Dinner 15%**

성인 3명 이하, 한 테이블에 쿠폰 한 장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4명 이상은 정상가격)

다른 할인이나 쿠폰 중복 사용 불가 / 공유일 사용 불가

유효기간 : 2014년 10월 16일까지

Cannot combine with other coupon and other promotions  
Not valid on weekend and holiday



## 매일 행운 추첨 무료 저녁 식사

매일 처음 10번째까지 고객에게 무료 저녁 식사를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저녁식사 시간에 레스토랑에 오셔서, 안내데스크에 무료저녁식사 추첨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십시오. 10번째까지의 고객을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을 해서 매일 두분께 당첨의 기쁨을 드립니다. (12세 이상의 참가자에 한함)

행운을 빕니다!

### Lunch

11:00am ~ 2:30pm  
Mon~Thur \$17.75  
Fri~Sun, Holiday \$21.75

### Dinner

Mon~Thur: 5:00pm~9:30pm \$28.95  
Fri~Sat : 5:00pm~10:30pm \$30.95  
Sun, Holiday: 4:00pm~9:30pm \$30.95

# 617.783.1888

304 Western Ave. Brighton, MA 02134  
Makimakiboston.com

미국 유학 성공 가이드



**오승준 (Albert Oh)**  
SD Academy 원장  
SDAcademyOnline.com  
617-505-1852, 510-387-0735  
info@SDAcademyOnline.com

## 현실적인 대학 리스트 (2)

학생에게도 학교를 고를 권리가 있다. '합격만 시켜주면 어디든 가겠다'라는 마음 가짐으로 지원서를 쓰기 시작하면 안 된다는 뜻이다.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충분히 지원해주는 학교, 내 생활 패턴과 맞는 캠퍼스, 선택 가능한 교양 과목의 숫자, 인종 별 학생 비율, 지원 전공의 교수진 약력 등이 모두 학교 선택의 중요한 요소다. 스스로 지원하기로 마음먹은 만큼 내 리스트에 올라와 있는 학교에 애정을 갖고 있어야지, '불러주기만 하면', '되도 안 같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이면 지원을 고려할 필요도 없다.

나만의 지원 학교 리스트를 만드는 데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로,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스스로에게 이상적인 학교에 바라는 조건들을 미리 정해 놓고, 그 조건에 부합하는 대학교들을 검색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다. 예를 들어, 경영 전공을 고려 중이고, 조용한 시골 보다는 시끌벅적한 도시의 분위

기를 선호하는 학생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대학교에 진학해서는 Fraternity 활동도 해보고 싶고, 고등학교에선 경험해 보지 못한 스포츠 활동도 하고 싶다. 필수 조건이 어느 정도 정해졌으면 여러 검색 엔진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학교를 찾으면 된다. 가장 대표적인 대학 검색 엔진으론 CollegeBoard의 Big Future: College Search (<https://bigfuture.collegeboard.org/college-search>)가 있다. 사립이나 주립 대학교에 대한 선호도는 없다고 했으니 College Type에서 Public, Private을 모두 체크하고, Campus Setting에서 Urban을 체크한다. Major는 Business를 선택해 경영 전공이 있는 학교를 걸러낼 수 있도록 하고, Sports & Activities에서는 내가 참여하고 싶은 운동부와 Greek Life 선택지의 Fraternities/Sororities에 체크해 더욱 선택지를 줄인다. 이 정도만으로도 미국에 있는 4,000개 이상의 대학교 중에서 내가 원하는 조건에 딱 맞는 125개 학교를 골라낼 수 있다. 물론, 더 구체적인 조건을 붙여 그 수를 점점 더 줄여 나가는 것도 가능하다.

반대로 스스로 어떤 학교 생활을 기대하고 있는지 모를 때는 두 번째 방식을 사용하면 된다. 즉, 무작위로 고른 학교 리스트를 앞에 두고, 마음에 들지 않는 이유를 붙여 학교들을 제외 시키는 작업으로 리스트를 줄이는 방법

이다. 예를 들자면, '이 학교는 부모님과 너무 멀리 떨어져야 해', '이 학교는 유학생에게는 재정보조를 쉽게 해주지 않아' 라는 식으로 자신이 피하고자 하는 악조건을 하나하나 기록하는 것이다.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할지 모르는 학생이라도, 자신의 이상향을 찾는 것보다 마음에 들지 않는 요소를 찾는 것이 쉬운 경우가 많다. 하지만, 현실적인 학교를 고르는 작업이기 때문에 너무 옵션을 줄여버리는 것도 독이 될 수 있다. 무조건 종합 대학교만 고집한다면 지, 30위권 밑의 대학교는 모두 제외해 버리는 식보다는 합격 가능성을 따져서 안배를 하는 것이 나중에 득이 된다. 특히, SAT 등의 시험 점수도 합격률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최종 리스트는 조기 지원을 하는 학생이라면 10월, 정시 지원 학생이라면 11월 혹은 12월 시험의 점수가 발표된 후에 정하는 것이 좋겠다.

지원 학교 리스트를 모두 정하기 전에 자신이 고려 중인 학교를 방문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옷도 직접 입어 봐야 '핏'을 알 수 있듯이, 서류 상으로 보이는 숫자나 홈페이지, 학교 팸플릿 등 학교의 장점만 보여주는 관측물만 보서는 절대로 알 수 없는 요소들이 있다. 캠퍼스를 둘러보며 학교 도서관에도 들어가 보고, 학생 식당의 밥도 먹어보자. 교내 신문도 보고 교수진, 재학생들과 대화도 나눠 보면

서 이 대학에서 공부하는 자신을 상상해보는 것이다. 그런 후에 이 학교에 지원하기 위한 원서 수수료 \$75의 가치가 있는지 판단을 해보자.

많은 대학교 지원서의 추가 질문을 보면 "왜 우리 학교에 입학하고 싶은가?"라는 문항이 자주 나온다. 대학교 홈페이지 첫 페이지부터 내세우는 학교의 장점만을 나열하라는 것이 아니다. 해당 대학의 교육 방식을 통해 어떤 공부를 하고, 학교 생활에서 배운 경험을 토대로 어떤 인생을 살고 싶은지에 대한 현실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마음가짐을 보이는 것이 이 질문의 진짜 의도다. 지난 주 칼럼에서도 언급했지만 대학 진학에 진지한 학생이라면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대학 지원에 첫 걸음이다. 내가 지원하는 학교에 애정을 가지 되, 객관적이고 분별력 있게 합격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현명하게 리스트를 짜보자.

오승준 (Albert Oh)

Copyright (C) 2014.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승준 원장의 미국 유학 성공 가이드는 SD Academy 홈페이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칼럼 내용이나 상담, 수업에 관한 문의는 전화(617-505-1852) 또는 이메일(info@sdcademyonline.com)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준기 원장 교육 칼럼

## 하버드 대학교(Harvard University) 2

### 캠브리지, 보스턴, 그리고 하버드 캠퍼스 라이프

보스턴은 미국 역사이자 가장 최고와 최초가 많은 도시이다. 안전하고, 낭만이 있고, 품위와 권위가 느껴지는 도시이다. 보스턴과 캠브리지 사이로 찰스강이 흐르고, 강 주변을 따라 보스턴 대학교, MIT, 하버드 대학이 있다. 찰스강 주변에서 학생, 교수, 교직원들이 조깅하는 모습을 사계절동안 볼 수 있는 젊은 도시이자 미국 미래의 도시이다. 미국의 5개 인기 프로 운동 종목(레드삭스 야구, 셀틱스 농구, 뉴잉글랜드 풋볼, 보스턴 브루인스 아이스하키, 뉴잉글랜드 레벌루션 축구팀)이 있는 열정의 도시이기도 하다. 오랜 역사를 지닌 도시이면서도 구성원들이 젊고 활기차며 곳곳에서 책이나 신문을 읽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는 도시이다. 보스턴 주변에만 60개 이상의 대학이 있고, 주변 인구의 약 25%가 학생, 25%가 학교 관련 종사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즉 50% 이상이 학교 관련 사람들로 유동인구가 많고 교육열이 미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이기도 하다. 보스턴 시내에 거주 하는 경우에는 대중교통시설이 아주 잘되어 있어 자동차가 필요하지 않다.

하버드 학생들은 이런 환경 속에서 생활하며 공부와 리서치에 지친 심신을 달래기 위해 음악, 스포츠, 연극, 식당, 레저, 바(Bar) 등에

가기도 하고 주변 대학들과의 교류를 통한 다양한 경험을 하고 있다. 대체적으로 보스턴에서 오랫동안 거주한 학생들은 타주로 이주하기보다 보스턴 주변에 머물기를 원하기 때문에 보스턴은 고학력 명문 대학 출신들이 미국에서 가장 많이 있는 도시이다. 하버드 주변 하버드 스퀘어(Harvard Square)에는 다양한 국가의 식당들과 많은 호텔들이 있다. 주말이면 하버드 대학 주변에 있는 메모리얼(Memorial drive) 도로를 차단하여 학생들이 자유롭게 학교 기숙사와 주변 거리에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다. 학교 주변 분위기와 관련하여 타대학들과 비교해 보면 천국같은 곳이 하버드 주변 분위기이다.

하버드는 여러 개의 캠퍼스로 분산되어 있다. 메인 캠퍼스, 래드클리프(Radcliffe) 캠퍼스, 롱우드 메디컬 센터(Longwood Medical Center),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 그리고 하버드 케네디 스쿨(Harvard Kennedy School)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대한 캠퍼스로 주로 학부생들은 메인 캠퍼스에서 거주하며 공부를 한다. 신입생들은 기숙사에서, 2~4학년 학생들은 하우스 시스템(House System)에서 거주한다. 신입생들은 총 16개의 기숙사에서 거주하고 전 부통령 알 고어(Al Gore), 영화 배우 토미 리 존스(Tommy Lee Jones)이 거주한 Mower Hall, 유명한 경제 학자 제임스

토빈(James Tobin)이 거주한 Thayer Hall, 존 에프 케네디(John F Kennedy)가 거주한 Weld Hall, 세계적인 지휘자 레오나드 번스타인(Leonard Bernstein), 마이크로 소프트 창시자 빌게이츠(Bill Gates)가 거주한 Wigglesworth Hall 등이 유명한 기숙사들이다.

고학년들의 경우는 찰스강(Charles River) 주변 9개의 하우스들과 레드클리프 칼리지에 3개 등 총 12개 하우스에서 거주하게 된다. 특징 중 하나는 졸업식 때 모든 졸업생들은 하버드 야드 졸업식에 참여하고 졸업장은 각자 하우스에서 하우스장이 학생들 개개인에게 수여하는 방식이다. 이는 학생들이 하우스 시스템에 대한 소속감을 많이 느끼도록 하려는 의도이다. 하버드 학생의 약 97%가 4년동안 기숙사에서 거주하며 캠퍼스와 대학 생활을 동시에 즐길 수 있게 만들어져 있다. 현재 하버드에 약 21,200명의 학생들이 학부, 대학원, 전문 대학원에 재학중이고 이중 약 6,700명이 학부에 재학중이다. 학교 캠퍼스가 보스턴, 알스톤, 캠브리지에 분산되어 있어 숫자에 비해 학생들이 많다고 느껴지지 않는다. 재학생들 중 약 60% 이상이 학교가 제공하는 재정보조 수혜를 받고 공부하기 때문에 재정적인 걱정과 어려움으로 공부를 못하는 일은 거의 없다.

많은 학생들이 학교 또는 학생 자치 기구들

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다. 현재 공식적인 학생 자치 클럽만 약 400여개가 된다. 학생들이 자치활동에 참여하는 이유는 강한 공동체 소속감과 기여, 이전에 시작한 경험들의 지속적 발전, 그리고 끊임없는 자기 발전을 위해서이다. 많은 선�후배간의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졸업 후에도 자치활동을 통한 유대관계가 지속되어 선배들이 후배들을 많이 이끌어주고 있다.

학생들이 여름방학 동안 다른 나라에서 특별공연과 활동을 하기를 원한다면, 사전에 클럽활동 회장 및 임원들이 타당한 활동 계획서를 학교 자치활동 사무실에 제출하여 허가가 나면 기간과 상관없이 모든 비용이 학교에서 제공된다. 예를 들면 2년 전 음악 동아리 회원들이 1달간 유럽 투어 공연을 계획한 것을 보았다. 당시 학교가 비행기, 숙박, 기타 여행경비를 거의 보조해주는 것을 보았고, 학교가 제한적으로 보조를 해주면 회원들이 기금을 모아 계획한 이벤트들을 실행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 이런 점은 하버드 학생들이 이미 고등학교에서부터 해온 경험과 자신감으로부터 나온 결과물들이다. 결론적으로 하버드에서의 자치활동은 매우 필요한 것이고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4개 이상의 클럽활동을 하고 있다.

(다음 호에 계속)

정준기 원장 (보스턴 교육원)  
Tel: 339-234-5255 / 5256 / 5257  
Fax: 339-234-5258  
Email: bostoneducation@hotmail.com  
Web: bostonedu.org



www.pospay24.com



POWERED BY  
**WorldPay**<sup>TM</sup>  
Authorized Representative Agent of

# POSPay



 Leaf

무료기계(2중계약 없음)

One Touch Solution POS  
24시간 이내 입금

모바일페이 (iPhone, Android)

Agent / 상담원 모집

TEL **617-466-2212**

TOLL FREE **888-604-2190**

150 Eastern Ave #2FL Chelsea, MA 02150



사업의 시작은

# Lee Associates

# 이경해 부동산

## 1.800.867.9000



**Broker & Realtor(1985년부터 보유) 사업 및 부동산 무료 상담**

비즈니스 용자 알선:20% 현금다운, 크레딧 700+  
상가건물,콘도,아파트건물 투자하실 분 환영  
1031 Exchange(상가건물세금혜택)서비스  
미 전역 프랜차이즈 비즈니스

E2비자 사업체 전문,비즈니스 무료상담  
크고작은 세탁소들,런드로맷(Laundromat) 많음  
주유소,식당,편의점,주류판매점등 다양한 사업체  
항상 리스팅 80-100 보유

Cell.....508.962.2689  
Tel.....781.297.5679  
www.leebrokers.biz  
Email..kayleebrokers@aol.com

보스톤 북쪽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220,000+ 소유자 은퇴

커피 카페, 캠브리지 하버드 법대 근처, 매매가격 \$100,000

보스톤 남쪽 아이스크림, 연매상 \$400,000 프랜차이즈

보스톤 고급 몰 커스텀주얼리 연매상 \$180,000 좋은 매매 가격

동양식당 히바치/스시 우스터 클락유니버시티, 저녁 한끼 Full 리커 면허증  
연매상 \$250,000 매매가격 \$129,000

뉴햄프셔 세탁소 Full Plant 급매매, 연매상 \$120,000 매매가격 \$69,000

뉴햄프셔 드랍오프 스토어, 연매상 \$140,000 고급동네

보스톤 북쪽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250,000 소유자 은퇴

다운타운 보스톤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250,000 금액 협상가능

보스톤 남쪽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110,000 매매가격 \$60,000

뉴햄프셔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100,000+

뉴햄프셔 드랍오프 스토어, 연매상 \$82,000 매매가격 \$35,000

세탁소 뉴튼지역, 연매상 \$180,000+ 매출 계속 증가, 내부 리모델 완료

스넥(프레첼)가게, 매매가격 \$39,000 연매상 \$300,000 주인 부재

뉴햄프셔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170,000 소유자 은퇴

요쿠르트, 아이스크림 연매상 \$65,000 좋은 매매가격

드롭오프 스토어 연매상 \$155,000+ 부유한 동네

알링턴지역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245,000 변화가 좋은 위치

보스톤 대학가 근처, 세탁소+셔츠유닛, 연매상 \$180,000+\$100,000(홀세일),  
60lbs 세탁기(퓍아님)

보스톤 남쪽 피자/델리/한식 성장가능성 많음. 연매상 \$330,000

메인주 포틀랜드지역 컨비니언스, 연매상 \$600,000 E-2 비자 가능

보스톤 북쪽 세탁소 Full Plant 연매상 \$360,000 매매가격 \$235,000 소유자 은퇴

보스톤 북쪽 아침, 점심 5일 오픈, 건물안 위치 연매상 \$180,000

보스톤 북쪽 주유소+컨비니언스 (2 비즈니스), 연매상 \$1.4M

뉴튼 세탁소: 연매상: \$120,000+ 홀세일: \$100,000 오너 파이낸스(50%)

보스톤 북쪽 런드로맷 연매상 \$140,000 Wash & Fold 많음 소유자 은퇴



### 명문 중.고.대학 진학상담및 수속

- 전문적인 맞춤형 진학상담
- 최고 에세이 편집자
- 최고 전·현직 입학 담당자 상담

### 섬머/윈터 프로그램

- 전문적인 관리 및 실질적인 프로그램
- MIT/Harvard 특별 프로그램
- 다양한 주말 프로그램

### 가디언 업무

- 수시 교사 면담 및 성적관리
- 아카데믹 로드맵 작성 및 실행
- 다양한 경시 대회 준비, 섬머 및 교외 활동

## SAT I,II 주말 Intensive Class

### SAT I Class

1. 대상: 시험을 앞둔 10,11,12학년

### 2. 특징:

- 실전문제풀이 중심으로 다가오는 시험대비 및 최종점검
- 종일 프로그램(9:00-5:00)
- 4주 단위로 상시 등록가능
- 실력있는 강사(영문학 박사로 본원에서 4년 강의중)

### 3. 수업일정

9:00- 9:30 단어테스트  
9:30-11:30 class(reading/writing)  
11:30-12:30 점심식사  
12:30- 5:00 Full set 실전문제풀이

### SAT II Math II C Class

- 다년간 경험의 공학박사 강사
- 학생들의 필요에 따른 맞춤형 강의

## 2014 추수감사절 프로그램

1. 프로그램 일정: 11.22(토)~30(일)

(11.27일 추수감사절 당일은 휴강)

### 2. 프로그램 내용

- SAT I/SSAT/TOEFL Class(3명이상)
- SAT 2 Subject Test Prep (Math/Science/History/Language)
- All subjects for private tutoring
- National Contest Prep(AMC 10&12)

3. 프로그램 참가자의 숙식 및 교통편 알선

\* 자세한 프로그램 정보: www.bostonedu.org

## 아카데믹 프로그램

1. SAT 1,2 /AP/SSAT/TOEFL 및 전 학과목 개인수업 가능

- 학생의 필요에 따른 맞춤형 강의
- 최고 전문가들의 강의
- Skype수업 가능

2. Reading/Writing class

- 현직 영어교사 강의
- 다양한 장르의 체계적인 글쓰기 교육
- 독서후 토론을 통한 비판적 사고력 향상

Boston Education World, Inc. 보스톤 교육원

128 Wheeler Rd. #301, Burlington, MA 01803 3

tel. 339.234.5255~7 / fax. 339. 234. 5258

www.bostonedu.org 문의: info@bostonedu.org

수업문의: academicservices@bostonedu.org